ARKO 수시연구 2025-02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2025. 12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주 관 기 관 :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 책임자 : 안혜진(건국대학교)
참여 연구원 : 이병민(건국대학교)
서국선(중앙대학교)
김이나(건국대학교)
장은영(건국대학교)

연구개요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현행 예술창작지원사업 구조의 다층적 진단 및 대안적 체계 마련에 목적이 있음. 첫째, 가치기반 접근법을 토대로 연구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최근 3개년(2023-2025) 정량 데이터 기반 변화추이 분석과 유형화를 통해 사업 운영의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함. 둘째, 정책·법령·선행연구·뉴스 분석을 통해 예술지원 정책 전반의 환경과 트렌드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정성 조사를 통해 현장의 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수렴함. 셋째, 정량분석 및 정성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대안적 사업모델 및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함

- (분석 프레임 구축) 발주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치기반 접근법'을 연구의 핵심 원리로 설정하고, 예술 활동의 전 주기(창작-성장-유통-확산)를 포괄하는 단계별 가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함
- (정량분석: 사업 구조와 예산 배분 변화 분석 및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근 3개년(2023-2025) 예술창작지원사업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업의 총예산 변화 추이, 연도별 총 사업수 변화 추이, 연도별 세부 예산 현황 및 장르별 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을 분석함. 나아가 군집분석을 진행해 예술창작지원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구조적 특징에 따른 대안적 지원 방식 및 성과관리 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 (이론·정책 및 문헌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문화예술진흥법」·관련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국내외 예술지원 관련 정책보고서·연구보고서·학술논문,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반 뉴스 담론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예술지원정책의 트렌드와 구조적 쟁점을 도출함
- (정성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고관여자(FGI), 전문가 및 사업 수혜 예술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원 과정 경험, 행정 절차 애로사항, 사업방식별 수혜 효과와 한계, 다년·맞춤형 지원에 대한 인식, 성과지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등을 수집 및 분석함
- (가치기반 사업모델 및 성과지표 설계) 정량분석과 정성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현행(AS-IS) 구조와 개선 방향(TO-BE)을 비교·정리함. 이를 바탕으로 창작-성장-유통-확산의 단계별 지원 구조에 대응하는 가치지표 및 핵심 성과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가치지표를 도출함. 나아가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현행(AS IS) 구조에서 지향 구조(TO BE)로의 정책 방향 전환 프레임을 제시하고, 향후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제도 개편과 정책 연계를 위한 실행 전략과 정책 과제를 도출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2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04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일반현황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10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
제2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일반현황 15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개요 15
2.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29

제3장.
예술창작지원사업 트렌드 분석

제1절 : 예술창작지원사업 트렌드 키워드 분석 34
1.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34
2. 예술창작지원사업 워드 클라우드 분석 37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39

제4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 선행연구 검토 44
1. 이론적 배경 44
2. 예술창작지원사업 관련 제도 49

제5장.
예술창작지원사업 관련 사례

제1절 : 국내외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54
1. 국내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54
2. 국외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57
3.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시사점 58

제6장.
전문가, 고관여자 및 사업참여자 심층인터뷰

제1절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61
1.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개요 61
제2절 : 고관여자 의견수렴 67
1. 고관여자 의견수렴 개요 67
제3절 :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72

1.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개요 72

제7장.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모델 및 성과지표 개발(안)

제1절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79
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방법론적 틀 79
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및 성과지표 제안 92
3.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제언 97

참고문헌 105
[부록 1] 예술창작지원사업 각 장르에 따른 연도별 추진 현황 108
[부록 2] 전문가, 고관여자, 사업 참여 예술인 질문지 115

표 목차

[표 1-1] 연구 범위 및 내용 05
[표 1-2] 연구진 리스트 07
[표 1-3] 연구의 주요 일정 08
[표 2-1] 예술창작지원사업 총예산 변화 추이(2023-2025) 16
[표 2-2]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총사업 수 변화 추이(2023-2025) 16
[표 2-3]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세부 사업 예산 변화 추이(2023-2025) 18
[표 2-4] 문학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19
[표 2-5]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0
[표 2-6]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1
[표 2-7] 국제예술교류지원 및 글로벌창작역량·네트워크강화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3
[표 2-8]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4
[표 2-9]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4
[표 2-10]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5
[표 2-11]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6
[표 2-12]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26
[표 2-13] 2025년도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세부사업(예시) 31
[표 3-1]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방법 33
[표 3-2]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방법 37
[표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방법 39
[표 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위기 대응과 비대면 39
[표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권리와 공정(Rights & Fairness) 40
[표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K-컬처와 예산구조 40
[표 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2024 기술 융합과 미래 의제 40
[표 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2025년 지속가능성과 도약 40
[표 4-1] Klamer의 5-Sp 모델 44
[표 4-2] 예술창작지원사업 분석 기본 프레임 48
[표 4-3] 예술창작지원사업 가치사슬별 분석 프레임(안) 49
[표 4-4] 「문화예술진흥법」 49
[표 4-5]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법적 근거 50
[표 4-6]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추진 방향 51
[표 4-7]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관련 세부 내용 52
[표 5-1] 문예회관의 효율성 분석 변수 54
[표 5-2] 정책 목표에 따른 다층적 변수 체계 56
[표 5-3] 공연분야 공공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지표 체계 56
[표 5-4] 예술조직 운영에 따른 투입 및 산출 변수 57
[표 6-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61
[표 6-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진행 사진 62
[표 6-3]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고관여자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67

[표 6-4]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72
[표 7-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방법론 구성 79
[표 7-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세부 단계 80
[표 7-3]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정량분석 81
[표 7-4]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82
[표 7-5]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정책 기반 83
[표 7-6]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정책 기반 84
[표 7-7]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기관 미션 85
[표 7-8]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과정_예술창작지원사업 86
[표 7-9]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사례분석 87
[표 7-10]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련 트렌드 키워드 분석 88
[표 7-1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89
[표 7-1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계자 의견수렴(사업 추진 관계자) 90

[표 7-13]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계자 의견수렴(사업 참여자) 91
[표 7-14]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단계별 가치 지표 제안(안) 93
[표 7-15] 가치기반 예술창작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KPI) 제안(안) 94
[표 7-16]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제안(안) 95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06
[그림 2-1] 아르코 비전 2030 11
[그림 2-2] 예술창작지원사업 K-means(5유형) 시각화 결과 31
[그림 3-1] 예술창작지원사업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결과 시각화 36
[그림 3-2] 예술창작지원사업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시각화 38
[그림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창작지원 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변화(2021-2025) 41
[그림 4-1] Klamer의 5-Sp 모델의 도식화 44
[그림 4-2] 예술창작지원사업 3가지 가치 45
[그림 4-3] 문화의 가치 창출 과정(UNESCO) 47
[그림 7-1]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방향성 전환 구조 9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예술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

1) 예술지원정책 추진 현황

■ 예술지원정책의 전환 요구

○ (예술지원의 제도적 기반 확대) 최근 '문화산업 강국', 'K-컬처' 등 정책기조 확산에 따라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국회도서관, 2023; 문화체육관광부, 2025).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1972)」, 「예술인 복지법(2011)」,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등 예술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인 발굴, 창작지원, 성과 확산, 국제 진출에 이르는 예술 활동 전주기 기반의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운용의 효율성 및 현장 수요와의 적합성 측면에서 더욱 실질적 대응이 요구됨

■ 공급자 중심 구조의 한계와 정책 전환 필요성

○ (단기성 및 공급자 중심 구조의 한계) 기존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 지원은 시장실패 이론에 기반한 직접지원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대부분 단년도 단위의 일시적 지원이나 행정기관의 수월성을 중심으로 운영됨(정윤수, 2022). 이러한 구조는 예술인의 생계 안정, 창작 지속성, 공동체 기반 형성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립 기반 마련에 한계를 드러냄

○ (운영 인력 부족) 특히 소형 예술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과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성과 분석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경인일보, 2024). 따라 지원사업의 성과 축적과 개선 피드백 구조가 부재한 채, 예산 집행에 치중된 단절적 사업 운영 구조가 나타남(인천뉴스, 2025)

○ (맞춤형 지원체계의 도입) 예술인의 정책 의존도 완화와 창작활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창작공동체, 예술단체, 민간 기획자 등 다층적 주체를 포괄하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요구됨(박성권, 허훈, 2025). 특히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인력 양성, 간접 지원 확대 등의 병행(김재중, 허식, 2019), '다년 집중형'과 같은 차등화 트랙 도입이 필요함

○ (자율성과 실행 역량 중심의 구조 전환) 예술 주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임. 특히 예술인의 자발적 기획과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행정적 편의에 기반한 단방향 운영 구조가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일부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정용성, 장웅조, 2023). 이에 자율성 중심의 창작지원 사업 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간접 지원체계를 함께 설계하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행정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복잡한 행정 절차는 중·소규모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인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 제고의 차원에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서울문화재단, 2018)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중복성 문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합운영실적 평가보고서(2025) 등을 살펴보면 관련기관 간 사업 중복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은 각각 사업구조와 방식은 다르나 창작 초기 단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적 연계 또는 중첩 가능성이 존재함
  -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 및 단체의 신작 개발을 지원하는 대표적 창작지원 사업임
  - 「예술활동준비금」은 개인 예술인의 창작 준비와 활동 지속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 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통해 창작 초기 비용을 보완하는 구조임
  - 두 사업 중, 하나는 프로젝트 단위 지원, 다른 하나는 개인 예술인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창작 단계의 초기 투입을 다루고 있어 지원 목적과 수혜 대상이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상술한 문제점은 문화체육관광부(2025)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정책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이해관계자(예술인,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환류 시스템 부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성을 고려할 때, 국가 문화정책 목표(예: [국정과제 49, 52], K-컬처 전략[국정과제 103-105])와의 연계성 부족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성과지표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수요자 맞춤형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 개발과 성과지표 고도화

○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예술 콘텐츠의 다원화 및 창작 주체의 다양화에 따라 지원 목적·사업 특성·지원 대상·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가 요구됨. 특히 창작 방식·장르 특성·조직 유형 등 현장의 분화 양상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함

○ (현장 기반 실증모델 구축) 기존 예술창작지원 논의는 관념적·미시적 측면에 머물렀으며, 서울문화재단(2018)에서 예술지원을 3개로 구분하고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다층적 예술 주체를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전략으로는 이어지지 못함. 이에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증적 모델을 통해 실행 가능성과 전략 활용도를 높이는 체계를 설계하고자 함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 개발 및 성과지표 고도화)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상이하므로 단일한 지표로는 각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따라 사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각 사업의 가치 창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성·정량 기반의 다층적 성과지표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술창작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포괄하기 위해, 결과물·참여자 수 등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성, 공동체 기여도, 예술생태계 확장성, 자립 가능성 등 질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야 함
- 또한 예술단체가 지역사회와의 연결 거점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매개체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의 예산 정당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제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 예술지원기관의 창작지원 사업방식 한계점 진단 및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 본 연구는 발주처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가치기반 접근법(Value-Based Approach)'을 분석 프레임으로 확립함

- 현행 예술창작지원 체계는 사전·사후 지원, 단년·다년 지원, 개인·단체 지원, 소액·다액·사회참여형 지원 등 다양한 트랙이 혼재되어 있고 사업별 명확한 분류 기준과 체계적 맵핑이 부재한 상황임
- 특히 장르 및 예술 현장의 특성에 비해 과도하게 획일화된 구조와 사업 간 중첩성,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적 비효율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원 목적의 분화, 단계별 가치 중심 체계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사업방식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지형도를 마련하고자 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정량분석 및 유형화

○ 앞서 구축한 분석 프레임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근 3개년(2023-2025) 사업 데이터를 수집 및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구조와 운영 특성의 현황을 진단하고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유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정책 보고서,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술지원정책 전반의 트렌드와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분석을 통해 단기성과 공급자 중심의 평가체계, 과도한 행정 부담, 일회성 지원 중심 구조 등 기존 창작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함

■ 예술창작지원사업 대한 이해관계자 조사 및 실행 가능성 검증

○ 실제 수혜자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FGI 등 다층적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조사 항목에는 ① 지원 과정의 경험과 애로사항, ② 사업방식별 수혜 효과 및 한계, ③ 다년 지원·맞춤형 지원·프로젝트 기반 지원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인식, ④ 정책 신뢰도·접근성이 포함됨
- 정성 자료는 대안 모델의 필요성, 현장 적합성,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핵심적 근거로 활용됨

■ 대안적 예술창작지원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본 연구는 가치기반 예술창작지원사업 분석 프레임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의 창작-성장-유통-확산의 사업 단계별로 창출되는 가치 요소를 도출한 후, 이에 상응하는 가치 지표를 체계적으로 도출함

- 해당 모델은 지원 목적-사업구조-지원 대상-선정 기준-성과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었으며, 기존 단기성과 중심 구조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함

- 또한 실제 운영에 적용이 가능한 단계별 가치 지표와 성과지표를 제안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향후 예술창작지원사업 개편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분석 도구를 제공해 국가 문화정책([국정과제 49·52·103-105])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지속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도출함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표 1-1] 연구 범위 및 내용

<table>
<tr><th>범위</th><th colspan="2">내용</th></tr>
<tr><td>과업 목표</td><td colspan="2">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델 개발</td></tr>
<tr><td>과업 비전</td><td colspan="2">예술지원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자립형 예술 창작 생태계를 위한 체계 수립과 민간-공공 연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td></tr>
<tr><td>과업 기간</td><td colspan="2">• 계약 체결일~2025년 12월 10일 (약 4개월 내외)
※ 착수·중간·최종보고 포함</td></tr>
<tr><td rowspan="3">과업 범위</td><td>공간적 범위</td><td>•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또는 위탁 운영 중인 예술창작지원사업 전반
• 국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목적으로 반영</td></tr>
<tr><td>시간적 범위</td><td>
<table>
<tr><td>8월</td><td>• 과업준비(예술창작지원사업 이론적 배경 및 추진 현황 검토)</td></tr>
<tr><td>9월
-
10월</td><td>• 정량 및 정성 자료 수집 및 분석
- 최근 3개년(2023-2025)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구조와 예산 배분 변화 분석 및 유형화(군집분석)
- 발주처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한 예술창작지원사업 분석 프레임 확립
- 사업 참여 예술인 심층인터뷰를 통한 전반적 애로사항 및 개선점 의견수렴</td></tr>
<tr><td>11월</td><td>• 고관여자 FGI를 통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 중간보고, 결과 종합 분석 및 핵심 키워드 도출
• 핵심 키워드 바탕 사업 운영 가치 지표와 핵심 성과지표 설계 및 제안
• 사업 성과관리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제언 도출</td></tr>
<tr><td>12월</td><td>• 최종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td></tr>
</table>
</td></tr>
<tr><td>내용적 범위</td><td>[1]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예산 배분 변화 추이 분석 및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 최근 3개년(2023~2025)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총예산 및 사업 수 변화 추이 분석
•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과 장르별 사업 추진의 연도별 변화 분석
• 최근 3개년 예술창작지원사업 데이터 기반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 유형화(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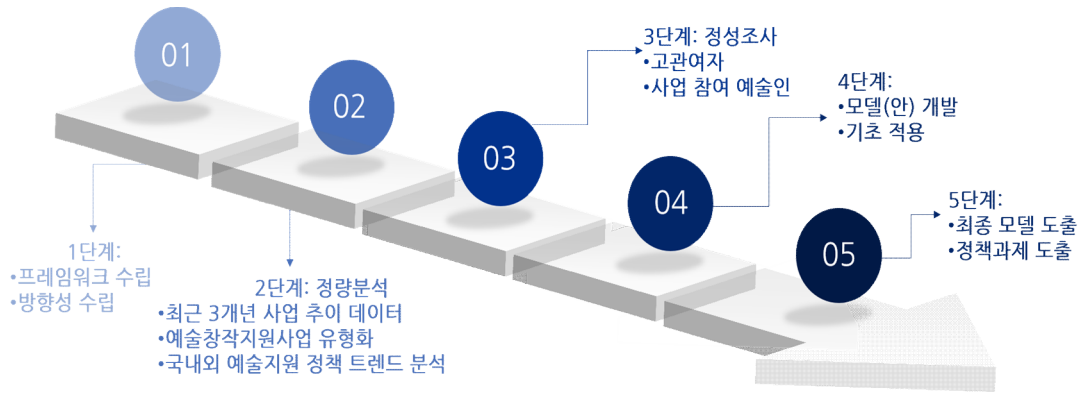
[2]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 방식 개선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사업 유형별 효율 분석 기반, 구조적 문제점 도출
• 예술인/예술단체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고관여자 인터뷰 진행
*조사 대상: 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고관여자, 전문가
*조사 항목: 현행 사업 운영 방식의 문제점, 개선점, 대안 수용 가능성 등

[3] 대안적 가치기반 예술창작지원사업 모델 설계
• 개선 의견 반영 후 사업모델 구조 제안
• 시범 적용이 가능한 가치 지표 및 성과제표 제안
• 혼합(정량+정성) KPI 기반 성과관리 로직 구축 및 정책 과제 제시</td></tr>
</table>

다.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본 연구는 과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 연구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함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1단계: 분석 프레임 및 원칙 수립

- 발주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의 기본 방향과 새로운 사업모델이 지향해야 할 핵심 원칙을 논의함
-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가치기반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함

○ 2단계: 정량조사

- 최근 3개년(2023~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배분의 변화 양상과 사업 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점을 도출함
- 최근 3개년(2023~2025)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사업 유형화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구조적 특성을 비교·분석함

○ 3단계: 정성조사

- 정책 보고서,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국내외 예술지원 정책의 트렌드와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함
-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고관여자, 전문가, 사업 참여 예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적 사업모델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4단계: 예술창작지원사업 모델 초안 개발 및 기초 적용

- 정량 및 정성조사 결과를 종합해 '가치기반 예술창작지원사업 모델' 초안을 도출함

○ 5단계: 최종 사업모델 및 정책 과제 도출

- 창작-성장-유통-확산의 단계별 구조에 대응하는 가치지표와 핵심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가치지표를 도출함

- 또한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현행(AS IS) 구조에서 지향 구조(TO BE)로의 정책 방향 전환 프레임을 제시하고, 향후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제도 개편과 정책 연계를 위한 실행 전략과 정책 과제를 도출함

라. 연구의 구조 및 흐름

1) 연구진 구성

■ 연구진 리스트

[표 1-2] 연구진 리스트

구분	참여자	비고
연구진	안혜진	건국대학교 교수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소장 /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서국선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수료
	김이나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
	장은영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 건국대학교 메타버스융합학과 박사과정
전문가 자문	구ㅇ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장ㅇㅇ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한ㅇㅇ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ㅇㅇ	AMX 연구소 연구소장
	김ㅇㅇ	AMX 연구소 연구원
고관여자	조ㅇ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팀 책임연구원
	김ㅇ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차장
	황ㅇ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대리
사업참여자	송ㅇㅇ	시각예술(도예) 예술인
	김ㅇㅇ	시각예술(도예) 예술인
	박ㅇㅇ	시각예술(전시) 예술인
	이ㅇㅇ	시각예술(사진) 예술인
	정ㅇㅇ	공연예술(영상) 예술인
	정ㅇㅇ	공연예술(영상) 예술인
	이ㅇㅇ	공연예술(음악) 예술인
	황ㅇㅇ	공연예술(연극) 예술인
	김ㅇㅇ	문학(비평) 예술인 / 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오ㅇㅇ	문학(비평) 예술인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 연구의 주요 일정

■ 연구의 주요 일정

[표 1-3] 연구의 주요 일정

구분		세부내용	월별 추진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업 준비		• 예술창작지원사업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추진 현황 검토	■	■	■		
		• 발주처 및 전문가 자문 통해 연구 프레임워크 확립 및 사업 모델 제안의 핵심 원칙 논의 • '가치기반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분석 프레임 구체화를 위한 방법론 정립		■			
정량분석 수행	정량분석	• 최근 3개년(2023-2025) 예술창작지원 사업 데이터 변화 추이 분석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유형화(군집분석)		■	■		
	트렌드 분석	• 관련 정책 보고서, 선행연구, 법령 등 종합검토 • 국내외 예술지원 정책의 트렌드 및 주요 쟁점 분석		■	■		
정성조사 수행	고관여자 의견수렴	• 사업의 추진, 운영, 관리 등 전반적 논의 및 의견수렴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기존 성과지표 체계 검토				■	
	사업 참여 예술인 심층 인터뷰	• 수혜자 측면의 사업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 • 수혜자 측면의 사업방식별 수혜 효과 및 한계 관한 의견수렴 • 새로운 사업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수렴		■	■	■	
중간보고		• 중간결과 및 추진 내용 공유				■	
결과 종합 분석 및 핵심 키워드 도출		• 정량분석·정성조사 결과 종합 분석 • 성과지표 개발, 사업모델 제안을 위한 핵심 키워드 도출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가치지표와 성과지표 제안		• 핵심 키워드 바탕 사업 운영 가치 지표와 핵심 성과지표 제안			■	■	
사업 성과관리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제언 도출		• 성과관리를 위한 'AS IS - TO BE'의 정책 방향성 전환 구조 도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세부 제언 도출			■	■	
최종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종 결과물 제출					■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일반현황

제1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는 1973년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 후, 2005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개편되어 현재의 위상을 갖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기능은 △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지원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 예술창작 기반 조성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 가치 인식 제고 등으로 구분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으로 출범했으며, 1970-80년대에는 아르코미술관(1974), 아르코예술극장(1979) 등 핵심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함

○ 1990년부터 2000년대에는 공연예술 지원체계 개편, 문예진흥기금 이관 등 운영 구조를 정비하였으며 2005년 현행 합의제 기구로 전환되면서 지원사업 체계가 본격적으로 확립됨

○ 2010년대에는 예술인의 집 개관, 예술나무운동 추진, 기부·후원 기반 마련 등 혁신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2019년에는 중장기 전략인 '아르코 비전 2030'을 수립함. 2020년 이후에는 조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창작지원 고도화, 문화예술후원 정책 강화, 국제협력 확대 등을 추진 중임

나.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계획

■ 아르코 비전 203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비전 2030」은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미션을 토대로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성, 전문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함

- 공정성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원칙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함
- 전문성은 정책 수립 및 행정 역량의 지속 강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수행에 초점을 둠
- 다양성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와 참여를 존중하고, 예술인과 시민 간 소통이 가능한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속가능성은 미래지향 관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가 문화예술생태계의 안정적 유지 및 발

전 기여를 지향함

○ 전략목표 아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4대 전략과제를 운영함

- 첫째, ‘문화예술의 창의성 발현’ 과제는 창작지원의 고도화, 인적자원 육성, 창작 콘텐츠 특성화, 창작성과의 국민 체감 확대 등을 통해 예술창작 기반을 강화함
- 둘째, ‘문화예술의 매력 국민 공유’ 과제는 취약계층 프로그램 다양화, 일상 속 문화예술 경험 확산, 미래형 문화예술 향유층 발굴 등을 통해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
- 셋째, ‘문화예술의 가치 공감과 지지’ 과제는 예술정책 사업 다각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예술자료 축적 및 활용 등을 추진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함
- 넷째, ‘선진형 예술위원회 경영 모델 확립’ 과제는 제도 및 파트너십 강화, 조직운영 전문성 제고, ESG 경영 실천, 기관 브랜드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그림 2-1] 아르코 비전 2030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content/846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현황

■ 20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4)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50년 동안 예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기초예술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부터 '국제 무대에서 한국예술 위상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가 축적됨

-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문예진흥법 제정과 문예기금 조성이 이루어졌으며, 50년간 총 10,730억 원의 투자를 통해 문학 발간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등 기초예술 창작 기반이 지속 확대되었음
- 문학 분야에서는 지난 48년간 작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해 온 문학작품 발간 지원사업이 운영되었으며,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247개 작품 제작 지원(15년간)을 통해 국내 공연예술의 역량을 고도화함. 시각예술 분야 또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이후, 28년간 지속적인 운영과 전시지원을 통해 황금사자상(2014), 은사자상(2015) 수상 등 세계적 성과를 거두며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임
- 한편, 문화예술이 일상에서 멀어진 계층이나 지역에도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이 추진되었음. 경제적 어려움이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2006년 3만 원 수준에서 2024년 13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연인원 1,629만 명, 총 9,700억 원 규모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됨. 또한 사회적·지리적·문화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신나는예술여행'을 비롯한 이동형 문화복지 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누적 60,627개 시설 방문, 누적 참여 예술단체 4,743개, 누적 향유자 1,034만 명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함
- 더불어 국민이 예술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려는 노력도 병행함.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이 출범하여 각계각층 인사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누적 모금건수 220,579건, 누적 모금액 4,252억 원의 후원 성과가 축적됨. 이러한 민간 주도 예술후원 활성화는 공공의 예술지원 체계를 보완하며 예술생태계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함

○ 생활 속 예술 확산 또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문화 참여를 확대함

- 저소득층 255만 명에게 문화예술 향유 혜택을 제공하고, 29,505개 사용처와 2,270개의 할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더 많은 국민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17개 중앙·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한 소외지역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54,280명의 관람객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함. 더불어 장애인과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723회의 인문프로그램을 운영, 64,745명의 참여를 이끌며 예술을 통한 치유와 긍정적 경험을 확산함
- 장기 이용자의 경우, 93%가 문화 향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인 문화생활이 삶의 활력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줌
- 특히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예술 최초 경험자가 66.3%,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공급률이 22.2%로 나타나,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 경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사업은 국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음. 참여자의 삶의 가치 인식은 참여 전 71.4점에서 참여 후 83.0점으로 증가하며 문화예술 경험이 일상에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효과가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 창작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특히 예술현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원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그 결과, 총 3,682명의 이해관계자와 함께한 협력 과정을 통해 지원체계의 현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심의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의 신청 건수도 대폭 감소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환경을 마련함
- 또한 작품의 탄생부터 성장, 확산까지 예술의 전 생애주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다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창작 기반을 강화함. 이러한 지원 구조 개선은 국내 예술작품이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실제로 ARKO 지원작인 뮤지컬 〈마리퀴리〉는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웨스트엔드에 진출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증명함
- 아울러 한국 예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국제 무대의 참여도를 적극 확대함. 70개국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세계총회에서 2025년 한국 최초 유치가 확정되며, 국내 예술계의 국제적 위상과 문화외교 역량이 크게 강화됨
-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예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국 예술이 세계와 연결되고 확장되는 창의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SG 관점의 경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환경(E)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년 대비 탄소배출량 24% 감소라는 성과를 달성함. 또한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총 241건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기반을 마련함
- 사회(S) 영역에서는 고용 창출, 지역 상생, 고객 만족, 안전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남.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을 포함한 신규 채용 및 관련 정책을 통해 채용공고 시 관련 정보 사전 공개 100%, 사회형평적 채용 14명을 달성하며 고용 안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함
- 지역문화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함.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지원 규모는 약 255만 명에게 전달되었으며, '신나는예술여행' 누적 향유자 1,035만 명을 달성함. 아울러 지역 문화 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신설 6개 지역을 지원해 지역의 예술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함
-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84점, 문화광장 방문객 57만 명에서 195만 명을 기록하며 국민 대상 문화예술 서비스 품질을 높임. 인권경영 측면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 인권경영기관평가 96.1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
- 거버넌스(G) 영역에서는 투명경영 체계가 강화됨. 위원회 개최를 19회로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

율 58% 향상을 이루었음. 윤리경영 또한 강화되어 윤리 및 준법경영의 차원에서는 윤리교육 이수율 97.6%를 달성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함

- 마지막으로 안전경영에서는 안전교육 4,642명 이수, 현장사고 0건을 기록하며 문화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함. 직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임직원 교육훈련 종합만족도 90.1%에 달했으며, 총 251백만 원 규모의 교육훈련비가 투입되는 등 조직의 전문성 제고 기반을 강화함

제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일반현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개요

가. 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 경위

■ 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 경위

○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예술창작 환경 조성,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국제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됨

- 본 사업은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시와 함께 시작된 이후 지속 확대됨. 특히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은 한국 예술의 국제적 위상과 창작지원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구연합(IFACCA) 정회원 가입 또한 글로벌 협력 체계 속에서 국내 예술지원정책의 제도적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했으며, 세계 예술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창작지원 체계의 국제적 적합성이 뒷받침됨
-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해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복지 강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국가적 과제로 삼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새 예술정책 발표 역시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함
-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 「아르코 비전 2030」을 통해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보장, 창작공간 지원, 인력육성 혁신 등의 전략을 제시함.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이러한 전략과제를 보완함으로써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예술창작지원사업 일반현황

■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총예산 변화 추이

○ 최근 3년간 예술창작지원사업에 투입된 연도별 총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2023년 51,644백만 원에서 2024년 58,81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64,677백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표 2-1] 예술창작지원사업 총예산 변화 추이(2023-2025)

단위: 백만 원

예술창작지원사업의 3개년 사업비		
'23예산	'24예산	'25예산
51,644	58,814	64,677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

■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총 세부 사업 수 변화 추이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최근 3개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총사업 수는 2023년 36개에서 2024년 34개, 2025년 27개로 점진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양적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음을 나타냄

- 문학창작육성사업,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2023년 11개에서 2025년 7개로 감소하는 등 사업 조정의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남
- 글로컬창작역량강화사업(전 국제예술교류지원)은 2023년 7개, 2024년 7개, 2025년 6개로 3개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국내 예술인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중요성이 지속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함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2023년과 2024년 각 2개의 사업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 1개로 감소하여 기초예술 기반 다양성 제고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구조 조정이 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등 일부의 사업은 특정 연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연도 간 연속성이 낮은 운영 양상을 보임
- 반면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은 2024년에 신규로 도입된 이후, 2025년까지 동일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최근 사업 구조 내 일정 수준의 지속성을 보이는 사례임

○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사업 수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연도별 사업 구성의 조정과 일부 사업의 통합 및 종료를 통해 전체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업 간 중복을 완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구조 재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2-2]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총사업 수 변화 추이(2023-2025)

단위: 수

구분	2023	2024	2025
문학창작육성	6	5	4
시각예술창작육성	6	5	5
공연예술창작육성	11	10	7
글로벌창작역량및네트워크강화	7	7	6

(전,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	4	0	0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2	2	1
창작공간활성화지원	0	3	3
아르코공공예술	0	2	0
지역예술도약지원	0	0	1
총사업 수	36	34	27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

■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세부사업 예산 현황

○ 문학창작육성사업은 2023년 3,537백만 원에서 2024년 3,036백만 원, 2025년 2,485백만 원으로 연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문학 분야 지원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역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3,723백만 원으로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분야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반면,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2023년 29,467백만 원에서 2024년 34,447백만 원, 2025년 37,125백만 원으로 3년 연속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예술창작지원사업 내에서 공연예술 분야의 비중과 정책적 중요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관객 기반 확장, 유통·확산 효과,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입 방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창작역량및네트워크강화사업은 2023년 4,899백만 원에서 2024년 4,738백만 원, 2025년 4,362백만 원으로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임

- 이는 국제교류사업이 단기적 규모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은 2023년에만 6,596백만 원이 편성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단년도 혹은 한시적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2023년 2,400백만 원에서 2024년 2,172백만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안정적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로 편성되어 10,000백만 원 규모가 2025년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창작 지원을 넘어 창작 환경 및 인프라 기반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줌

○ 아르코공공예술사업은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998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2025년에 신규로 4,810백만 원이 편성되어 최근 들어 지역 기반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3개년 예술창작지원사업 예산은 장르별 직접 창작 지원의 조정과 더불어, 공

연예술 중심의 전략적 투자 확대, 창작 공간 및 지역 기반 지원 강화 등으로 정책 구조가 점진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보임

- 즉, 단기적 창작 성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창작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표 2-3]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세부 사업 예산 변화 추이(2023-2025)

단위: 백만 원

구분	'23예산	'24예산	'25예산
문학창작육성	3,537	3,036	2,485
시각예술창작육성	4,745	3,423	3,723
공연예술창작육성	29,467	34,447	37,125
글로벌창작역량및네트워크강화	4,899	4,738	4,362
예술과기술융합지원	6,596	-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2,400	2,172	2,172
창작공간활성화지원	-	10,000	10,000
아르코공공예술	-	998	-
지역예술도약지원	-	-	4,810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다. 예술창작지원사업 장르별 추진 현황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장르별 추진현황

○ 문학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문학창작육성사업은 [표 2-4]와 같이 최근 3개년(2023-2025)간 문학 창작 기반의 유지와 핵심 프로그램 중심의 구조 조정을 병행하며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에는 총 3,537백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문학창작산실」을 중심으로 아르코문학작가 펠로우십 우수작가 후속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문예지발간지원, 문학비평활동지원(창작의 과정#문학) 등 창작 단계별 지원 사업이 폭넓게 구성됨
  - 이와 함께 문학광장운영 및 문학주간운영을 포함하여, 창작 활동 지원과 더불어 문학 담론 형성 및 대중적 확산을 함께 도모하는 구조를 유지함
- 2024년에는 예산이 3,03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사업 구성도 일부 조정이 이루어짐
  - 「문학창작산실」 내에서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과 문예지발간지원, 문학비평활동지원이 중심적으로 운영되었고, 문학광장운영과 문학주간운영은 지속되었음
  - 이는 개별 작가 및 작품 단위의 직접 창작 지원을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존의 문학 확산 및 교류 프로그램은 유지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2025년에는 총예산이 2,485백만 원으로 추가 감소하였으며, 사업 구성은 더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됨
  - 「문학창작산실」에서는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우수작가후속지원과 문예지발간지원이 유지되었

고, 문학광장운영과 문학주간운영 역시 계속 운영됨

- 반면, 일부 비평 지원 사업은 축소 또는 제외되어, 제한된 재원 하에서 정책 효과성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지원을 집중하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볼 때, 문학창작육성 사업은 3개년 동안 예산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문학창작산실을 중심으로 한 작가 후속지원과 문예지 발간, 문학 행사 및 플랫폼 운영 등 문학 생태계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 이는 문학 분야 지원이 양적 확대보다는 선별적·집중적 지원을 통한 질적 성과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2-4] 문학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문학창작육성	2023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_우수작가후속지원	3.537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문예지발간지원	
			문학비평활동지원_창작의과정 #문학	
		문학광장운영		
		문학주간운영		
	2024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3,036
			문예지발간지원	
			문학비평활동지원	
		문학광장운영		
		문학주간운영		
	2025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_우수작가후속지원	2,485
			문예지발간지원	
		문학광장운영		
		문학주간운영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은 [표 2-5]와 같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각예술 분야 창작 전 단계 지원과 전시·비평·공공미술 영역을 포함한 다층적 지원 구조를 유지하며 운영되었음
- 2023년에는 총 4,745백만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시각예술창작산실」을 중심으로 전시사전연구지원(창작의 과정), 우수전시지원, 비평지원, 공간지원, 중견작가프로모션지원 등 창작 준비부터 전시 확산까지를 포괄하는 세부 사업이 운영되었음. 또한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이 병행되어, 개별 창작 지원과 공공 전시 인프라 운영이 결합된 구조를 형성하였음
- 2024년에는 예산이 3,42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세부 사업 구성에서도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음
  - 「시각예술창작산실」 내에서는 창작의 과정, 우수전시지원, 비평,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등이 중심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은 지속됨. 이는 전시 및 프로모션 중심의 지원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세부 사업을 보다 압축적으로 운영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2025년에는 총예산이 3,723백만 원으로 일부 회복되었으며, 「시각예술창작산실」을 중심으로 우

수전시지원, 비평,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이 지속 운영되었음

- 이와 함께 건축물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진흥사업이 포함되어, 시각예술 지원 범위가 전시장 중심에서 공공 공간 및 도시 환경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음.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역시 계속 유지되어, 창작지원과 공공 인프라 운영의 연계 구조는 일관되게 유지됨

-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은 3개년 동안 예산 규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각예술 창작산실을 핵심 축으로 한 전시·비평·중견작가 지원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에는 공공미술 영역까지 포함하며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음
  - 이는 단기적 창작성과 지원을 넘어, 시각예술 창작생태계의 지속성과 공공적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운영 기조로 해석됨

[표 2-5]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시각예술창작육성	2023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지원_창작의과정#시각예술	4,745
			우수전시지원	
			비평지원	
			공간지원	
			중견작가프로모션지원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2024	시각예술창작산실	창작의과정	3,423
			우수전시지원	
			비평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2025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3,723
			비평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건축물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진흥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표 2-6]과 같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전 주기 지원과 중·장기 창작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최근 3개년 동안 예산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2023년에는 총 29,467백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공연예술창작산실」을 중심으로 단계별 제작지원,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ARKO창작음악제 등이 운영되었음
  - 이와 함께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허왕후, [국회지정]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등 지정 사업이 포함되어, 대형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었음
  - 또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일반공모), [국회지정]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이 함께 추진되어, 창작, 유통, 공연, 인프라 운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구조를 형성하였음

- 2024년에는 예산이 34,44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공연예술창작산실」 내에서 창

작의 과정, 올해의 신작 중심의 지원 구조가 강화되었음. 기존의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ARKO 한국창작음악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국회지정]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지속 운영되었으며, [국회지정]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이 추가됨

  • 이와 함께 아르코·대학예술극장운영과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이 병행되어, 단년도 창작 지원과 중·장기 창작 축적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 기조가 유지되었음

- 2025년에는 총예산이 37,125백만 원으로 다시 한 차례 확대되었으며, 「공연예술창작산실」에서는 올해의 신작과 대본공모, ARKO한국창작음악제가 핵심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었음

  • 또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 소극장 학전 재대관 지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이 포함되어, 창작 단계 지원과 공연 공간 유지 및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가 강화되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은 3개년 동안 예산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으며, 창작산실을 중심으로 한 신작 발굴, 중·장기 창작지원, 공연장 운영 및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결합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유지해 왔음

  • 이는 공연예술 분야가 예술창작지원사업 내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기 성과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작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예산 배정이 조율되고 있음

[표 2-6]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공연예술창작육성	2023	공연예술 창작산실	단계별 제작지원	29,467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ARKO창작음악제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허왕후	
			[국회지정]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지원	일반공모	
			[국회지정]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2024	공연예술 창작산실	창작의과정	34,447
			올해의 신작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ARKO한국창작음악제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지원	일반공모	
			[국회지정]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국회지정]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	
		아르코·대학예술극장운영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2025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37,125
			대본공모	
			ARKO한국창작음악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	
		소극장학전재대관지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국제예술교류지원 및 글로벌창작역량·네트워크강화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국제예술교류지원 및 글로벌창작역량·네트워크강화사업은 [표 2-7]과 같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 예술 교류 프로젝트와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최근 3개년 동안 예산 규모는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임
- 2023년에는 총 4,899백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을 중심으로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등이 추진되었음. 이와 함께 [국회지정] 어반브레이크 2023,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등 지정 사업이 포함되어, 특정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었음
  - 또한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을 중심으로 해외 문화기관 협력,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어, 단기 교류를 넘어 국제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지향하는 구조를 형성하였음
- 2024년에는 예산이 4,73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업 구성은 전반적으로 유지되었음.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이 지속 운영되었으며, [국회지정] 어반브레이크 2024와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이 계속 포함되었음
  - 또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해외 문화기관 협력 등이 병행되어, 국제교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음
- 2025년에는 전반적인 사업구조가 글로벌창작역량및네트워크강화로 통합되어 예산 규모는 4,362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음
  - 「글로벌창작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해외 레지던시 참가지원, 공동 창·제작 지원이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해외 문화기관 협력,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었음
  - 이는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 국제교류 지원에서 나아가, 국내외 창작 주체 간의 중·장기적 협력과 네트워크 확장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해석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제예술교류지원 및 글로벌창작역량·네트워크강화사업은 3개년 동안 예산은 조정되었으나, 사업의 성격은 단순 교류 지원에서 창작 역량 강화와 글로벌 협력 구조 구축으로 점진적으로 고도화되었음
  - 이는 국제예술교류 정책이 단기적 교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네트워크 형성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표 2-7] 국제예술교류지원 및 글로벌창작역량·네트워크강화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국제예술교류지원	2023	국제예술교류 프로젝트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4,899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회지정] 어반브레이크 2023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국제예술교류 네트워크구축	해외문화기관협력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4	국제예술교류 프로젝트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4,738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회지정] 어반브레이크 2024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국제예술교류 네트워크구축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해외문화기관협력	
글로벌창작역량및 네트워크강화	2025	글로벌창작 역량강화	해외레지던시 참가지원	4,362
			공동창제작지원	
		글로벌 네트워크강화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해외문화기관협력	
		문화예술세계총회개최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은 [표 2-8]과 같이 2023년에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작 실험 및 산업 연계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음
- 2023년에는 총 6,596백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예술과 기술 창작단계별 지원을 중심으로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작·실험 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융합형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 예술서비스 개발과 빅데이터 예술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 콘텐츠의 서비스화 및 시장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예술과기술융합바우처 지원(예술×기술 융합바우처)을 통해 예술인과 기술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이 적용되었음. 이는 기존 장르 중심 예술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실험적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2024년과 2025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예술-기술 융합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축소되었다기보다는 관련 지원이 다른 사업군으로 흡수·통합되거나, 더욱 선별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은 2023년에 집중적으로 추진된 한시적 사업으로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 모델과 산업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예술창작지원사업 체계 내에서 융합형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시범적 성격

을 지닌 사업으로 해석됨

[표 2-8]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예술과기술 융합지원	2023	예술과기술 융합지원	예술과 기술 창작단계별 지원	6,596
			융합 활성화 기반 조성	
		빅데이터예술 서비스개발	빅데이터 예술서비스 사업화 지원	
		예술과기술융합 바우처지원	예술x기술융합바우처	
	2024	-		-
	2025	-		-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표 2-9]와 같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다양성 확보와 참여 대상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며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에는 총 2,400백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다원예술창작지원을 중심으로 장르 간 경계를 넘는 실험적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음
  -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이 포함되어, 기초예술 창작 지원과 더불어 향유층 확대 및 미래 관객 기반 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를 갖추었음
- 2024년에는 예산이 2,172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사업 구성에 있어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음. 즉, 창작의 과정 공모지원을 통해 창작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원예술창작지원기획사업을 통해 더욱 구조화된 지원이 병행되었음
  - 이는 단순 결과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창작 과정과 기획 역량을 함께 고려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2025년에는 총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2,172백만 원으로 유지되었으며, 다원예술 창작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음
- 종합적으로, 기초예술다양성 증진지원 사업은 최근 3개년 동안 예산 규모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었고, 다원예술 창작지원과 참여 주체의 확장을 통해 기초예술 영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온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성과 중심의 단기적 효과보다는 예술 생태계의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적 지원사업의 성격을 지님

[표 2-9]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기초예술다양성	2023	기초예술	다원예술창작지원	2,400

증진지원		다양성증진 지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	
	2024	기초예술 다양성증진 지원	창작의과정_공모지원	2,172
			다원예술 창작지원_기획사업	
	2025	기초예술 다양성증진 지원	다원예술 창작지원	2,172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은 [표 2-10]과 같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24년, 2025년 총예산 10,000백만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문화창작공간지원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창작공간지원, 공연예술 창작공간지원이 함께 추진되었음
  - 이는 개별 예술인이나 단위 사업 중심의 직접 창작 지원에서 나아가, 창작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종합적으로 볼 때,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신규로 도입되어 안정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 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 환경과 기반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예술창작지원사업 체계 내에서 인프라 중심 지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장기적으로 예술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해석됨

[표 2-10]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창작공간 활성화지원	2023	-	-	-
	2024	창작공간 활성화지원	문화창작공간지원	10,000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	
			공연예술창작공간지원	
	2025	창작공간 활성화지원	문화창작공간지원	10,000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	
			공연예술창작공간지원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아르코공공예술사업은 [표 2-11]과 같이 공공예술을 통한 사회적 의제 확산과 공공 공간 내 예술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한시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에는 총 998백만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율실행형과 주제심화형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자율실행형은 참여 주체의 자율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주제심화형은 사회적·공공적 의제를 중심으로 더욱 집중도 높은 예술적 개입

을 시도하는 구조를 가졌음. 이를 통해 공공예술의 실험성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종합적으로 볼 때, 아르코공공예술사업은 2024년에 한정하여 운영된 단년도 사업으로 공공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실천과 공공성 확대를 실험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평가됨.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단기적 프로젝트 성과를 넘어, 공공예술의 지속성과 지역·공간 기반 연계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2-11]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아르코공공예술	2023	-	-
	2024	자율실행형	998
		주제심화형	
	2025	-	-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표 2-12]와 같이 지역 기반 예술 활동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 신규로 도입되어 운영됨
- 2025년에 총 4,810백만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예술도약지원 단일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본 사업은 지역 예술 주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문화 생태계의 단계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단발성·소규모 지역 지원 사업과 차별화하여 중간 단계 이상의 도약을 지원하는 정책적 성격을 지님
- 특히 지역예술도약지원은 개별 창작 성과보다는 지역 단위의 예술 활동 지속성, 네트워크 형성, 지역 문화 역량 축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근 예술창작지원사업 체계에서 지역 기반 지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과도 맥락을 같이함

[표 2-12]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2023-202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 총예산
지역예술도약지원	2023	-	-
	2024	-	-
	2025	지역예술도약지원	4,810

주: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3-2025) 내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상치 및 결측치에 해당하는 수치는 제외함(<부록 1>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일반현황 시사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일반현황 시사점

○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예산 확대와 사업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최근 3개년 동안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총예산은 지속 증가한 반면, 총 세부 사업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됨
- 이러한 변화는 향후 예술지원 사업 운영효율 분석에서 '사업 규모 대비 성과', '유형별 자원 집중도', '중복 사업 정비 효과' 등을 핵심 분석 지점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시사함

○ 장르별 예산 배분 구조의 재편은 성과 창출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예산과 사업 비중이 지속 확대된 반면, 문학 및 시각예술 분야는 감소하고 있음. 이는 관객 기반 확장, 유통·확산 효과, 산업적 파급력 등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사업모델 개발 시 장르 특성에 따른 성과 측정 방식의 차별화와 성과 기대 구조에 기반한 유형별 지원 전략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함

○ 국제교류 및 기초예술지원 영역에서는 '규모 확대'보다 '안정적 유지와 질적 관리' 중심의 정책 기조가 확인됨

- 글로벌창작역량및네트워크강화사업과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사업 수와 예산 규모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성과지표보다는 예술 생태계의 기반 유지와 장기적 역량 축적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효율 분석에서는 단순 산출 지표 중심의 평가를 넘어, 지속성·연결성·포용성과 같은 중·장기 가치 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창작 공간 및 지역 기반 사업의 확대는 예술지원 정책이 '개별 창작자 지원'에서 '환경·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과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의 신규 또는 확대 편성은 창작 활동을 둘러싼 물리적·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함
- 이는 향후 사업모형 개발 시 창작-성장-유통-확산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형 사업모델과 지역·공간 단위의 성과 측정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함

○ 일부 사업의 한시적 운영 및 낮은 연속성은 성과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

-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아르코공공예술사업 등은 특정 연도에 집중 편성되거나 단발성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여 장기적 성과 축적이나 정책 효과 검증에 제약이 존재함
- 향후 예술지원 운영효율 분석과 사업모형 개발 과정에서 단년도 사업과 지속 사업을 구분한 성과관리 기준 설정, 사업 유형별 적정 운영 기간 및 평가 주기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장르별 추진 현황 시사점

○ 장르별 사업의 구성 변화는 성과관리 체계가 산출 중심(지원 건수·작품 수)에서 가치·과정·축적 중심(지속성·연결성·공공성)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함

- 특히 일부 사업은 단기성과가 아니라 생태계 유지, 네트워크 축적, 창작 환경 조성을 통해 효과가

‘지연’되거나 ‘누적’되는 특성을 가짐

- 이에 따라 성과지표는 전 주기(창작-성장-유통-확산) 단계별 성과지표 및 가치 차원 지표를 결합한 다층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사업 유형별로 지표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장르별 추진 현황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단일한 정책 목표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군이 아니라, 장르 특성과 지원 단계에 따라 상이한 정책 목적과 성과 논리가 동시에 작동되는 사업 체계임을 보여줌

- 따라서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효율 분석은 전체 사업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보다, 목적·수단·성과구조를 동질적인 평가 단위로 재분류(유형화)한 뒤 유형별 효율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즉, 본 연구의 사업모델 개발은 ‘장르’ 자체보다 성과 생성 메커니즘(창작지원/확산·네트워크/기반조성/지역성장 등)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가 핵심 전제가 됨

○ 장르별 추진 현황은 정책적 자원이 ‘개별 창작자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환경(공간)·지역·국제 협력 등 ‘조건 조성형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사업모델 개발에서 결과 중심의 사업 설계보다, 창작이 발생·지속·확산되는 조건(공간, 네트워크, 지역 기반)을 구조적으로 포함하는 모델이 요구됨을 의미함
-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사업모델은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 주기 흐름을 촉진하는 정책 레버(직접지원-중간지원-기반조성)의 조합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함

2.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가. K-평균 클러스터링(K-means Clustering) 기반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배경 및 목적

○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장르·규모·지원 목적이 상이하고, 총예산·세부사업 예산·투입 금액·지원 규모·운영비 등 투입 구조 또한 사업별로 크게 상이함

- 이러한 이질성은 예술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단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며, 현행 장르 중심 분류 체계만으로는 사업 간 효율성 차이와 성과 발생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과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 단계로서, 개별 사업의 투입 구조와 운영 속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유형화하고자 함. 유형화는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라, 효율성 분석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 유형별 성과 창출 경로와 적합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적 장치로 기능함
- 나아가 이를 통해 장르 구분 보완하는 실질적 사업 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사업모델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 간 구조적 유사성을 군집화하여 실질적인 사업 유형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개별 사업의 운영 속성과 자원 투입 구조를 반영한 객관적 유형 기준을 마련하고, 유형별 정책 목적과 성과 생성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전략 및 성과·평가지표 설계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분석 데이터 구성 및 방법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 데이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설명자료에서 2023~2025년 주요 세부 사업을 추출하여 구성함

- 본 연구에서 유형화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업 총예산, 세부사업 예산, 투입금액, 사업운영비, 지원수(명, 단체, 건, 개소)등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투입지표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구성하였음
  - 이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과 수치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개별 사업의 성과 수준보다는 사업 유형이 지니는 구조적 특성에 분석의 초점을 두기 위한 것임
- 데이터 정비와 수치형 지표 변환을 진행한 후, 규모 차이에 따른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표준화를 적용함. 이후 차원 축소를 위해 PCA를 활용하고, 실루엣 계수를 통해 최적 군집 수를 탐색한 결과 k=5가 도출됨
- 이를 기반으로 K-means 군집화를 수행하고, PCA 2D 공간 내에서 사업 유형 간 구조적 차이를 [그림 2-2]와 같이 시각화함

• [그림 2-2]에서 PC1은 사업 총예산, 세부사업 예산, 투입금액, 사업운영비에 의해 구성된 재정 규모 및 투입 집약성 축으로 해석되고, PC2는 투입 금액과 지원 수의 대비를 통해 지원 밀도 및 집행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축으로 해석됨

■ 예술창작지원사업 군집화 결과

○ (Cluster 1- 창작지원형)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창작지원형 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장르별 창작활동과 창작과정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으로 중·소규모 예산을 다수의 예술인 및 단체에 분산 지원하는 구조를 보임

- PCA 공간에서 창작지원형은 원점 인근에 밀집된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규모·지원 방식·성과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사업 간 투입 구조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이러한 분포 특성은 창작지원형 사업의 성과가 예산의 절대 규모보다는 심의의 공정성, 창작 단계 간 연계성, 반복 및 누적 지원 구조의 설계와 같은 제도적 요소에 의해 좌우됨을 설명함

○ (Cluster 2- 인프라형) 인프라형 사업은 PCA 상 주성분 1(PC1) 방향으로 비교적 넓게 분산된 양상을 보임. 본 유형의 사업들이 총예산과 운영비 규모가 크고, 사업 간 투입 구조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설명함

- 인프라형 사업들은 공연장·전시장·창작 공간 등 물리적 인프라 조성, 혹은 기관·플랫폼 단위의 운영 기반 강화 등 창작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창작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 하는 사업이 중심을 이룸
- PCA에서 인프라형은 예산 규모와 운영 기간 측면에서 다른 유형보다 구조적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며 단기적 창작 성과보다는 지속성, 안정성, 공공적 기반 축적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됨

○ (Cluster 3 - 국제교류형) 국제교류형 사업은 PCA 공간에서 창작지원형과 일부 중첩되면서도, 특정 사업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분포를 보임

- 국제교류형 사업은 개별 창작 활동을 포함하면서도, 해외 문화기관과의 협력, 국제 네트워크 구축, 공동기금 운영 등 관계 기반 및 과정 중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사업 유형으로 나타남
- 국제교류형 사업의 성과는 단기 산출물이나 지원 인원수보다는 교류의 질, 네트워크의 지속성,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Cluster 4 - 기타) 기타에는 예술제, 행사성 사업, 단년도 집중 집행 사업 등이 포함되며 PCA 상에서는 창작지원형과 인접한 영역에 분포하면서도 일부는 외곽으로 이탈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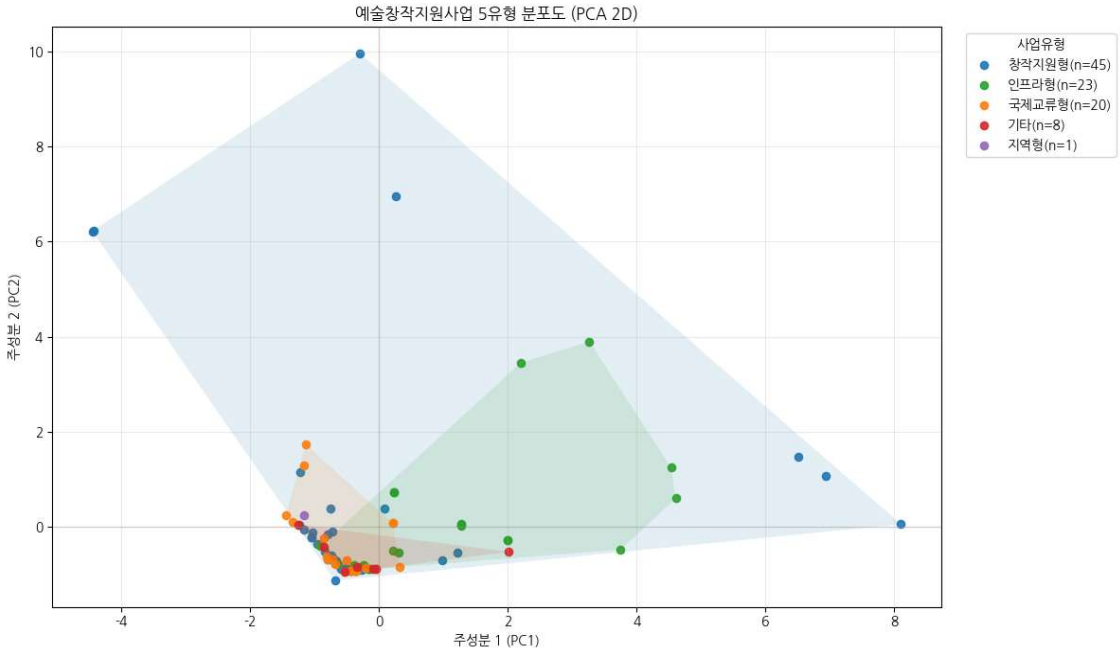
- 해당 사업들이 창작 과정의 지속적 지원보다는 단기간에 비교적 큰 예산을 투입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구조를 가짐
- PCA 상 부분적 외곽 분포는 이러한 집중 투입형·이벤트 중심 사업이 다른 유형과 상이한 성과 논리를 가지며, 관객 동원, 가시성, 단기 문화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가 요구됨을 시사함

○ (Cluster 5 - 지역형) 지역형은 단일 사업으로 구성되어 PCA 공간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 군집 해석에는 통계적 한계가 존재함

- 다만 해당 유형은 지역 기반 창작 환경 조성과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창작지원형이나 인프라형과는 구별되는 사업 성격을 지님
- 해당 사업은 지역 기반 창작 환경 조성 및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에

서, 향후 유사 사업의 확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유형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내포함

[그림 2-2] 예술창작지원사업 K-means(5유형) 시각화 결과



주: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설명자료(2023-2025)를 분석 대상으로 총 97개의 세부 사업을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을 유형화한 후 그 분포 양상을 위 그림 같이 시각적으로 제시함

○ 위와 같이 도출된 사업 유형을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2025)를 토대로 유형별 세부 사업 예시를 [표 2-13]과 같이 제시함

[표 2-13] 2025년도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세부 사업(예시)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 사업명
창작지원형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_우수작가후속지원
		문예지발간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비평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대본공모
		ARKO한국창작음악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다원예술 창작지원	
인프라형	문학광장운영	
	문학주간운영	
	건축물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진흥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운영	
	소극장 학전 재대관 지원	
	문학창작공간지원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	
	공연예술창작공간운영지원	
국제교류형	글로벌창작역량강화	해외레지던시 참가지원
		공동창제작지원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해외문화기관협력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기타	문화예술세계총회개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지역형	지역예술도약지원	

■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시사점

○ (정책 목표에 상응하는 예산 배분 구조 강화) 군집화 결과는 사업유형별 정책 목표와 투입 구조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예산 배분 논리와 성과지표가 적용될 경우, 정책효과의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창작지원형 사업은 창작 단계별 지원 세분화 및 연속 지원 구조 설계를 통해 분산 지원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형 사업은 3~5년 단위의 중·장기 예산 계획과 운영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한 안정적 재정 구조가 요구됨
- 국제교류형은 단기성과 압박을 완화하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 투자 관점이 요구됨
- 기타는 단년도 혹은 일회성 집중 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지원 예산과 분리된 목적형 재원 관리체계가 바람직함
- 지역형 사업은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 거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기반 창작-유통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평가 체계 도입 필요성) 군집별 특성 분석 결과, 각 유형은 정책 목적과 성과 논리가 상이하여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확인됨

- 창작지원형은 다수의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규모 예산을 분산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심의의 공정성·전문성, 창작 단계 간 연계성, 반복·누적 지원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가 적합함
- 인프라형은 운영비·고정비 비중이 높고 장기 투입이 전제되는 사업이므로, 단기성과 중심 평가보다는 운영 효율성, 거버넌스 안정성,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모델이 요구됨
- 국제교류형은 투입 대비 지원 대상 수는 적으나 전략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므로, 교류의 질, 네트워크 지속성, 중·장기 국제 확산 효과를 반영하는 목적 특화형 지표 설정이 필요함
- 기타로 구분되는 예술제·행사성 사업은 관객 동원, 성과 가시성, 문화 향유 확대 효과를 중심으로 한 별도 관리체계가 적절함
- 지역형은 분석 대상 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 창작 환경 조성과 지역 문화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의 핵심 축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확인됨

제3장

예술창작지원사업 트렌드 분석

제1절 예술창작지원사업 트렌드 키워드 분석

1.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가.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개요

■ 예술창작지원사업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과정

○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 관련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최근 5년(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7일)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 내 수집된 국내 뉴스 기사 총 5,591건을 분석 자료로 활용함
- 검색어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정책적 범위와 관련 주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구성함
  - 구체적으로 '(예술창작지원 OR 창작지원 OR 창작지원사업 OR 예술지원 OR 예술활동지원 OR 문예진흥기금 OR 예술인 지원 OR 예술인 활동지원 OR 창작자 지원) AND (한국문화예술위원회 OR 예술위 OR 문화체육관광부 OR 문화재단)'의 조합으로 검색식을 설정함

○ 분석 방법으로는 빅카인즈의 관계도 분석(Relation Analysis) 기능을 활용함

- 관계도 분석은 뉴스 기사에서 자동 추출된 인물, 기관, 장소, 주요 키워드 간의 연결 구조와 상관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기법임
  - 이를 통해 예술창작지원사업이 뉴스 담론 내에서 어떠한 행위자,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들 요소가 형성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도출함

[표 3-1]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방법

구분	내용
검색어	예술창작지원 OR 창작지원 OR 창작지원사업 OR 예술지원 OR 예술활동지원 OR 문예진흥기금 OR 예술인 지원 OR 예술인 활동지원 OR 창작자 지원) AND (한국문화예술위원회 OR 예술위 OR 문화체육관광부 OR 문화재단
분석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5년 11월 17일
분석 대상	검색어가 포함된 국내 뉴스 기사 5,591건
분석 방법	관계도 분석은 뉴스 기사에서 자동 추출된 인물, 기관, 장소, 주요 키워드 간의 연결 구조와 상관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기법임

■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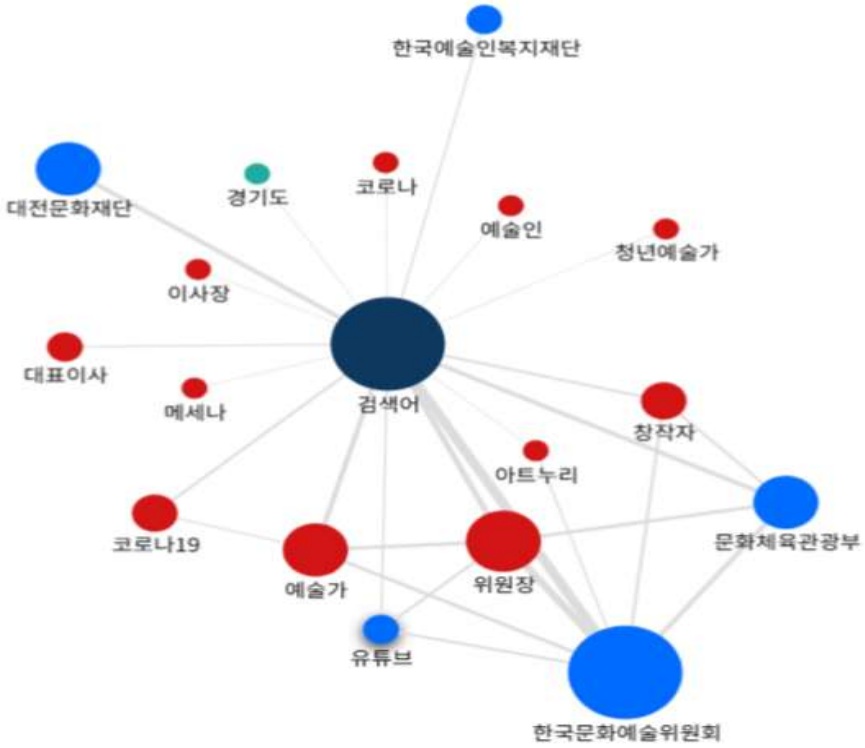
○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를 대상으로 인덱스 가중치를 5로 설정하여 키워드 간 관계망을 [그림 3-1]과 같이 시각화함

- 분석 결과, 예술창작지원사업 관련 뉴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책 주체와 '예술인·창작자', '지역문화재단', '예술인복지기관' 등의 지원 대상 및 관련기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를 보임

- (예술인·창작자 중심의 정책 이슈) [그림 3-1]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자', '청년예술가'가 중심 검색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 이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실제로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 중심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청년예술가'가 별도 노드로 강조된 것은 최근 정책에서 청년창작자 대상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가장 크게 시각화되어 핵심 노드로 나타났음
  - 이는 두 기관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제도 설계-집행 구조의 중심축임을 의미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방향 설정 및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트누리', '위원장' 등과 연결되어 공모·심의·지원금 배분 등 실질적 집행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심의 및 행정체계 관련 이슈) '아트누리', '위원장', '이사장' 등 노드는 지원사업의 심의 과정, 행정 절차, 기관 운영과 관련되어 있음. 이는 뉴스 담론에서 심의 공정성, 절차 투명성, 운영체계 개선 등의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예술인 복지 및 생활 안정 요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예술인 지원' 등은 예술창작지원사업과 예술인 복지정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이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사회보장·소득 안정·생활 안정 지원과 분리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예술지원정책이 복지정책과 결합한 복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함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와 '코로나'는 예술인 및 지원 관련 키워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팬데믹 시기 예술인의 활동 위축, 긴급 지원의 필요성, 비대면 전환 등 정책적 대응이 두드러졌음. 이는 코로나 이후 예술인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주요한 뉴스 담론이었다는 점을 시사함
- (지역문화재단의 연결성) '대전문화재단', '경기도' 등 지역 관련 노드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중앙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도 활발히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지역별로 공모사업 운영 방식과 지원 규모가 상이한 만큼 각 지역 역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두되며 지역 간 예술창작 기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작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문화재단의 집행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3-1] 예술창작지원사업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분석 결과 시각화



2. 예술창작지원사업 워드 클라우드 분석

가. 워드 클라우드 분석 개요

■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방법

○ 본 분석은 빅카인즈(BigKinds)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과 관련된 국내 뉴스 총 5,551건을 수집하고, 이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 뉴스 본문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 명사 중심으로 전처리를 수행함

- 이 과정에서 '기자', '사진', '뉴시스' 등 분석 목적과 무관한 불용어는 제거하고, '예술가'와 '예술인'처럼 유사 의미를 갖는 단어는 표기를 통일했으며,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핵심 개념 중심의 데이터만을 남겨 분석 타당성을 확보함

○ 최종적으로 파이썬(Python) 기반 워드클라우드 패키지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수행함

- 생성된 워드클라우드는 예술가·창작자·청년예술가·코로나19·지방자치·심의위원·문화누리카드 등 주요 키워드의 출현 양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창작지원사업을 둘러싼 정책적·사회적 논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표 3-2]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방법

구분	내용
분석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5년 11월 17일
분석 대상	검색어가 포함된 국내 뉴스 기사 5,591건, 정확도 상위 100건
분석 방법	뉴스 본문의 텍스트 기반 형태소 분석기 사용해 명사 중심으로 전처리 수행 파이썬(python) 기반 워드클라우드 패키지 활용해 시각화

■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 (예술인 중심 담론의 부상 및 창작 주체 강화 흐름) 분석 결과, '예술가', '창작자', '청년예술가', '예술인' 등 예술인 주체 관련 키워드가 가장 크게 시각화됨

- 이는 창작지원사업이 사회적으로도 예술인의 생계·지위·역량 강화와 직결된 정책 영역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임. 특히 '창작자' 및 '청년예술가'가 강조된 것은 최근 정책환경에서 청년층·신진예술가 지원 확대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함

○ (코로나19 및 외부 환경 변화의 정책 연계성 강화) 또한 '코로나19', '지방자치', '동네방네', '심의위원', '예술지원본부장' 등 키워드가 함께 출현함에 따라,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재난 상황에 따른 피해지원, 지역 기반 문화정책의 확장, 심의·행정 체계 개선, 제도 운영의 공정성 이슈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팬데믹 이후 예술생태계 위축과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특히 '코로나19'가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은 팬데믹 이후 예술생태계의 위축, 예술인의 생계 불안정, 긴급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조명되었음을 시사함

- 이는 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을 평가할 때 '예술인 지원의 안정성', '비정형 위기 대응 능력', '지속가능성 지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정책 집행체계의 공정성·투명성·지역 격차 문제 부각) 또한 '심의위원', '문화누리카드', '지방자치', '복

지법', '지원부장' 등의 키워드는 예술지원정책이 행정 절차의 투명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예술인 복지 제도와의 연계, 판단 기준의 공정성 등 운영 시스템과 직결된 문제와도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나타냄

- 이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서 평가체계의 공정성, 재원 배분 구조의 투명성, 지역 격차 완화, 사업 관리체계 개선과 같은 구조적 지표가 필수적임을 재강조함

○ (종합) 전반적으로 워드 클라우드 결과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예술인 중심의 지원정책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복지·안전망 강화, 지방 문화분권 강화, 심의·행정체계 개편, 참여·접근성 확대와 같은 최근의 정책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함께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2] 예술창작지원사업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시각화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방법

○ 본 연구는 개인·집단·조직 등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모델링해 각 노드 간의 구조적 특성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반 뉴스 담론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창작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키워드를 간의 관계를 분석함

- 분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 키워드의 연도별 공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변화를 분석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 내 수집된 국내 종합일간지 및 통신사 보도 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함
  - 분석 단위는 분석 자료 단위의 키워드 공출현이며 예술창작·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키워드를 네트워크 노드로 활용하였음

[표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방법

구분	내용
자료원	국내 종합일간지 및 통신사 기사(인터넷 매체 제외)
분석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15일
분석 단위	기사 단위 키워드 공출현
네트워크 노드	예술창작·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키워드
분석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동태적 사회연결망 분석(Dynamic SNA) •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을 통한 핵심 키워드 및 연도별 토픽 모델링
산출물	연도별 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비교 및 정책적 해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

○ (2021년 위기 대응 중심의 구조) 2021년에는 '긴급 창작지원', '예술인 생계', '비대면 창작' 키워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강하게 연결된 집중형 네트워크가 형성됨.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술지원 정책 담론이 단기적 생존 지원과 긴급 재정 투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줌

[표 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위기 대응과 비대면

구분	내용
핵심어	코로나19, 긴급지원, 비대면예술, 온라인미디어, 예술인고용보험
맥락	팬데믹으로 인한 공연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 창작지원금과 비대면/온라인 송출 지원 사업이 가장 강하게 연결됨

○ (2022년 회복 및 지역 확산 국면) 2022년에는 '창작활동 재개', '공공예술', '지역문화' 키워드가 부상하며, 정책 담론의 범위가 회복과 지역 연계로 확장됨. 네트워크 밀도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중앙-지역 간 정책 연계성이 강화된 구조를 보임

[표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권리와 공정(Rights & Fairness)

구분	내용
핵심어	예술인권리보장법, 공정대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청년예술가, 장애예술
맥락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맞물려 '창작의 권리', '표현의 자유', '공정한 보상'이 ARKO의 주요 정책 키워드로 부상

○ (2023년 예술생태계 및 제도화 단계) 2023년에는 '예술생태계', '청년예술인', '중장기 창작지원' 키워드가 핵심 노드로 자리 잡음. 이 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단순한 지원 주체를 넘어 정책 담론을 연결·조정하는 중심 기관으로 기능해, 예술지원 정책의 구조화 및 제도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됨

[표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K-컬처와 예산구조

구분	내용
핵심어	K-아트, 국제교류, 문예진흥기금, 예산삭감, 현장소통
맥락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문예진흥기금 고갈 우려가 본격화(기금고갈 키워드 등장)됨과 동시에,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지원이 강화됨

○ (2024-2025년 융합·확장형 네트워크) 2024-2025년에는 'AI 기반 창작', '융복합 콘텐츠', '국제교류', '지속가능성' 키워드가 새로운 정책 축으로 등장함. 네트워크는 다극화 경향을 보이며, 예술지원 정책이 기술·산업·국제 영역과 결합하는 확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줌

[표 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2024 기술 융합과 미래 의제

구분	내용
핵심어	아트앤테크, 생성형AI, 기후위기, ESG경영, 디지털전환
맥락	예술과 기술(AI)의 융합 창작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기후위기 대응 등 ESG 가치가 예술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로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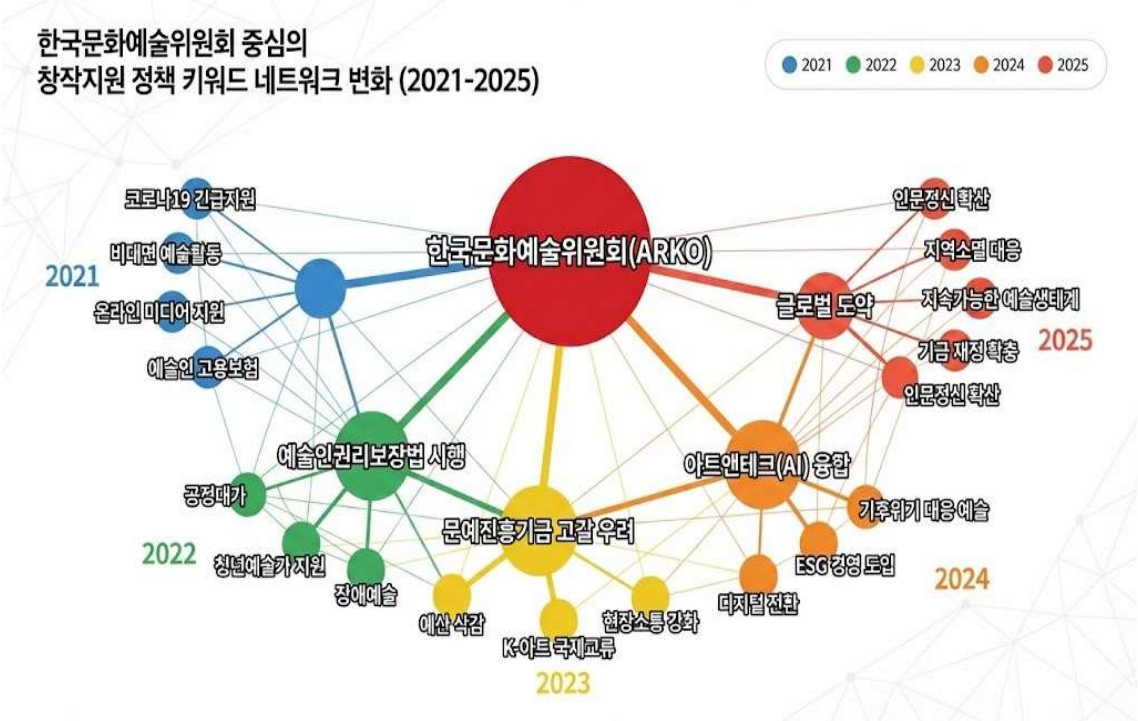
[표 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 예술창작지원사업 정책 담론의 동태적 변화분석 결과_2025년 지속가능성과 도약

구분	내용
핵심어	지속가능성, 글로벌도약, 인문정신확산, 기금재정확충, 지역소멸대응
맥락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재정확충) 요구가 최고조에 달함. 동시에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을 기점으로 문학 및 기초예술의 글로벌 진출과 인문 가치 확산이 강력한 허브 노드로 작동

■ 종합 해석

○ 2021-2025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예술창작지원 정책 담론은 위기 대응 → 회복과 지역 확산 → 생태계 구축 → 기술·융합 기반의 확장이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침. 이는 예술지원 정책이 단기적 재정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창작 생태계 조성과 미래 대응형 문화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창작지원 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변화(2021-2025)



○ 중심성(Centrality)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모든 이슈의 허브 역할을 함

○ 군집화(Clustering)

- 좌측 (2021-2022): 코로나, 권리보장, 장애예술 등 '보호와 생존' 키워드가 군집을 이룸
- 우측 (2024-2025): AI, 기후위기, 글로벌, 지속가능성 등 '미래와 확장' 키워드가 군집 이룸
- 하단 (2023-2025 공통): 기금고갈, 예산 등 '재정 건전성' 이슈가 계속 연결됨

■ 정책적 시사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창작지원 정책 담론의 구조적 허브로서, 정책 전환 국면을 조정·매개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 왔음

-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정책 담론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기 대응, 권리·공정, 생태계 구축, 기술·융합 확장 등 시기별 주요 이슈를 연결하는 중심 노드로 계속 작동하였음

○ 예술창작지원 정책은 '단기 위기 대응'과 '중·장기 생태계 구축'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 구조로 진화해 왔으며, 이는 향후 사업 설계·평가 체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2021년 위기 대응 중심 담론에서 출발하여, 2022년 회복·권리 담론, 2023년 생태계·제도화, 2024-2025년 기술·융합·지속가능성 담론으로의 이동은 예술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향후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단년도 사업과 중·장기·구조형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유형별로 상이한 목표·성과 논리를 반영한 차등적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AI·융복합·국제교류·지속가능성 담론의 부상은 예술지원 정책이 미래 대응형 사업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2024-2025년 네트워크에서 AI 기반 창작, 생성형 AI, 아트앤테크, ESG, 글로벌 확장 키워드가 다국적 구조로 확산된 것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기술·산업·국제 정책과 결합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 이는 향후 사업모델 개발 시, 전통적 장르·창작 중심 지원을 넘어 기술 융합형, 국제 네트워크형, 가치 연계형(ESG·지속가능성) 사업 유형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 문예진흥기금, 예산, 재정 건전성 이슈의 지속적 연결은 성과관리 체계의 재정 연계 필요성을 강조함
- 2023년 이후 '기금 고갈', '예산 삭감', '재정 확충' 키워드가 핵심 노드로 지속 등장한 점은 예술 지원 정책이 재정 구조와 분리된 채 운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 분석과 성과평가 체계는 재정 지속가능성, 투자 대비 공공적 가치 창출, 중·장기 재원 구조와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제4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가. 가치기반 경제 이론

■ 가치기반 경제 접근 모델

○ Klamer(2017)는 기존 경제학이 포착하지 못한 문화예술의 다층적 가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가치기반 경제(Value Based Economy)'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함

○ 가치기반 접근은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탐구함(Klamer, 2017)

- Klamer(2017)는 5-Sp 모델을 통해 경제활동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 해당 모델은 시장(Market Sphere), 거버넌스(Governance Sphere), 문화(Cultural Sphere), 사회(Social Sphere), 오이코스(Oikos Sphere)의 측면에서 연구 대상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임
- 본 모델을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적용할 경우, 문화예술, 지역문화 등의 비가시적 가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하며(원윤선, 2017; 김순한·장웅조, 2022), 다양한 사업 유형의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하는 데 유효한 분석 틀로 활용할 수 있음

○ Klamer(2017)의 5-Sp 모델은 예술정책의 성과를 경제효과나 산출 지표로 한정하지 않고 문화적·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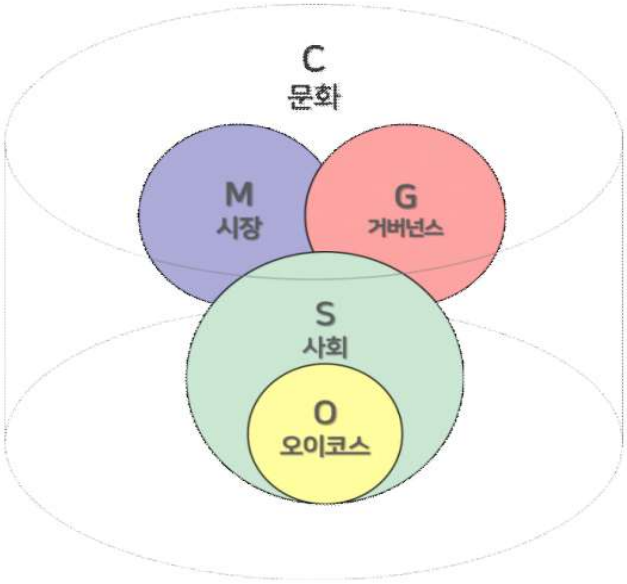
- 이에 본 연구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가치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본 모델을 활용함

[표 4-1] Klamer의 5-Sp 모델

구분	개념적 정의
시장 영역(Market sphere)	가격·교환·거래·회계 논리로 운영되는 경제적 공간
거버넌스 영역(Governance sphere)	규칙·법·조직·위계가 지배하는 공공·조직의 공간
오이코스(Oikos sphere)	가정/생활 영역 (돌봄·친밀성·소속감 등 일상적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
사회 영역(Social sphere)	관계·상호성·참여·증여가 작동하는 시민 사회적 공간
문화 영역(Cultural sphere)	의미 만들기(sense-making), 지식·예술·정체성·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공간

출처: Guccio et al, 2025; Klamer. A, 2020.

[그림 4-1] Klamer의 5-Sp 모델의 도식화



출처: 김순한·장웅조,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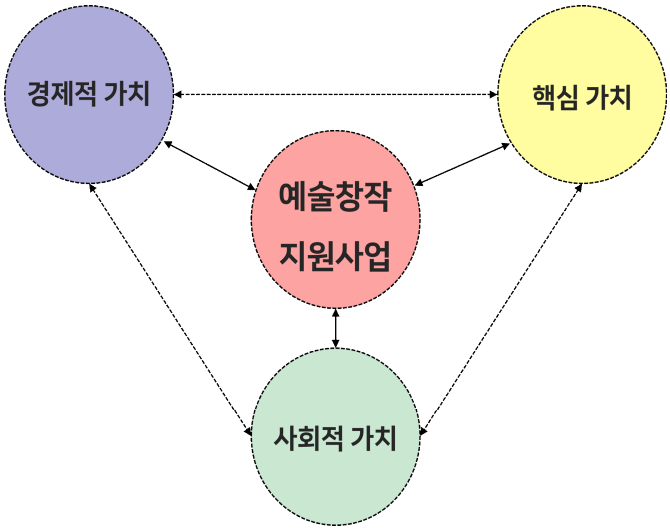
■ 예술창작지원사업 고려 시 3가지 가치

○ Klamer(2017)의 가치기반 접근법은 예술지원을 비용이 아닌 '다양한 가치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함

○ 본 연구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를 Klamer(2017)의 논의를 기반으로 세 가지의 가치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핵심 가치
  - 예술 활동 본연의 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영역으로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취를 평가함. 주요 지표로는 작품의 완성도와 독창성을 의미하는 '예술적 수월성', 관객이 느끼는 감동과 영감의 깊이인 '미적 경험', 새로운 시도와 표현 방식을 뜻하는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이 포함됨
- 사회적 가치
  - 예술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내는 공공적 영향력에 주목하는 영역임
  - 예술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인 '사회적 자본 형성', 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화적 정체성 기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소통 및 성찰 기회 제공',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문화다양성 증진' 등이 주요 지표가 됨
- 경제적 가치
  - 예술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재무적·경제적 효과를 의미함. Klamer(2017)의 접근법에서는 다른 가치 실현의 '수단'적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함
  - 주요 지표로는 지원금 외 자체 수입과 자생력을 뜻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광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문화 인프라로서의 가치', 창의 산업 인력의 성장 기반인 '창의 인재 양성' 등이 있음

[그림 4-2] 예술창작지원사업 3가지 가치



나. 가치사슬 이론

■ 가치사슬 이론

○ 가치사슬(Value Chain) 이론은 산업 경제학에서 개발경제학, 문화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명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의미함(EU, 2017)

○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conception) 단계에서 생산, 소비자에게 전달,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활동의 전 범위”로 설명됨(Kaplinsky and Morris, 2000)

○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수직적 연결(Vertical Links) 구조로 시각화되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생산·유통에 필요한 기능적 활동 간의 연계 관계를 설명함. 모든 가치사슬은 상류(Upstream) 및 하류(Downstream) 활동을 포함하여 상호 연동된 구조를 형성함

○ 가치사슬 분석은 가치 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 전통 산업분석을 넘어 경제활동의 구조와 동향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 유용함

- 특히 경제 주체 간의 실제 연계 구조와 가치 창출 과정에서 각 활동 간 기능적 역할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고용과 부가가치 형성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분석 도구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문화의 가치 창출 과정

○ 유네스코(2009)는 문화의 가치 창출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포착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형태로 ‘문화 사이클(Culture cycle)’의 개념을 제시함

- 해당 사이클은 창작(creation), 생산(production), 전파(dissemination), 전시(exhibition)/수용(reception), 소비(consumption)/참여(participation)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문화예술의 창의적 활동에서 사회적 확산에 이르는 가치의 흐름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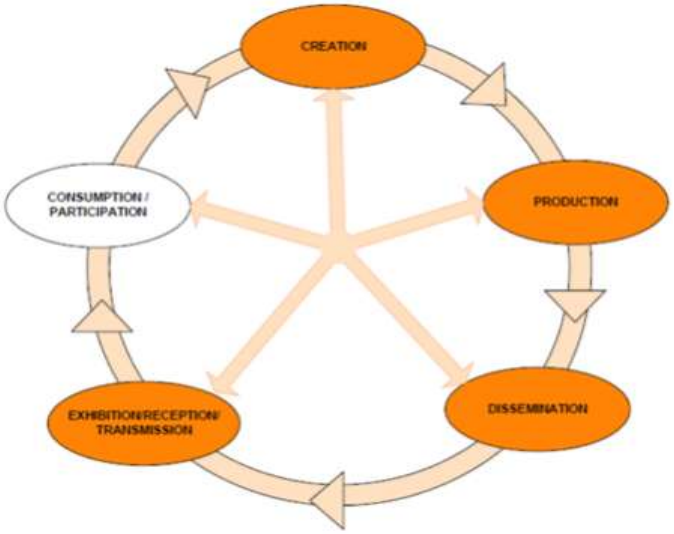
○ 한편, 유럽 통계 시스템 네트워크(ESSnet)[1]는 ‘창의적 가치사슬(Creative value chain)’의 구조를 단

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능별 분류 체계를 제시함

- 'ESSnet on Cultural Statistics'은 문화의 가치 창출 과정 주요 기능을 세 가지 핵심 기능과 세 가지 지원 기능으로 구분함
  - 핵심 기능에는 창작(Creation), 생산/출판(Production/Publishing), 전파/거래(Dissemination/Trade)가 포함됨. 이는 창의적 산출물이 초기 구상 단계에서 제작과 유통을 거쳐 시장에 전달되기까지의 흐름을 설명함
  - 또한 보존(Preservation), 교육/훈련(Education/Training), 관리/규제(Management/Regulation)는 이러한 핵심 기능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으로 정의됨

○ ESSnet은 문화 생산의 통계적 가시성 확보에 집중하며, 복제 생산과 같이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일부 제조 활동이나 부수적 문화 상품 및 서비스는 분석 범위에서 제외함

[그림 4-3] 문화의 가치 창출 과정(UNESCO)



출처: UNESCO FCS, 2009.

■ 예술창작지원사업 가치 창출 단계 설정

○ 상술한 내용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구조 또한 가치사슬의 논리로 해석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음

- 이에 기반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 행정이 아니라 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 예술생태계의 역동성 증진, 창작물의 유통·확산을 통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분석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창작(Creation) 단계, ② 성장(Development) 단계, ③ 유통(Distribution) 단계, ④ 확산(Diffusion)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핵심 활동과 정책적 기능, 참여 주체 간 연계 구조, 그리고 가치 창출과 환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이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를 넘어 예술생태계 전반의

1) 2009년 유럽은 Eurostat이 주도하여 유럽 통계 시스템 네트워크(ESSnet-Culture)를 설립하였으며, 문화 및 창의 부문(CCS: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에 대한 통계 조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함. 유럽연합(EU) 및 회원국들이 문화 관련 데이터를 조화로운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발표되었음

가치 흐름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구조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규명하려는 시도임

다. 예술창작지원사업 분석 프레임 구성

■ 예술창작지원사업 가치창출 단계 설정

○ 본 연구는 정성분석의 이론적 분석 틀로 Klamer(2017)의 가치기반 경제 이론과 가치 창출 단계를 통합함

- 가로축은 문화 가치사슬 단계(창작-성장-유통-확산)를 설정하여, 가치 창출의 형성 및 전개되는 시간적 흐름을 구조화함
- 세로축에는 Klamer(2017)가 제시한 다섯 가지 가치영역(시장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오이코스적 가치)을 적용하여, 문화생태계에서 발현되는 가치 유형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구분함

[표 4-2] 예술창작지원사업 분석 기본 프레임

구분	창작	성장	유통	확산
시장적 가치	• 예술상품 개발 • 창작 인력 참여	• 시장 진입 • 유통망 확충	•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수익 재투자 구조
사회적 가치	• 공동 창작 • 협업 네트워크	•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사회적 연대 활성화	• 문화 접근성 향상
문화적 가치	• 창의적 실험 • 예술적 수월성	• 예술적 성취 • 장르 다양성	• 문화콘텐츠 확산	• 문화정체성 강조
공공적 가치	• 제도·정책 연계	• 공공기관 협력	• 지역 거버넌스 구축	• 문화복지 확산
오이코스적 가치	• 일상 속 예술 활동	• 예술인 생활 안정성 확보	• 커뮤니티 운영	• 돌봄·회복·힐링

■ 예술창작지원사업 가치사슬별 분석 프레임 구성

○ 본 연구는 예술 활동이 가치기반의 '문화생태계(Value Ecosystem)'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분석에 반영하고자 다섯 개의 가치 중에서도 특히,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중심 분석 축으로 삼아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가치 창출 구조를 [표4-3]과 같이 제안함

- 이와 같은 가치사슬별 분석 프레임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닌 다차원적 가치의 상호작용 과정임을 밝히고자 함
- '경제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가치기반의 문화생태계'로 전환되는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각 가치 유형이 창작 단계에서 확산 단계로 이동하며 어떻게 강화·전이·확장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함

[표 4-3] 예술창작지원사업 가치사슬별 분석 프레임(안)

구분	창작	성장	유통	확산
핵심 가치	• 단체 지원 강화 • 창작기반 강화	• 성장주기 기반 성과 및 지속성 강화 • 경력 단계별 맞춤형 성장	• 디지털 기반 유통 확대 • 장르별 유통 지원구조 강화	• 성장주기 기반 선순환 구조 • 예술 가치 확산
사회적 가치	• 장르별 격차 해소 • 창작자 기초생활 안정 확보	• 창작자 육성 • 지원 방식 일관성	• 관객 접근성 향상 • 공간·플랫폼 기반 참여 확대	• 문화 향유 기회 확장 • 예술의 지속가능성
경제적 가치	• 투입 대비 창작 성과 강화 • 창작 기반 재정 안정성	• 민간 협력 다각화 • 예술인 성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 유통 플랫폼 운영 • 지역 기반 유통 구조의 경제적 가치 확대	• 재원 다각화 • 지역 및 국가 경제 파급효과

2. 예술창작지원사업 관련 제도

가.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개요

○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에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규범적이고 제도화된 예술지원 제도의 기반이 되었기에 관련 법률의 모법(母法)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법임

-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장 제1조(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표 4-4]와 같이 법률 내용 중 특히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항(예: 제11조 장려금 지급, 제14조 문화산업 육성·지원, 제17조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 제30조 위원회 직무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사업들의 법적 기반임을 확인함

[표 4-4] 「문화예술진흥법」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책과 권장)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3장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문화강좌 설치)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1조(설립등기 등) 제22조(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장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관여 금지)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2조(소위원회) 제33조(사무처) 제34조(감사) 제35조(성과의 평가)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제37조(예술의 전당)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6장 보칙	제39조 제40조(감독)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의2(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예술인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대중적 저변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재원임

○ [표 4-5]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근거하며 기금의 주요 단위 사업으로 예술창작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예술진흥, 예술 향유 기회 확대가 있음. 이에 따른 예술창작 역량 강화와 예술 향유 기회 확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4-5]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법적 근거

구분	세부 내용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최근 세계적 차원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관광·콘텐츠 분야의 전방위적 리스크(Risk)관리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초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구조적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동시에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호감도가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문화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AX)이 가속화되어 문화정책 전 영역에서 미래를 주도할 선제 대응과 혁신 전략 마련이 요구됨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은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요인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상술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4-6]과 같이 2025년도 업무의 추진 방향은 리스크 대응력 강화,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글로벌 확산 역량의 고도화, 그리고 AI 기반 혁신체계 구축을 핵심축으로 설정함

[표 4-6]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추진 방향

구분	내용		
비전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		
목표	문화&민생	문화&경제	문화&미래
1.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소비 확대	①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특별지원 강화 ② 취약계층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③ 문화 소비 조기 회복 지원		
2.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① 지역 예술생태계 형성 지원 ②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③ 문화로 발전하는 지역		

3.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① K-콘텐츠산업 혁신 성장 지원 ② 관광 수출&재도약 기반 마련 ③ 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① 인공지능(AI) 시대 선제적 대응 ② 광복 80년 등 미래 문화 준비 ③ 문화로 여는 포용 사회
5.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① 세계 무대 속 K-아트 확산 ② 한국어·태권도·전통문화 세계 확산 ③ 글로벌 문화교류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추진 방향에서 '예술지원' 관련 과제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서 '예술지원'과 관련된 핵심 과제는 '지역 예술생태계 형성 지원', '문화로 여는 포용 사회', '세계 무대 속 K-아트' 등이 포함됨

○ '예술지원'에 관련된 핵심 과제의 실현에 있어,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기반의 예술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표4-7]과 같이, 예술활동준비금·생활안정자금 등 예술인의 기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대표예술단체 확대·국립청년예술단 신설·지역 공연장 협업 등으로 지역 예술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권역별 국립미술관 등 지역 수요 기반의 문화시설 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청년예술인·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를 통해 포용적 예술생태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표 4-7]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관련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주안점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특별지원 강화	• (예술·체육인) ▲예술 활동 준비금('25년 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	• 예술활동 준비금 확대 •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
지역 예술생태계 형성 지원	• (예술단체)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확대('24년 90억 원→ '25년 120억 원), 지역활동기반을 4개 장르 국립청년예술단 신설('25년 49.4억 원) • (전국 유통) 공연예술의 전국 유통을 위한 지역 공연장-단체 간 협업 지원 및 지역문예회관 특화 공연기획 활성화('25년 285억 원) • (문학·미술) 지역 문인 창작 및 교류 활동 지원(34억 원, 167개소) 및 문학관 활성화('25년 4억 원), 지역 문화공간 우수 전시 지원('25년 46억원)	•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확대 •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 지역 공연장-단체 협업 • 지역 문인/미술인 창작 및 교류 활성화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 (문화시설 지역 건립 및 이전) 지역 수요를 반영해 법인 형태의 권역별 국립미술관 설립 등 新 운영모델 도입 추진('25년)	• 지역 수요 기반 문화시설 운영모델 도입
문화로 여는 포용 사회	• (청년예술인)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24년 350명→'25년 600명), ▲신진 등 경력단계별 미술작가지원('25년 54억원), ▲청년공예가공방조성('25년 신규 16억원, 2개소) • (장애 예술인)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가동률 제고, 예술대 등 연계 창작아카데미 확대, 신진·예비 장애 예술인 최초 지원사업 신설	• 청년 및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5장

예술창작지원사업 관련 사례

제1절 국내외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1. 국내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가. 국내 사례분석 및 시사점

■ 문예회관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분석(전종섭·허식, 2020)

○ 전종섭·허식(2020)은 문예회관의 운영 효율성과 시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및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PI)를 활용한 다층적 분석 체계를 구성함

○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반시설총람」(2012~2018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문예회관의 투입·산출 구조 및 규모수확 상태를 중심으로 효율성 지표를 체계적으로 선택하고 분석을 수행함. 분석 대상은 7개년 중 결측을 제거한 104개의 문예회관(균형패널 총 728개 관측치)임

- 투입변수는 공연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본·인력·시설 인프라 등을 의미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직원수(전문인력+행정인력), 연간 운영비, 좌석수 세 가지 요소가 투입변수로 선정되었음. 이는 공연서비스 생산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과 재정 투입, 그리고 무대·조명·악기·시설 등 공연 인프라를 대변하는 물적 요소를 반영한 것임
- 산출변수는 문예회관이 투입 요소를 활용해 창출하는 성과지표로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와 운영 소득을 산출변수로 사용함. 이용자수는 지역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산출지표로, 공연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소비되었는지를 보여줌. 운영 소득은 공연수익·대관료 등 회관의 자체 수익을 의미하며,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문예회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함

[표 5-1] 문예회관의 효율성 분석 변수

구분	변수	설명
투입	• 직원수	• 전문 인력 + 행정 인력 포함 • 공연 서비스 생산의 핵심 투입요소
	• 연간 운영비(예산 투입 규모)	• 연도별 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총지출
	• 좌석수 (시설 인프라 규모)	• 공연장 인프라의 대리 변수 • 무대·조명·시설 등 자본 요소를 상징
산출	• 이용자수	• 총 관객수, 지역 문화향유 지표
	• 운영소득	• 공연수입 및 대관료 등 수입(지속가능성 지표)

출처: 전종섭·허식, 2020.

○ 효율성 분석의 결과변수는 크게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PTE), 규모효율성(SE)으로 구분되며 문예회관이 투입 대비 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성하는지, 그리고 최적의 규모인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됨

○ 분석 결과는 '문예회관은 기술적 한계보다 운영 구조와 규모의 비효율성에 의해 생산성이 좌우된다'는 점이 강조됨. 특히 규모 확대를 통한 수확체증 구간 이동이 생산성 개선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함. 이는 정부의 문화기반시설 지원 이후 운영 단계에서 효율성·생산성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함

○ 시사점

- (투입-산출 구조의 체계적 구분)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투입과 산출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물적·인적·재정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입 변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산출 지표와 대리변수 활용의 정교화) 산출 단계에서는 공공성(문화향유 확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자생적 수익 창출) 간의 균형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직접 측정이 어려운 창작환경·예술인 역량·지역생태계 등의 요소는 적절한 대리변수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이슬기, 2020)

○ 이슬기(2020)는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창작활동의 성과와 문화예술 향유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기반한 다층적 변수 체계를 구성함

- 해당 연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체의 인적·물적 자원, 재정 현황, 시설 보유 여부, 장르 및 업력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에 포함함
- 이 중 인적자원은 기획행정·무대기술·상근단원을 포함한 상시 인력 규모를 3분위로 구분하여 더미화 했으며, 물적 자원은 자체 수입(로그 변환), 전년도 수입-지출 격차(적자·동일·흑자의 세 구간), 공연장 및 전용 연습실 보유 여부로 구성함. 단체의 특성으로는 설립연도(1989년 이전, 1990-2000년, 2001-2010년, 2011년 이후), 작품 제작 경험(전년도 제작 작품 수),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장르(전통·무용·음악·연극)가 포함됨
- 정부 재정 지원 효과의 측정을 위한 결과 변수는 예술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정함
- 예술 차원에서는 연간 총공연 횟수와 전체 제작 작품 중 자체 기획 공연의 비중이 사용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연간 총관람객 수를 주요 성과 변수로 활용함

○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사용하여 정부 지원금 수혜 여부에 따른 단체 간 차이를 추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공연 횟수·자체 기획 작품 비중·관람객 수 등에서 일관된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을 확인함

- 다만 일부 연도에서는 자체 기획 작품 비중 증가나 관람객 수 확대와 같은 제한적 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보고됨. 이러한 분석 구조는 해당 연구가 정부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측정한 방식의 특징을 보임

○ 시사점

- (창작 환경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다층적 변수 설계 필요성)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 예술인 창작 환경의 복합적 속성을 반영한 다층적 변수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적 성과와 재정적·예술적 성과를 균형 있게 포착할 수 있는 이원적 성과지표 구성이 필요함
-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방법론적 정교화와 맥락 기반 평가체계 구축) 또한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 분석 단계에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원 유형·장르·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적·맥락적 효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 구조가 병행되어야 함

[표 5-2] 정책 목표에 따른 다층적 변수 체계

구분		변수	측정
매칭변수	인적자원	• 인력 규모	• 상시 인력(기획·행정, 무대 기술, 상근단원 포함) 수를 3분위 구분 후 각각 더미화
	물적자원	• 자체수입	• 자체수입 로그화
		• 지난해 수입−지출 격차	• 적자 / 수입=지출 / 흑자 각각 더미화
		• 공연장 보유	• 보유=1, 미보유=0
		• 리허설 공간 보유	• 보유=1, 미보유=0
	단체 특성	• 업력(설립연도)	• 1989년 이전, 1990~2000년, 2001~2010년, 2011~조사년도 → 각각 더미화
		• 지역	• 수도권=1, 비수도권=0
		• 장르	• 전통, 무용, 음악, 연극 각각 더미화
개입변수		• 공공지원금 수혜 여부	• 수혜=1, 미수혜=0
효과변수		• 총공연 횟수	• 1년간 공연한 총 횟수
효과변수 (사회적 차원)		• 자체기획 공연 비중	• 자체기획공연× 100 / 전체공연

출처: 이슬기, 2020.

■ 공연분야 공공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이정희, 2019)

○ 이정희(2019)는 공연분야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성과평가지표 체계를 예술성·공공성·운영효율성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 검증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활용함

- 공연기관의 성과평가가 기존 공공부문 평가의 틀인 경영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에 종속되어 예술적 특수성과 공공적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이에 따라 해외 및 국내 사례·선행연구·현행 평가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3개의 평가영역과 1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분석체계를 마련함
- 분석지표는 예술적 가치, 공공적 가치, 운영 효율성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지표는 공공예술기관의 설립 목적과 미션을 반영하도록 설계됨

[표 5-3] 공연분야 공공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지표 체계

구분	세부 측정지표	설명
예술성	• 전문가 평가	•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품질 평가
	• 연주자의 예술적 역량	• 예술단체 단원·연주자의 예술적 기량
	• 분야 영향력	• 해당 분야에서의 파급효과 및 영향력
	• 창작 레퍼토리	• 신작·창작물의 예술적 완성도
	• 관객 평가	• 공연에 대한 일반 관객의 평가·만족도
공공성	• 소외계층 대상 공연	• 소외계층 대상 유·무료 공연 제공 여부
	• 교육 및 강의	• 일반인·청소년 대상 교육 및 강의 프로그램
	• 대관자 만족도	• 대관 단체의 접근성·만족도
	•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 기반 협력 및 사회적 기여 활동
	• 시설 관객만족도	• 시설·서비스에 대한 관객 만족 정도
운영효율성	• 유료관객 점유율	• 유료 티켓 구매 비율
	• 공연장 가동률	• 연간 공연장 운영일수
	• 총 공연횟수	• 연중 수행되는 총 공연 수
	• 재정자립도	• 총예산 대비 자체 수입의 비중

출처: 이정희, 2019.

○ 분석 결과, 공연 분야 문화예술기관의 성과평가에서 '공공성 > 예술성 > 운영효율성' 순으로 중요도가 구분되었으며 세부지표는 관객평가와 교육·강의, 공연장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기록함. 이에 따라 이정희(2019)는 공연분야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성과평가가 기존의 효율성·재정 중심 관점을 넘어 공공적 가치 실현과 예술적 품질 제고를 함께 고려한 평가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함

○ 시사점

- (공공성·예술성 중심의 성과체계 재설계 필요성) 공연기관의 핵심 공적 기능인 문화향유의 확대, 예술적 수월성 보장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성과평가체계는 공공성, 예술성 지표를 핵심축으로 재편해야 하며 효율성 지표는 사업 보조·관리의 성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세부지표의 정교화 및 미션 기반 평가체계 구축) 기관 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 미션을 반영한 지표를 구성하고 관객 경험·교육프로그램·지역사회의 기여 등 공공서비스 성과 항목을 강화해야 함

2. 국외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가. 국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 Improving arts management/marketing efficiency(Kirchner et al., 2022)

○ Kirchner et al.(2022)은 미국 교향악단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커뮤니티 아웃 리치 등 예술 및 사회적 활동 전반에서 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DEA(자료포락분석) 기반 효율성 측정 모델을 설계함

- 연구 목적은 개별 단체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비효율의 원인을 규명하며, 자원 최적 배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는 미국 League of American Orchestras(LAO)에서 제공한 2003-2012년 10개년 패널데이터(393개 오케스트라)를 활용함. 이 데이터는 공연·예술 조직의 재정 정보(정부지원·민간지원·지출), 인력 자원(뮤지션·자원봉사자), 운영 성과(공연 관객 등)를 포함한 예술조직의 다차원적 운영 자료로 구성됨
- 연구는 체계적인 효율성 분석을 위해 투입 변수는 예술조직의 운영에 투입되는 재정·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산출 변수는 예술조직이 생산하는 예술적·사회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들로 구성함

[표 5-4] 예술조직 운영에 따른 투입 및 산출 변수

구분	변수	세부 내용
투입 (Input)	• 정부지원	• 연방·주·지방정부의 공적 지원금
	• 민간지원	• 기업·개인·재단 등의 후원금 및 기부금
	• 비제한 운영수입	• 기관 운영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운영수입
	• 총 운영비용	• 마케팅, 개발, 행정·일반관리비 등 모든 운영비 지출
	• 뮤지션 수	• 상근 및 비상근 연주자 수
	• 자원봉사자 수	• 공연·행정·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인력 규모
산출 (Output)	• 정규 공연 관객 수	• 클래식·정규 레퍼토리 공연의 총 관객 수
	• 팝스 공연 관객 수	• 팝스·대중음악 기반 공연의 총 관객 수

	• 교육 아웃리치 관객 수	•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방문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커뮤니티 아웃리치 관객 수	• 지역사회 대상 공연·참여 프로그램의 관객 및 참여 인원

출처: Kirchner. et al., 2022.

○ 연구는 DEA 중에서도 BCC 모델(가변 규모수익, Variable Returns to Scale) 및 Input-oriented 모델을 사용함. 이는 교향악단이 생산해야 하는 공연·교육 프로그램의 양이 고정적인 상황에서 동일 산출을 위해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효율성 분석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기반함

- 분석 결과, 10개년 동안 전체의 58.5%에 해당하는 266개 조직이 최소 1회 이상 효율적(100%)으로 분석되었으며, 약 21.6%는 모든 보고 연도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됨.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평균 효율성이 증가함. 이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조직들이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한 결과로 해석됨
- 결과적으로 연구는 비효율 조직에 대해 어떤 투입을 얼마나 절감해야 하는지, 어떤 산출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비교 벤치마크가 되는 효율 조직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는 예술조직이 자원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기능함

○ 연구는 정부지원·민간지원·인력규모 등 다양한 투입과 공연·아웃리치 산출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다차원적 모델링을 통해, 예술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향후 공연예술 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 설계에 참고가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

- (투입-산출 구조의 재정비와 성과지표의 다층화 필요성)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있어 우선 재정·인력 중심의 투입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파악하는 진단 체계가 필요하며, 예술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복합적 산출 구조를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함
- (장르 특성 기반의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과 재원 구조 다변화) 지원 대상과 장르별로 서로 다른 투입-산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요구되며, 공공재원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지원 활성화 및 다원적 재원 구조의 구축도 중요함
- (공공성 중심 성과 활용 강화와 비효율 단체 개선 체계 마련) 관객·참여 기반의 성과를 공공성 평가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단체를 식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3.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관련 사례 시사점

■ 국내외 관련 사례 종합 시사점

○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결과,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율성 분석은 단순한 투입-산출 비교를 넘어 예술적 성과·사회적 가치·공공성·지속가능성 등 복합적 성과 구조를 포괄하는 다층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현행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투입 중심의 관리체계, 장르 간 편차, 공공성 부족, 재원 구조의 협소성을 개선 위한 정책적 착안점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즉,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실증적 분석틀과 정책설계 지점으로 전환하고, 창작 환경의 복합성을 반영한 투입-산출-성과의 통합적 구조의 재정립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적·인적·재정적 자원을 포괄하는 투입 변수의 체계적 진단과 진단 이후 장르·사업 유형별 상이한 창작 환경을 반영하는 맞춤형 평가체계 확립이 요구됨
- 산출 단계에서는 문화향유 확대, 관객·참여 경험, 지역사회 기여 등 공공성 중심의 지표와 자생적 수익·운영수익 등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함. 또한 직접 측정이 어려운 창작 환경 요인과 예술인 역량 등은 '대리변수'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창작 과정의 맥락적 특성을 포착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민간 후원 및 다원적 재원 구조의 확대, 기관 미션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비효율 단체 개선을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 강화도 필수임. 나아가 장르·지역·규모별로 상이한 시간적·맥락적 효과를 반영하고, 정책 효과의 인과성을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정교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특히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 103~105번(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등)'과 직접 연계됨
- 공공성 중심의 성과체계 재정립, 지역 기반 창작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은 모두 해당 국정과제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어 향후 업무계획 수립의 전략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제6장

전문가, 고관여자 및 사업참여자 심층인터뷰

제1절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1.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개요

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개요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개요

○ 회의명: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 일　시: 2025. 09. 29.(월) 10:00-12:00

○ 장　소: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연구동 401호

○ 진행자: 안혜진, 이병민

○ 기록 및 정리: 김이나, 장은영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 분야별 전문가 및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총 9명

- 문화경제,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5명
-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4명

[표 6-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table>
<tr><th>구분</th><th>인원</th><th colspan="2">참석자</th><th>비고</th></tr>
<tr><td rowspan="5">분야별 전문가</td><td rowspan="5">5명</td><td rowspan="2">문화경제</td><td>구ㅇㅇ</td><td>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td></tr>
<tr><td>한ㅇㅇ</td><td>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td></tr>
<tr><td rowspan="3">문화예술</td><td>이ㅇㅇ</td><td>AMX 연구소 연구소장</td></tr>
<tr><td>김ㅇㅇ</td><td>AMX 연구소 연구원</td></tr>
<tr><td>장ㅇㅇ</td><td>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td></tr>
<tr><td rowspan="4">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td><td rowspan="4">4명</td><td colspan="2">안혜진</td><td>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td></tr>
<tr><td colspan="2">이병민</td><td>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td></tr>
<tr><td colspan="2">김이나</td><td rowspan="2">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td></tr>
<tr><td colspan="2">장은영</td></tr>
<tr><td>종합</td><td colspan="4">9명</td></tr>
</table>

■ 주요 안건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과 사업모형 개발 연구 방향성 논의 및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 사업방식별 유형화 및 연구 진행에 대한 전반적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 효울성과 핵심 성과지표 체계 정립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자문
- 예술창작지원사업 사업모델 제시, 핵심성과지표 체계 아이디어 및 키워드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진행 사진

[표 6-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진행 사진

구분		자문 및 의견수렴 진행 사진
일정	회의 방식	
2025.09.29.(월) 10:00-12:00	현장 의견수렴	

나.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내용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구분	답변 내용
1-1.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 및 한계	
1-1-1.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 오랜 기간 개인 예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분배하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 예술생태계의 최소한 기반을 유지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이 개인에게 고르게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함
1-1-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 개인, 단년도 지원은 단기 활동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의 창작 역량 축적과 확산 유도에 어려움이 존재함 • 연도별로 사업이 변동되어 사업 목적이 중복되는 문제로 공통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움 • 예술인 개인·단체의 팬 확보, 협업, 민간과의 협약 등 비재정적 성장 방안 마련이 취약함 • 후원 사업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예술인에게 금전적 지원 방식 외의 다른 가치 창출 방법과의 연결성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 • 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보완되어야 함 • 장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새로운 신진 장르를 포용하거나 장르 구분을 없애는 점에 대한 논의가 어려움 •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민간 후원 활성화 및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함
1-2.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향후 과제 및 전망	
1-2.1. 예술창작지원사업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가치기반 모델 도입 및 측정·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 개발이 시급함 • 팬 확보, 예술인들의 협업, 민간과의 협약 등 비재정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후원금의 예술인 직접지원 외 다양한 가치 창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소액 다건 지원, 개인 단년도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금의 적합성을 높여야 함 • 사업 지원서 작성 양식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분석·

	관리 방안이 필요함 • 장르 구분을 줄이기 위해 장르 간 협력 및 융합을 지원하고 새로운 신진 장르의 포용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부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후원 및 자체 예산 확보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현행 사업은 창작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어 유통-확산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단절을 해결할 과제가 필요함
1-2-2. 향후 사업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	• 정량 효율성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예술적 가치 등 다차원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아르요 클라머의 가치기반 모델을 참고하여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문화적 가치 등을 반영한 모델을 설계해야 함 • 사업 목적의 불명확, 매년 변동되는 사업명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유형별 추진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자료 포락 분석(DEA), 회귀 분석 등 계량 분석 기법을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표준화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사업-평가의 연동 흐름 구성이 필요함 • 형평성뿐만 아니라 수월성을 고려해 개인·단체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 후원이 예술인의 활동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원의 연결 구조를 구축해야 함
1-2-3.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려 의제	• 다액 소건, 단기 사업에서 벗어나 예술을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예술인의 성장주기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 모델의 설계가 필요함 • 정부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후원 활성화 및 자제 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비재정적 성과를 포함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야 함 • 예술인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예술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방식별 유형화

구분	답변 내용
2-1.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방식별 유형화	
2-1-1.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효과적 방식	•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치기반 모델 기반으로 다차원적인 사업 운영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함 • 단체는 3~5년 등 장기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창작 이후의 발표와 확산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구축해야 함
2-1-2. 지원 방식 중 성과가 뚜렷하거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난 유형	• 소액 다건 지원으로 단기적인 성과의 증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문화예술 분야의 본질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정성적 부분도 평가해야 함
2-1-3.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원 방식과의 차별점, 보완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자체의 가치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예술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우, 예술의 산업화, 예술인의 해외 진출 등 경제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경영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영 지원 방법을 활용하여 예술인의 비재정적 성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후원 사업과의 연계, 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구성이 필요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사업모델

구분	답변 내용
3-1. 사업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	
3-1-1. 사업 효율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투입 변수	• 단순히 인풋 대비 아웃풋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정된 인풋 대비 산출, 사업의 구조, 지원 대상의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함 • 세부적으로 예산 구조 및 소액 지원의 문제, 개인과 단체 구성의 차이, 사업 구조의 연도별 변동성 등 정량 분석이 가능한 지표 역시 고려해야 함
3-1-2.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 체계 구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	• 예술적 수월성, 공공성, 사회적 가치에 따른 예술인의 관계망, 공공성 등 다차원적 가치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포함해야 함 • 팬 확보, 협업, 민간과의 협약 등 비재정적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 포함이 필요함 • 사업의 지원 내용과 실제 예술인의 자원 필요도, 창작 활동 간의 적합성, 후원 및 협업 등 자립 기반 요소 평가 지표를 포함해야 함
3-2. 예술창작지원사업 모델 설계	
3-2-1. 사업모델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가치	•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 예술적 수월성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가치기반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설계해야 함 • 문화 기본권의 보장, 문화 정체성의 강화 등과 같이 문화기본법의 상위 목표와 연계하여 사업모델을 설계해야 함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계성, 창작-유통-확산의 구조적 연계성을 반영해야 함
3-2-2. 향후 사업의 지원 목적, 대상, 선정 기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가치	•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창출, 문화 향유의 확대 등 포괄적인 지원 목적을 설정해야 함 • 개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단체,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되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수월성, 사회적 영향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사업의 내용과 실제 예술인의 창작 활동 간의 지원 금액 적합성을 핵심 선정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3-2-3. 시범사업 적용 시, 우선으로 검증해야 하는 분야 및 방식	• 다차원적 가치 평가가 실제 사업 운영에 있어 적용 방안, 효과의 결과 등의 실효성을 가치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해야 함 • 예술인의 성장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실제 사업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실현이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증해야 함 • 소액 다건 지원 방식을 비롯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식의 성과 차이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고 지원금의 적합성 문제를 검토해야 함 • 신진 및 신흥 장르의 포용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3-2-4. 새로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방식,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성과지표	• 예술적 수월성, 사회적 가치 및 관계성,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가치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반영한 지표가 필요함 • 사업 수혜자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의 역량 강화, 활동 범위의 확장, 재정적 자립도 향상 등을 측정하는 정성 지표를 포함해야 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시사점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시사점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가치기반 모델의 필요성) 기존 사업은 다양한 장르, 많은 개인 예술인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기초 생태계 유지에 이바지했으나, 단순 재원 분배 중심에 머물러 예술인의 창작역량 축적 및 강화에는 한계를 보임
  -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가치기반 모델의 도입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역량 축적과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정책-사업-평가의 연계성 강화 및 일관성 확보) 연도별 사업명의 변경, 목적이 중복되는 사업의 난립으로 사업 공통 지표의 설정과 효과성 평가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음
  - 향후 변동성 높은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목적·대상·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 정책목표와의 일관성 확보가 요구됨
- (예술인 단계별 창작 주기를 고려한 비재정적 예술인 성장 기반 요소 마련) 예술인의 공공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민간과 자체 재원 기반 구축이 미비함
  - 추후 단순 지원금 배분이 아닌 예술인의 단계 창작 주기를 고려해 팬덤 형성, 민간 협약, 협업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예술인 성장 기반 요소를 마련해야 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방식별 유형화

- (다차원 가치를 반영하는 운영 체계 마련)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평가체계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이후 예술적 수월성·사회적 가치·문화적 기여도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다차원적 가치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다년도 지원 구조 도입으로 예술인 단체의 지속성 마련 방안) 예술인 단체 지원에 있어 현재에는 단기적이고 연례적 성격으로 운영되어 예술인 단체의 지속성과 사업 및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
  - 추후 3~5년 규모의 다년도 지원 구조를 도입해 단체의 창작 맥락·조직 역량·중장기 로드맵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창작-성장-유통-확산 단계적 연계 고리의 설계) 현 사업은 창작 단계에서 종료되는 단기 지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 성과 축적에 어려움
  - 향후 창작-성장-유통-확산이 단계적으로 연계되는 연결고리 형식의 중장기적 사업을 설계해 창작물의 사회적 파급력과 지속성 강화가 필요함
- (장르 특성에 맞는 적정 기간과 규모의 지원 체계 확립) 소액 다건 중심의 지원방식은 예술인에게 단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나, 실질적 창작 단위의 규모와 질적 성취를 보장하지 못해 지속이 가능한 성과 창출을 어렵게 함
  - 이후 장르별 창작 구조에 따른 비용 구조를 조사하여 현실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완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유통-확산' 단계의 지원 구조가 '창작' 단계의 지원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예술인의 자립 기반 방안 마련

에 어려움이 존재함

- 향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비재정적 성장과 사업화 역량, 창작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성 및 사업모델

- (예술창작지원사업 다차원적 효율성 분석 체계 구축의 필요성) 현재 투입 대비 산출 중심의 단선적 효율성 평가 방식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지닌 다층적 구조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변수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책 판단을 단편화할 위험이 존재함
  - 예산 편성 방식, 단체의 조직적 특성, 장르별 생산 구조, 연도별 사업 변동성 등과 같은 핵심 변수를 포함한 다차원적 효율성 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예술인 성장 과정을 포함한 혼합 지표의 필요성) 현재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원 내용과 실제 창작 현장의 지원 필요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사업 결과에 따른 데이터 축적도 원활하지 않음
  - 예술 활동의 전 단계를 반영하여 비재정적 성과, 창작활동, 적합성 등 예술인 및 단체의 자립 기반 요소를 포함하는 혼합 지표를 도입해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히 평가해야 함

제2절 고관여자 의견수렴

1. 고관여자 의견수렴 개요

가. 고관여자 의견수렴 개요

■ 고관여자 의견수렴 개요

○ 회의명: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고관여자 의견수렴

○ 일 시: 2025. 11. 10.(월) 10:00-11:00

○ 장 소: 온라인 회의

○ 진행자: 이병민, 안혜진

○ 기록 및 정리: 김이나, 장은영

■ 고관여자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추진 관계자 및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총 7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추진 관계자 3명
-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4명

[표 6-3]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고관여자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구분	인원	참석자	비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조ㅇ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팀 책임연구원
		김ㅇ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차장
		황ㅇ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대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4명	안혜진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이나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장은영	
종합	7명		

■ 주요 안건

○ 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 관리 전반적 논의 및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 개요 및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주요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및 추진 사례, 개선방안, 향후 과제 관련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 평가 기준 및 연구 진행의 참고 사항 의견수렴

나. 고관여자 의견수렴 내용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개요 및 정책적 위치

구분	답변 내용	
1. 예술창작지원사업 개요 및 현황, 정책적 위치		
1-1. 예술창작지원사업 전반 개요 및 시각다원 예술사업 및 공연예술 사업의 개요	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전반 개요	• 최근 5년간 다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점이 특징임 • 현재 다액 소건형 중심으로 지원 중임
	시각다원 예술사업	• 시각예술창작육성 예산 하위 구조에 있음 • 직접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 존재함 (작가, 기획자, 비평가들의 창작 프로젝트 지원) • 간접 지원: '창작주체사업' (민간 전시 공간 운영 지원), 미술관 운영(예산 약 22억 정도 존재) • 기타: 건축물 미술작품 및 공공미술 진흥으로 25,000여 점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연예술사업	• 운영 사업: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사업 등 존재함 중장기 지원: 공연예술창작주체사업 (단체 위주 활동 중장기 창작 진행 파트 중심) • 운영 사업: 공연장 운영(소극장, 중극장, 민간 소극장) 사업, 공연장 대관료 사업, 공연예술연습공간 사업 • 기타 지원: 비평지원사업,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1-2.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내 본 사업의 위치 및 역할	• 정부가 직접 지원한 사업을 제외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음(사업의 구성 및 전달 체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 • 다만, 예산의 증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안, 의사결정에 구속되어 있어 유망도 높은 사업의 예산 증액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미션 및 업무 계획과 본 사업의 연결점	• 이전 위원회에서는 세대 간 균형, 지역 간 균형, 자원의 형평적 분배하는 부분에 많이 치중되었으나 현 위원회에서는 유망 예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존재함 • 관련 기관의 증대에 따라 예술위 사업의 위치(포지션)를 고민하고 있음 • 문예기금 편성은 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통하여 추진되며 사무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획 및 편성하는 구조임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체계 및 개선방안

구분	답변 내용		
2. 분야별 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 사례 및 향후 과제			
2-1.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잘된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	성공 사례	시각 예술	• 국고사업으로 '작은미술관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재단과의 관계망을 형성함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제도와 연결하고자 함 • 지역 재단과 중앙 미술관 시설과의 관계망 형성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공연 예술	• 뮤지컬 〈마리퀴리〉가 '올해의 신작'으로 발표된 후 3년 동안 국제 웨스트엔드 진출을 목표로 함 • 다년 사업을 통해 제작사 매칭 완료됨
	개선 필요 사례	공연 예술	• 창작주체사업, 인력, 창작산실 등의 통합 필요성이 언급됨
		지역 사업	• '지역도약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속지원하고 유통 및 국제적으로 성과를 확산시키는

			이상적인 사업이었음. 그러나 예산이 80% 삭감되어 거버넌스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으며 한 해 진행 후 중단되어 아쉬움
2-2. 사업 운영에 있어 단년과 다년 사업 구조 중 각 사업의 특성상 적합한 사업 구조	• 시각예술, 공연예술 모두 다년 사업 구조가 가장 적합함 • 시각예술사업의 경우, '아트엔테크' 사업과 같이 기술을 보유하는 산업기관이 포함된 사업은 예술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다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연예술사업 역시 다년 사업을 통해 작품 제작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2-3. 향후 분야별 예술창작 지원사업의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 창작주체사업, 인력, 창작산실 등의 통합 필요성이 존재함 • 현재 프로젝트는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가치사슬 내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민간-관-공공이 연계하여 촘촘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함. 다만, 예산이 존재해야 거버넌스 역시 가능한 것으로 예산 증액도 필요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분야별 사업 추진-운영-관리

구분	답변 내용
3. 사업 운영체계 및 개선 방안	
3-1. 본 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거버넌스, 편성된 조직체계, 담당 인력 구성 및 운영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의 소통은 자율적으로 확보되었으나, 예산 증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사결정에 구속되어 있음 • '방방곡곡'과 같은 지역 중심 사업의 이관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념의 부재로 애로사항이 존재했음
3-2. 사업 실제 운영 및 관리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점 및 어려운 점	• 내부 거버넌스는 일종의 합의체로 진행되고 있음 • 위원회에서 사업의 가치와 관점이 달라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해 사업 담당자가 개별 위원의 의견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내부 위원회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외부 참여가 없어 실무부서와 소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속적 연계가 느슨함
3-3. 향후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추가·보완 사항	• 내부 위원 안배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중앙조직이면서 민간 자율 조직인 역할을 활용하여 지역과의 관계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지표, 효율성)

구분	답변 내용
4. 현재 정책사업 평가 시 도입 및 적용 중인 정책사업 성과지표	
4-1. 사업 평가 시, 정량·정성 중 중점을 두고 있는 평가 방법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심성과지표는 존재하나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정도임 • '지원 건수', '참여자 수' 등 아웃풋(Output) 관련 평가 방법은 존재하나 이외의 영역에 관한 성과지표는 부재함
4-2. 사업의 효율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안)	• 사업의 매력도 증대를 위하여 아웃컴(Outcome) 중심의 지표가 있으면 좋겠음 • 측정 항목으로 '예술의 완성과 실용성', '예술 단체의 지속가능성 지수', '사회적 가치의 확대' 등의 추가를 희망함 • 새로운 수혜자그룹, 장애 예술인, 포용성이 고려된 성과지표의 존재를 희망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구분	답변 내용
5. 새로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구조 제안	
5-1.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	• 시각예술 창작자의 경우 창작 대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므로, 예술인의 사례비(인건비) 편성 기준의 증액을 희망함
5-2. 운영 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핵심 방향	• 창작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기를 희망함

다. 고관여자 의견수렴 시사점

■ 고관여자 의견수렴 시사점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개요 및 정책적 위치

- (지원 방식 변화에 따른 명확한 기준 제시) 최근 5년간 소액·다건형이 다액·소건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정책적 방향성에 관한 설명 구조의 제도화가 미비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지원 방식 변화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사업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차의 마련)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 구성 및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산 증액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업 운영의 탄력성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함
  • 향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기금 편성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참여 의무화) 예술창작지원사업 중 일부는 문예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사업 설정에 따라 사업이 구성되는 경우가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기금 편성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미션 및 가치 기준 재정비 통한 지원 원칙의 일관성 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 위원회는 다액·소건 집중 지원으로 기존 지원사업의 연속성이 낮아졌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미션과 가치 기준을 재정비하여 지원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체계 및 개선 방안

- (지역 기반 사업 예산 안정성 보장의 최소 기준 마련 필요성) 지역도약 지원사업의 80% 예산 삭감에 따른 중단 사례 등 지역 기반 사업이 예산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후 지역 기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예술인의 활동주기에 따른 다년 사업 운영체계 마련) 시각예술·공연예술 모두 다년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술인의 활동주기와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함
  - 추후 창작 주기에 따른 다년도 사업 운영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지표 및 효율성)

-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한 아웃컴 중심 성과체계 도입의 필요성) 현재의 성과지표는 '지원건수', '참여자 수' 등 아웃풋 중심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정교하게 반영하기 어려움
  - 아웃컴 중심의 성과체계를 도입하여 예술지원의 실질적 성과평가를 통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해야 함
- (포용성 기반 정성·정량의 혼합 지표 개발의 필요성) 장애 예술인, 신규 수혜자 등 포용성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저하할 수 있기에 포용성을 반영하는 정성 및 정량 혼합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 (지원사업 전 과정에 적용이 가능한 공정성 기준 마련) 최근 예술창작지원사업은 결과물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 역시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추후 예술창작지원사업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성의 기준을 마련해 사업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함
- (중장기 계획 기반 운영체계 마련) 현재 예술 장르별로 구분된 지원사업 내 세부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변동이 심해 중장기 사업 운영이 어려운 추세임
  -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기반의 운영 체계를 마련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제3절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1.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개요

가.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개요

■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개요

○ 회의명: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 일 시: 2025. 10. 28.(화)-2025. 11. 10.(월)

○ 장 소: 온라인 회의

○ 진행자: 안혜진

○ 기록 및 정리: 김이나, 장은영

■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현황

○ 분야별 사업 참여 예술인 및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총 14명

- 분야별 사업 참여 예술인 10명
-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4명

[표 6-4]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참석자 현황

구분	인원	참석자	비고
분야별 사업 참여 예술인	10명	송ㅇㅇ	시각예술(도예) 예술인
		박ㅇㅇ	시각예술(도예) 예술인
		김ㅇㅇ	시각예술(전시) 예술인
		정ㅇㅇ	공연예술(영상) 예술인
		정ㅇㅇ	공연예술(영상) 예술인
		이ㅇㅇ	공연예술(음악) 예술인
		황ㅇㅇ	시각예술(사진) 예술인
		김ㅇㅇ	공연예술(연극) 예술인
		이ㅇㅇ	문학(비평) 예술인 / 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오ㅇㅇ	문학(비평) 예술인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4명	안혜진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이나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장은영	
종합	14명		

■ 주요 안건

○ 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 관리 전반적 논의 및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 개요 및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주요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및 추진 사례, 개선 방안, 향후 과제 관련 의견수렴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 및 연구 진행의 참고 사항 의견수렴

나.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내용

■ 사업 참여 예술인 활동 현황

구분	답변 내용	
1. 기본 예술 활동 및 창작 환경		
1-1. 예술 활동 분야 및 경력	• 시각예술, 공연예술, 도자기 조형, 사진, 미디어아트, 무용 및 연극 제작, 문학평론 등 다양한 분야 내 활동 중임(대부분 5~15년 이상 창작 경력이 존재함)	
1-2. 창작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재정적 어려움	• 작품 제작비, 공간 임대료, 장비 구입비, 연습비(인건비) 등 경제적 요인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함 • 미디어아트, 다채널 영상, 도자, 공연예술 등 공간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재정적 압박이 존재함
	공간 부족	• 연습실, 작업실, 전시 공간 등 분야별 필요 자원은 다르나 창작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창작 과정 전반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험을 겪음
	행정 부담	• 정산시스템(e-나라도움, 아르코 누리시스템) 내 용어, 절차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음 • 해외 레지던시 참여자의 경우 시차, 현장과 행정팀의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동시에 경험함
	지역적 여건	• 지역 내 전시 인프라의 부족, 사진 인화 시설의 부재, 지역 주민 관심 부족 등 지역 문화생태계의 약함이 주요 제약 요인임

■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구분	답변 내용	
2-1.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한 평가_사업 운영 효율 및 구조의 관점		
2-1-1. 지금까지 참여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유형	• 개인지원, 단체지원, 공모형, 해외 레지던시, 창작공간지원, 창작산실사업, 지역 기반 예술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참여함 • 대다수는 단년도 지원 중심으로 참여했으며 다년도 지원 경험은 적음	
2-1-2. 참여한 예술창작지원사업 중 창작 활동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된 부분	• 작품 제작비, 공간비, 장비 구매비 등 실제 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크게 도움 되었음 • 공연예술의 경우, 지역 순회공연이나 창작산실 참여 경험을 통해 활동 지역 확대 효과가 존재했음 • 특히, 해외 레지던시 참여에 따른 재료비, 장비 대여 비용의 실비 지원으로 창작 몰입에 큰 효과가 있었음	
2-1-3. 기존 사업 운영체계의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	행정 절차	• 정산 과정, 서류 오류, 시스템 용어 등 어려움이 존재함 • 미디어아트 분야의 경우, 장비 구매 및 외장 저장장치 등 필수 요소가 존재하나 행정 규정에 맞지 않아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음
	선정기준의 투명성	• 문학 분야의 단체는 지방 단체 및 협회 기반으로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선정 기준이 불명확함

		• 이에 따른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단년도 사업의 반복 구조	• 단년도 사업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주기인 '기획-창작-제작-유통'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사업 종료 후 생활비 및 예술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금의 공백으로 기존 진행하던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움
2-2.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한 평가_지원사업 유형 개선 요구		
2-2-1.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에 관하여	• 창작 과정에서 리서치-실험-제작-발표까지의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함 • 단년도 지원사업은 이를 포함하기 어려워 시범 운영-성과-확장 구조의 구상에 어려움이 존재함 • 지역 비엔날레, 공간 확장, 신기술 기반 작업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단년도 지원 체계로 완결되기 어렵기에 다년 지원이 필요함	
2-2-2. 현재 지원사업이 예술활동의 전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 레지던시 참여자의 경우, 레지던시 진행 후 후속지원 및 전시 기회·홍보가 확장되면 좋겠음	
2-2-3.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방식, 주기 등 사업 유형의 측면에서 보완 및 확대를 희망하는 부분	• 다년도 연속 지원체계의 확대, 경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희망함 • 신기술과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깊이 있게 창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으나,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사업은 이러한 시도를 위한 사업이 부재한 것 같음. 이에 따라 실험·연구 기반 창작 R&D 지원을 희망함 • 공간·인력·기획 등 간접 지원의 강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확대를 희망함	
2-3.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한 평가_지원 방식의 개선		
2-3-1. 지원방식 중 현장에 필요한 방식, 이유	• 보조금 직접지원, 공간·장비·기술 기반 간접 지원, 단계별 성장 트랙형이 필요함	
2-3-2. 지원금 규모와 지원 방식의 유연성 중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	• 둘 다 필요하나 유연한 예산 집행이 우선 필요함 • 지원금의 사용 용도 제한, 인건비 규정, 장비 구매 구정 등으로 창작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방식으로의 예산 사용이 어려움 • 특히, 미디어아트·영상 제작의 경우,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장비 교체 등 실제 필요한 항목은 존재하나, 행정 규정에 맞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제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새로운 지원 구조

구분	답변 내용
3. 새로운 지원 구조	
3-1. 현재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사업 분야 및 유형	• 기술 실험, 새로운 매체 탐색, 작업 방식의 확장을 위해 실험 및 연구 기반 R&D형 사업이 생성되어야 함 • 준비(창작)-제작-유통-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함 • 레지던시 후 전시 기회, 지역 기반 프로젝트의 후속 확산, 성과 홍보 등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경영의 '데모데이'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매개되지 않아도 예술인과 민간 기업 또는 개인과 사업 내지는 후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예술인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3-2.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 준비-제작-확장-재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종료 후 후속 전시·홍보·유통 지원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행정·기술 전문가 매칭, 정산 대행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유연한 지출 항목, 장비 구매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 • 개인 작품 소개를 위한 네트워크 등 예술인의 자립도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3-3. 예술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술지원	• 창작 과정 중심 지원(리서치, 실험, 제작 과정 등)임 • 신인-중견-경력 예술인 각각의 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 모델이 제고되는 것임 • 예술인은 창작에 집중하고, 행정은 지원기관 또는 보조 인력 기반으로 분리하는 구조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자생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멘토링,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것임
3-4. 현재 지원사업의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균형 여부	• 현재 지원사업이 특정 가치,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일부 공모사업은 기술 활용 또는 특정 사회적 의제를 강조하면서 작가들이 본래 작업 방향과 무관한 기술을 억지로 도입하게 되는 상황이 존재함 • 전시 횟수, 객석 점유율, 공개 성과 등 '결과 성과' 중심의 구조가 예술 활동 과정의 가치(리서치·실험·발전 가능성)를 느슨하게 함
3-5. 특정 가치 편중에 따른 보완점	• 기술이나 사회적 이슈 중심이 아니라, 창작 본연의 탐구와 표현을 중심으로 지원 구조를 설계해야 함 • 지역 예술인의 경우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지역 아카이빙 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나 형식적인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예술의 본질을 경제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우니 예술 창작의 과정·실험·발전 가능성을 반영하는 구조를 추가해야 함

다.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시사점

■ 사업 참여 예술인 의견수렴 시사점

○ 사업 참여 예술인 활동 현황

- (예술 분야 및 경력별 최소 창작 비용 지원 구조의 필요성) 다양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5-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력이 창작 생태 반영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 및 경력별 창작 비용을 보전하는 최소 보장형 지원 구조가 필요함
- (행정 언어의 표준화, 간소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e-나라도움, 아르코 누리시스템의 용어 난해성과 절차 복잡성, 행정 처리 부담 등으로 창작활동의 몰입도가 저하됨
  - 이에 따른 행정 언어 표준화 및 간소화, 정산 대행·전문가 매칭이 필요함
- (지역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작-공간-유통' 연계형 사업의 필요성) 지역 내 전시 공간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의 기회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지역 예술지원이 지역 내 실질적 예술생태계 조성보다 단발성 창작 지원에 치중되어 왔음을 시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유통'을 하나의 필수 연계 구조로 묶은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 운영 효율 및 구조

- (예술인의 안정적 예술 활동 보장 및 성과 도출을 위한 다년형 지원제도의 확대) 현재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예술인의 전 활동 주기에 필요한 창작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사업 종료 후 후속 활동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예술인의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보장과 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전 활동 주기를 아우르는 다년형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함

- (심사 기준의 공개, 설명 의무제의 법적 수준으로의 상향 필요성) 현재 일부 분야의 사업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선정 체계가 전문성보다 조직 네트워크 의존 구조를 강화하는 구조적 왜곡이 존재함
  - 향후 심사 기준의 공개, 설명 의무제를 법적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유형 개선 요구
- ('레지던시-전시-홍보' 통합 사업 마련 및 창작 환경 조성 방안 마련) 현재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에게 체류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레지던시 이후 전시 및 홍보 단계로 연계되는 지원이 미흡하여 창작물의 외부 확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레지던시-전시-홍보'가 하나의 패키지로 기능하는 모델로 재편하여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력 맞춤형 트랙 도입을 통한 성장 궤적에 적합한 지원 방안 마련) 현재 많은 사업이 청년과 신진 작가의 창작 준비에 초점이 맞춰 있음. 중견, 고 경력 단계는 청년·신진에 비해 단일형 구조의 사업으로 운영됨. 이는 예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의 제기가 존재할 수 있어 경력 맞춤형 트랙을 도입해 성장 궤적에 적합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함
- (창작 준비단계의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의 신설) 예술 현장에서는 신기술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창작 준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사업은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 방식은 보조금 지원 등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창작 단계의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리서치, 테스트베드 활용, 프로토타입 구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술창작 R&D 지원사업의 신설이 필요함

○ 기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원 방식 개선
- (사업 내 직·간접 지원 패키지를 통합한 복합지원 모델의 필요성)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보조금, 공간, 장비,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예술 분야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성과 도출의 어려움이 존재함
  - 창작 과정의 연속성 확보 및 지원의 파편화 해소를 위하여 하나의 사업 유형 내 직·간접적 패키지를 통합한 복합지원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출 항목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 현재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직된 예산 사용 방안으로 창작활동에 필요한 예산 사용의 어려움이 존재함. 이는 행정과 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평가될 수 있어 금액의 확대보다는 지출 항목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르에 따른 인건비 체계 재설계의 필요성) 현재 인건비 규정의 획일성이 예술 분야별 인력구조와 부합하지 않아 왜곡된 지출을 발생시킴. 이는 규정 중심의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됨
  - 보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각 장르에 따른 인건비 체계의 재설계를 시도해야 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새로운 지원구조 제안
-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데모데이 프로그램의 진행)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민간 연계 및 후원 매칭 구조가 미비함
  - 향후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레지던시-전시-홍보-유통-확산'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고 이를 민간 연계 및 후원 매칭 구조를 활성화해 후속지원 체계의 제도적 전환 및 예술인의 자립성,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성과 중심에서 과정 기반 성과지표 체계로 전환의 필요성) 현재 전시 횟수·객석 점유율 등 결과 성과 중심의 지표체계에 의존해 있기에 예술의 본질적 속성 포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추후 정량·정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과정 기반 성과지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의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 프레임 마련의 필요성) 현재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가 형식적 문항으로만 소진되고 있음. 이는 지역 창작활동이 지닌 공동체적 관계, 장기적 맥락, 지역문화 생태적 기여가 평가 기준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보여줌
  -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반 예술의 질적 가치(관계·맥락·지속성)를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 프레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7장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모델 및 성과지표 개발(안)

제1절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방법론적 틀

가.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방법론적 틀 구성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방법론 구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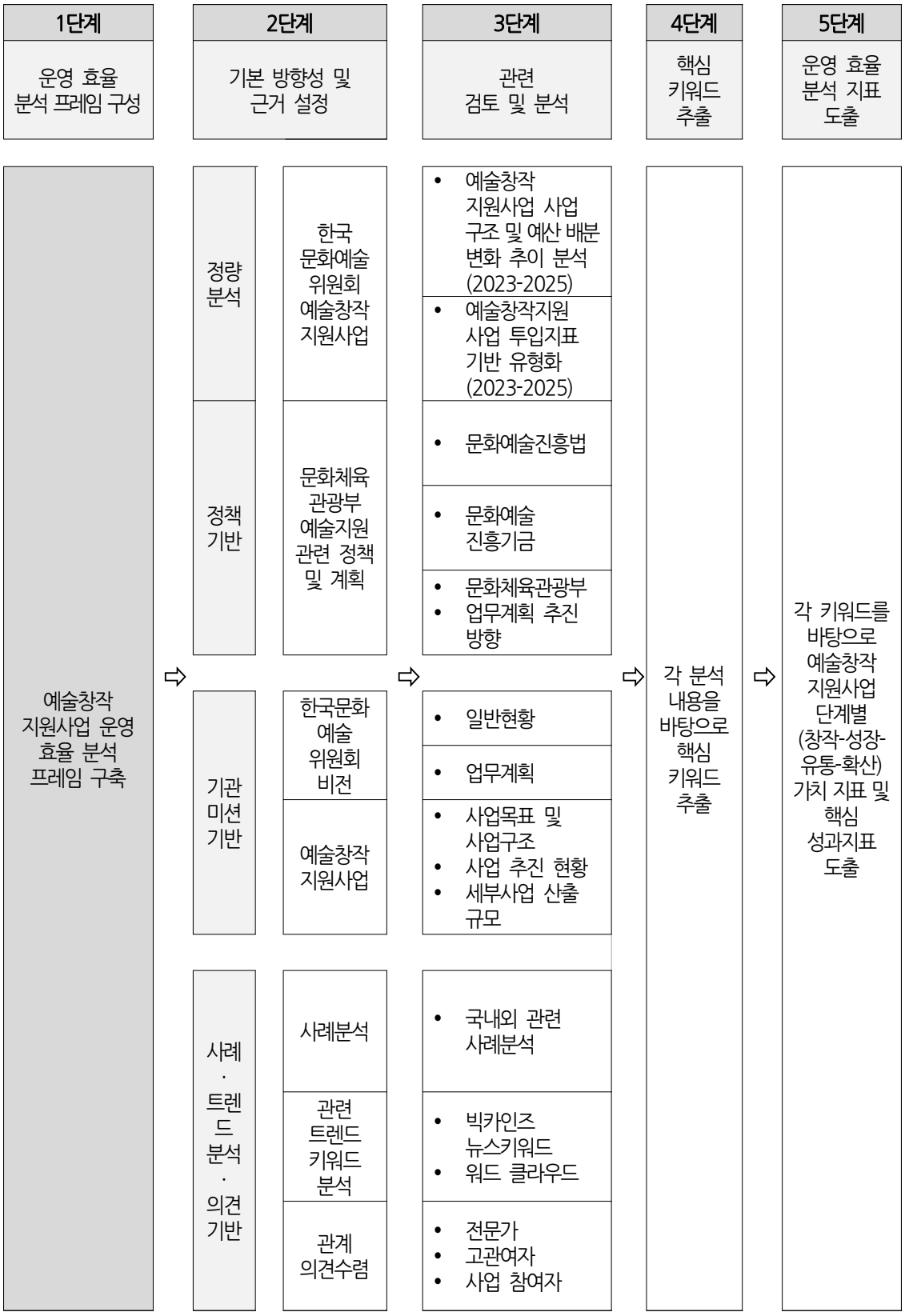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특성과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단계적·구조화된 분석 방법론을 설정함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의 가치지표 및 성과지표 개발 단계를 [표 7-1]과 같이 5단계로 설정하였으며, [표 7-2]와 같이 운영 효율 분석 프레임 구성부터 가치 지표 도출까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 분석을 수행함

[표 7-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방법론 구성

구분		내용
1단계	운영 효율 분석 프레임 구성	• 가치기반 접근법을 토대로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프레임을 구축
2단계	기본 방향성 및 근거 설정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계획, 문화예술진흥기금 목적 등 정책적 근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미션 및 사업 구조를 종합하여 분석의 기본 방향성을 설정함
3단계	관련 검토 및 분석	• 예술창작지원사업 정량분석 및 유형화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사업목표·구조,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 사례·트렌드 분석(뉴스 키워드·워드 클라우드) 및 전문가·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 이슈를 도출함
4단계	핵심 키워드 추출	• 정책·기관·사례·트렌드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개념을 범주화하여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운영 효율 분석에 적용이 가능한 키워드를 추출함
5단계	운영 효율 분석 지표 도출	•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단계별(창작-성장-유통-확산) 운영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 지표 및 성과지표를 도출함

[표 7-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세부 단계



나.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및 가치 지표 도출 과정

■ 정량분석 및 사업유형화 기반 가치 지표 도출

[표 7-3]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정량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정량분석 및 사업 유형화	예술창작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2023-2025)	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기반 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연도별 사업 구조 및 예산 배분 변화 추이 분석 (2023-2025)	• 글로벌 창작 역량 강화 • 사업 유형별 차별화 지원 • 정책적 지원 강도의 강화 • 문화예술의 공공 거점 마련 • 정부-지자체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 • 예산 확대 및 체계적 예산 운용 • 자원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 • 사업 구조의 재편(선택과 집중) • 장르별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 예술창작 생태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마련 • 기술과 기초 창작예술장르의 융합 • 지역 예술인 자립을 위한 예술 창작 인프라 및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예술 생태계 확장 및 지역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 해외 협업 프로젝트 수 • 국제 예술 행사 참여 비율 • 장르별 사업 예산 및 지원 내역의 차등화 정도 • 공공 예술 거점의 수 • 공공 예술 공간의 확장 정도 • 기술 활용한 예술 창작물의 개수 • 기술 융합 프로젝트의 수 • 예술인의 자립적 예술 활동 여부	• 예술 지원 예산의 증가율 •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사업 수 • 협력 사업의 예산 비율 • 지역 문화 행사의 수 • 예술 통한 사회적 대화 및 논의 마련 여부 • 지역예술인 창작 인프라 확장 여부 • 지역 예술 행사 참여자 수	• 예산 대비 실질적 성과 달성도 • 예산 대비 사업 수의 변화 • 사업 구조 재편 통한 사업 성과의 향상도 • 예술 창작의 경제적 파급효과 • 예술 관련 산업 및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 • 예술인의 예술 활동 자생력 및 수입 비율 • 예술 관련 직업에 취업한 인원 수

[표 7-4]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정량분석 및 사업 유형화	예술창작지원 사업 유형화	예술창작 지원사업 투입지표 기반 유형화 (2023-2025)	• 중앙-지역 협력 기반 강화 • 직접지원 사업의 심의체계 고도화 • 공정성·지속성 중심 평가체계 확립 • 창작단계별 지원 구조 정교화 • 사업 유형별 목표 기반 차등 지원·평가체계 • 인프라·대형사업 거버넌스·장기계획 평가모델 도입 • 창작지원형 전문성·창작성과 중심 평가모델 고도화 • 소규모·지역형 지역 확산·공동체 기여 기반 평가체계 구축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 창작단계별 지원구조 정교성 • 창작지원형 전문성 기반 성과 • 유형별 목표 기반 차등 지원 • 창작단계 심의 품질	• 중앙-지역 협력 기반 강화 효과 • 심의체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지속성 중심 평가체계의 공공성 • 지역 기반 예술생태계 조성 효과	• 사업 유형별 차등 지원의 효율성 • 인프라·대형사업의 거버넌스·장기계획 평가 • 창작지원형의 창작성과·지속성·심의의 전문성 강화 • 소규모·지역형의 지역 확산성·공동체 기여도·접근성 중심 지표

■ 정책 기반 가치 지표 도출

[표 7-5]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정책 기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정책 기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관련 정책 및 계획	문화예술 진흥법	• 예술지원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 복지·향유·포용 포함 공공성 강화 • 문화예술 공간·인력 육성 제도화 • 전통·창작·진흥 포괄하는 규범체계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반 재정 구조화 • 위원회 직무·조직 체계의 법적 정합성 • 정책-재정-기관 운영의 법령 기반 통합 구조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 예술지원 제도의 법적 정합성 확보 • 창작·진흥을 포괄하는 규범체계의 적절성 • 위원회 직무·조직 체계의 정당성 • 정책-재정-기관 운영의 통합 구조 확립	• 복지·향유·포용성 기반 • 문화예술 공간·인력 육성의 사회적 기여도 • 지역·사회 기반 문화진흥 규범의 타당성 • 정책-제도 운영의 투명성·사회적 신뢰	• 문화예술진흥 기금 기반 재정의 안정성 • 기금·재정 운영의 구조적 효율성 • 정책-재정-기관 운영의 경제적 성과

[표 7-6]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정책 기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기본근거 설정	관련 검토 및 분석	핵심키워드 추출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정책 기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관련 정책 및 계획	문화예술 진흥기금	• 문화예술 저변 확대 • 지원사업 기금의 전략적 배분 • 예술지원 재정 기반 법·제도적 구조 • 공공·민간 복합재원 기반 기금 조성 체계 • 기금-사업-성과 간 정합성·지속가능성 확보 • 창작·향유·지역·복지 전 영역 포괄 기금 구조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체육 관광부 업무계획 추진방향	• 권역별 문화시설의 거점화 • 예술인 기초·생활 안정 지원 확대 • 청년·장애 예술인 중심 포용적 예술지원 • 지역 기반 예술생태계 재편·분권화 • K-아트의 글로벌화 중심 외교 강화 • 글로벌·AI 기반 문화환경의 선제 대응 구조 • 창작-유통-확산 연계 강화 기반 정책 정합성 확보 • 지역 공연장-예술단체 협업 중심 전국 문화예술의 유통 구조 강화	• 창작-유통-확산 연계 기반 창작 가치 강화 • 기금-사업-성과 간 정합성 확보 • 창작·향유·지역·복지 포괄 지원의 가치성 • 문화예술 저변 확대의 내재적 가치 • 예술 환경 변화(AI·글로벌)의 선제적 대응 역량	• 청년·장애 예술인 등 포용적 예술 지원 • 예술인 기초·생활 안정 지원의 공공성 • 지역 기반 예술생태계 재편·분권화 성과 •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화의 사회적 확산 효과 • 전국 공연장 -예술단체 협업 기반 문화 확산 • 문화향유 기회의 사회적 확장	• 기금 전략적 배분의 효율성 • 공공·민간 복합재원 기반 조성 효과 • 예술지원 재정 기반의 법·제도적 안정성 • 글로벌·AI 기반 환경 적응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 지역 기반 유통 강화의 경제적 가치 • 창작·향유·복지 전 영역 포괄 기금 구조의 효율성

■ 기관 미션 기반 가치 지표 도출

[표 7-7]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기관 미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기본근거 설정	관련 검토 및 분석	핵심키워드 추출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기관 미션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비전	일반현황	• 국제협력 확대 • 예술인-시민의 소통 • 문화예술후원의 강화 •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 예술정책 사업 다각화 • 기관 브랜드 이미지 강화 • 문화예술생태계 유지·발전 • 창작성과의 국민 체감 확대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창작기반 조성 및 지원 고도화 • 정책 수립 및 행정 역량의 강화 • 사업 운영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다양화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업무계획		• 창작기반 강화 • 창작 성과의 질적 향상 • 창작활동 지속성 • 국민 체감도 제고 • 문화생태계 유지·발전 기여	• 예술인-시민 소통 강화 • 취약계층 문화 향유 확대 • 지역문화 활성화 • 문화예술 후원·참여 확대	• 예술산업 및 시장 연계 효과 • 지원 효율성 및 투입 대비 성과 • 민간 협력 및 재원 다각화 • 기관 브랜드 가치 및 신뢰성

[표 7-8]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예술창작지원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기본근거 설정	관련 검토 및 분석	핵심키워드 추출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기관 미션	예술창작지원사업	사업목표 및 사업구조	• 창작 중심의 직접지원 비중 확대 요구 • 전략목표-사업-지표 간 정합성 구조 강화 • 장르 편중 완화 및 창작 중심 구조의 재정렬 • 창작-성장-유통-확산 단계별 지원 구조의 분리 • 지역 분권 기반 예술생태계 신규 지원 모델 마련 • 단년도 중심 한계 보완 중·장기 창작지원체계 마련 • 기술 융합·혁신 창작 대응을 위한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업 추진 현황		• 창작 중심성 강화 • 창작-제작-유통-확산의 단계별 성과 • 장르 다양성 및 균형성 • 중·장기 창작 역량 강화 • 기술융합·혁신 창작 대응력	• 지역 분권 기반 창작 생태계 강화 •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역-중앙 협력 구조 강화 • 사회적 기여·문화적 파급력 • 신규·취약 예술인 접근성 강화	• 예술인·단체의 성장에 따른 미래 경제적 가치 • 투입 대비 창작성과 효율성 • 유통·확산 단계의 경제적 파급효과 • 민간 참여 및 협력 강화 • 기술융합 창작의 산업 확장성
		세부사업 산출규모				

■ 사례, 트렌드 분석 및 관계자 의견 기반 가치 지표 도출

[표 7-9]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사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사례, 트렌드 분석 및 관계자 의견	사례분석 결과	국내 관련 사례 분석	• 투입-산출 구조의 체계화 • 규모·운영 구조의 비효율 해소 • 창작환경 반영한 다층 변수 설계 • 공공성·지속가능성 균형 산출지표 마련 • 공공성·재정·예술 성과의 이원적 지표 필요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국외 관련 사례 분석	• 투입-산출 지표 재정비 • 공공성 기반 성과지표 마련 • 장르 특성 반영한 평가체계 • 민간·다원적 재원 구조의 확립 • 비효율 조직 식별 및 개선체계 마련	• 다층적 창작성과 도출 • 장르 특성을 반영한 성과체계 • 예술적 완성도·창작성 강화 • 창작 여건 변화	• 공공성 강화 • 문화향유 접근성 확대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 • 지역·커뮤니티 기반 확장성	• 투입-산출 효율성 • 유통·확산 단계의 경제적 효과 • 민간·다원적 재원 구조 확립 • 효율적 운영구조 기반의 경제성

[표 7-10]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련 트렌드 키워드 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사례, 트렌드 분석 및 관계자 의견	관련 트렌드 키워드 분석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 복지·창작의 통합 지원체계 확장 • 수도권-지역 지원체계의 격차 해소 • 지역 기반 예술지원 네트워크 강화 • 예술인·창작자 중심 정책 수요 확대 • 팬데믹 등 환경 변화의 지속적 영향 • 심의·행정체계 공정성·투명성 강화 • 정책-창작자-지역 간 다중 네트워크 구조 형성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워드 클라우드	• 분권형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기반 예술단체의 육성 • 지자체 문화재단의 역할 확대 • 창작자 중심 지원정책의 강화 • 지역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 긴급지원, 특별지원, 복지확대 정책 수요 증가 • 개별·청년 예술인 수요 중심 예술지원 담론 • 예술인 권익 보호·복지 체계의 고도화 • 예술창작지원사업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행정 절차 개선	• 창작자 중심 지원 강화 • 복지-창작 통합 지원 • 창작성과의 질적 성장	• 수도권-지역 격차 해소 • 지역 기반 예술지원 네트워크 강화 • 공정성·투명성 기반의 예술지원 체계 • 다중 네트워크 기반 사회적 확산성 • 문화 접근 및 향유 확대	• 투입 대비 창작성과 효율성 • 지역 경제·문화 파급력 • 복지-창작 통합에 따른 경제적 안정성 •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

[표 7-11]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사례, 트렌드 분석 및 관계자 의견	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 자문 문화경제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 가치기반 지원 체계 • 정책-사업-평가 간 연계 • 민간·공공 연계 성장 구조 • 다차원 가치 중심 사업 운영 • 다년도 지원 구조 도입 • 창작-유통-확산의 연계 • 장르 특성 반영한 지원 규모 재설계 • 비재정적 성장 프로그램 확대 • 관련기관 협력 기반 강화 • 장르 경계 최소화 • 다층적 효율성 분석 체계 마련 • 예술인 성장주기 기반 혼합지표 마련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 가치기반 창작활동 성과 • 예술인 성장주기 기반 성과 • 장르 특성·경계 최소화의 창작성 • 창작-유통-확산의 연계 성과 • 비재정적 성장 지원 효과	• 정책-사업-평가 연계의 공공성 확보 • 민간-공공 간 협력 효과 • 유관기관 협력 기반 강화 • 다층적 가치 중심 운영의 공공성 • 문화 접근성 및 참여 확대	• 다년도 지원 기반의 지속성 강화 • 다층적 효율성 분석 지표 • 민간-공공 재원 다변화 효과 • 창작-유통-확산의 경제적 파급력 • 분야·장르 기반 경제 활성화

[표 7-1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계자 의견수렴(사업 추진 관계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사례, 트렌드 분석 및 관계자 의견	관계자 의견수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추진 관계자 시각다원 예술팀 공연예술팀	• 지원 방식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 • 예산 자율성 및 기금 편성 참여 강화 • 중장기 미션 기반 지원 체계 재정립 • 지역 기반 사업 안정성 강화 • 사업군 간 운영체계 통합·정렬 • 창작 주기에 맞는 다년도 구조 마련 • 아웃컴(Outcome) 중심 성과체계 도입 • 정성·정량 혼합 지표 마련 • 사업 운영 신뢰성 지표 마련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 창작 주기 기반 성과 • 아웃컴 중심 성과 도출 • 정성·정량 혼합 성과지표 • 지역 기반 창작 안정성	• 지역 기반 사업 안정성 강화 • 지원 방식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 아웃컴 중심 사회적 확산 효과	• 예산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 다년도 기반 경제적 지속성 • 사업군 간 운영체계 통합에 따른 효율성

[표 7-13]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도출 과정_관계자 의견수렴(사업 참여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성방향 설정 ▶	기본근거 설정 ▶	관련 검토 및 분석 ▶	핵심키워드 추출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사례, 트렌드 분석 및 관계자 의견	관계자 의견수렴	분야별 사업 참여자 (예술인)	• 경력·장르 기반 최소 보장 지원 • 장르별 인프라 격차 해소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 국제활동 지원체계의 보완 • 지역 기반 창작-공간-유통 연계 강화 • 다년도 및 트랙형 구조의 제도화 •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경력 단계별 맞춤형 지원 • R&D 창작지원 체계 신설 • 창작 중심 유연한 집행 구조 마련 • 과정 중심 성과지표의 추가 • 지역 기반 질적 가치 중심 성과지표 마련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 경력단계별 맞춤형 창작성과 • 장르 기반 최소 보장 지원의 실효성 • 과정(quality) 중심 성과지표 강화 • 창작-공간-유통의 창작생태계 연계성	• 지역 기반 창작·공간·유통 연계 강화 • 장르별 인프라 격차 해소 기여도 • 지역 기반 질적 가치 중심 성과 • 국제활동·글로벌 교류 영향력 • 경력·청년 예술인 접근성	• 다년도·트랙형 지원에 따른 안정성 • 창작-유통-확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 장르 기반 경제 활성화 기여도 • 대체·비재정적 성장 프로그램의 생산성 • 행정 효율성 및 비용 절감 효과

2.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및 성과지표 제안

가.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 가치 지표 제안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제안

○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에 기반하여, 개별 사업의 성과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예술 활동의 전 주기(창작-성장-유통-확산)를 포괄하는 체계적 프레임으로 재배치함

- 이를 통해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투입-산출 중심 관리체계를 넘어, 성과와 사회·경제적 파급을 포함하는 중·장기 지표 구조를 구축함

○ 창작 단계에서는 예술지원의 기초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가치 변수를 재정립함

- 구체적으로 창작 기반의 구조적 강화, 장르별 특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반영한 창작 성과의 제고, 개인 중심을 넘어 창작단체를 지원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구조적 전환, 그리고 창작 과정의 질(quality)을 성과로 인정하는 과정 중심 평가체계의 도입 등을 주요 가치 요소로 도출함
- 단기간 산출 위주로 운영된 기존 단년도 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 창작 역량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다년도·장기 지원체계의 전환 필요성을 핵심 가치 변수로 제시함

○ 성장 단계에서는 예술인 및 단체의 성장주기 기반 성과, 신진-청년-경력단계 맞춤형 지원, 복지-창작 통합 기반 안정성, 지역 기반 생태계 재편, 그리고 재정·운영 효율성 및 민간 협력 기반 성장 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재정립해 예술단체와 지역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 중심의 가치 구조를 마련함

○ 유통 단계에서는 창작물이 관객 및 시장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접근성, 플랫폼 및 디지털 기반 유통 역량, 공연장-예술단체 협업 네트워크, 중앙-지역 연계 유통 구조, 그리고 투입 대비 유통 성과의 경제성을 핵심 가치로 배치함

- 특히 최근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플랫폼 접근성과 디지털 기반 향유 확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통 가치의 구조적 비중을 강화함

○ 확산 단계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문화향유 기회의 확장, 지역·국가 단위 문화 확산력, 아웃컴 중심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글로벌·AI 기반 확산 역량, 다중 네트워크 기반 사회적 확산성, 그리고 확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핵심 가치로 재구성함

- 이는 예술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문화정책 목표(지역균형·문화접근성·문화격차 완화 등)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가치임

[표 7-14]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단계별 가치 지표 제안(안)

구분	창작	성장	유통	확산
핵심 가치	• 단체 중심 지원 강화 • 다년도·장기 지원 전환 • 창작 기반 강화 및 창작자 중심 지원 • 장르 특성 기반 창작성과·예술적 완성도 제고 • 창작단계별 지원 구조 정교화	• 예술인 성장주기 기반 성과 및 지속성 강화 • 신진·청년·경력 단계 맞춤형 성장 지원 • 복지-창작 통합 기반 창작 안정성 • 중·장기 창작 역량 강화	• 창작-제작-유통의 단계별 정합성 • 플랫폼·디지털 기반 유통 역량 강화 • 사업유형별 유통 지원체계 확립	• 창작-유통-확산의 선순환 구조 • 아웃컴 중심 사회·문화 파급력 제고 •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상승 • 지역·국가 단위 예술 가치 확산 및 공공성 강화 • 글로벌·AI 기반 확산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 예술인 접근성 및 포용성 강화 (신규·청년·취약계층 포함) • 창작자 기초생활 안정 확보 • 장르별 및 지역별 격차해소	• 지역 기반 예술 생태계 재편 • 지역 예술단체 및 창작자 육성 • 정책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 지원 방식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	• 관객·이용자 접근성 향상 • 플랫폼·공간 기반 접근성 확대 • 공연장-예술단체 협업 기반 지역 유통 강화 • 중앙-지역 협력 기반 유통 네트워크 효과 확대	• 문화향유의 확장 • 아웃컴 기반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 • 지역-국가 단위 문화 확산력 강화 • 국제활동·글로벌 교류의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가치	• 투입 대비 창작성과 효율성 • 창작 기반 재정 안정성 • 창작 운영·공간·디지털 생산성	• 예술인·단체 성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 • 다년도 중심의 지원구조 구축 • 민간 협력 및 재원 다각화	• 창작-유통 단계의 경제효과 (관객·시장 확대) • 유통 플랫폼·공간 운영 생산성 • 지역 기반 유통 강화의 경제적 가치	• 지역-국가 경제 파급 효과 • 재원 다각화 기반 지속가능성 확보 • 창작-유통-확산 통합 효과의 총체적 경제 가치

나. 예술창작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 제안

■ 예술창작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KPI) 제안

○ 본 연구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핵심성과지표를 [표 7-15]와 같이 제시함

- 본 지표 체계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예술창작지원사업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더하여, 제시한 핵심성과지표 예시 외에 각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유지표(자율지표) 개발의 필요성 및 방법론(예: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지표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예: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데이터 분석 등)과 사업별 특성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국정과제의 목표와 연계하여, K-컬처 확산 기여도[국정과제 104], 예술인 복지 증진 기여도[국정과제 105],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여도[국정과제 104]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성과지표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7-15] 가치기반 예술창작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KPI) 제안(안)

구분	주요 지표	내용
핵심 가치	• 예술적 수월성 • 미적 경험 • 창의성 및 독창성	• 동료 심사 점수(Peer Review Score) • 관객 심층 인터뷰 및 FGI 정성 데이터 • 신작 개발 및 발표 비율 • 주요 예술상 수상, 비평, 언론 노출 건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자본 형성 • 문화적 정체성 기여 • 소통 및 성찰 기회 제공 • 문화다양성 증진	• 프로젝트 참여 전후 참여자 간 네트워크 및 사회적 관계망 변화 분석 • 지역 주민 직접 참여율 및 만족도 • 지원사업 미디어·SNS 담론 변화, 확산 분석 •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참여자 수
경제적 가치	• 재정적 지속가능성 • 문화인프라의 가치 • 창의인재 양성	• 재정 자립도(총수입 대비 자체 수입 비율) • 수익 다각화 지수(자체사업·후원·기부 등 항목별 비중) • 타 산업(관광·기술 등) 연계 프로젝트 수 및 규모 • 지원을 통한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 등(직·간접 고용 포함)

다.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제안

■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운영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제안

○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프라·대형사업형, 창작지원형, 소규모·지역형 등 사업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운영 효율 가치 지표 체계를 제안함

- 각 사업 유형은 사업의 목적, 투입구조, 산출·성과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므로, 단일한 평가체계는 사업의 본질적 성과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움

○ 본 연구는 유형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 가치—사회적 가치—경제적 가치로 구성된 3대 중심축을 중심으로 운영 효율 지표를 세분화함

- 이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예술성, 지속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구

조적 틀을 마련함

○ 본 연구는 [표 7-16]같이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으로 제안함

- ‘창작지원형’은 장르별 창작 공모 및 창작 과정의 지원을 통해 개인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창작산출물의 질적 향상을 핵심 가치로 설정함
- ‘인프라형’은 창작공간·플랫폼·시설 운영 등 창작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시스템의 유지·운영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과 장기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가치로 함
- ‘국제교류형’은 해외 레지던시 및 국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의 질과 네트워크 형성, 중·장기적 국제 파급 효과를 핵심 가치로 설정함
- 기타 유형에 포함된 사업은 예술제 및 행사성 사업, 단년도 집중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간 내 성과의 가시성과 문화 향유 확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특성을 지님
- ‘지역형’은 지역 기반 창작 환경 조성과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지역문화 격차 해소 등 지역 기반 가치가 강조됨

[표 7-16] 예술창작지원사업 유형별 효율 분석을 위한 가치 지표 제안(안)

구분	특성	운영 효율 가치 지표		
		핵심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창작지원형	• 중소규모 예산 기반 • 개인 및 단체의 창작 단계 지원	• 예술인 및 단체 창작 역량 강화 • 장르 다양성 확대	• 창작·발표 및 공유기회 확대 • 예술인 및 단체 경력 지속성 강화 • 예술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창작산출물 증가율 • 발표·전시 등 공유 효과 확장 • 민간투자·매칭 펀드 활성화
인프라형	• 대규모 총예산 및 세부사업 예산 기반 • 장기계획 • 운영 기반 구축 • 재정 안정성	•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 시설·공연장 인프라 확충 • 장기적 예술생태계 기반 조성	• 공공문화 접근성 확대 • 대규모 행사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시설 운영 효율 • 공연·대관 수입 증대 •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제교류형	• 중·장기적 관계 기반 및 과정 중심	• 국제 교류 기반 창작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중·장기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성 확보	• 국제 협력을 통한 문화 다양성 및 상호이해 증진 • 예술인 국제 활동 경험 축적 및 경력 확장 • 글로벌 플랫폼 기반 문화 향유·접근성 확대	• 국제 유통·협력 기반 창작 성과의 중·장기 파급효과 •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 민간·복합재원 유치 효과 • 국제 교류 성과의 브랜드 가치 및 후속 사업 창출
기타	• 예술제·행사성	• 단기성과 가시성	• 시민 참여 기반	• 행사·축제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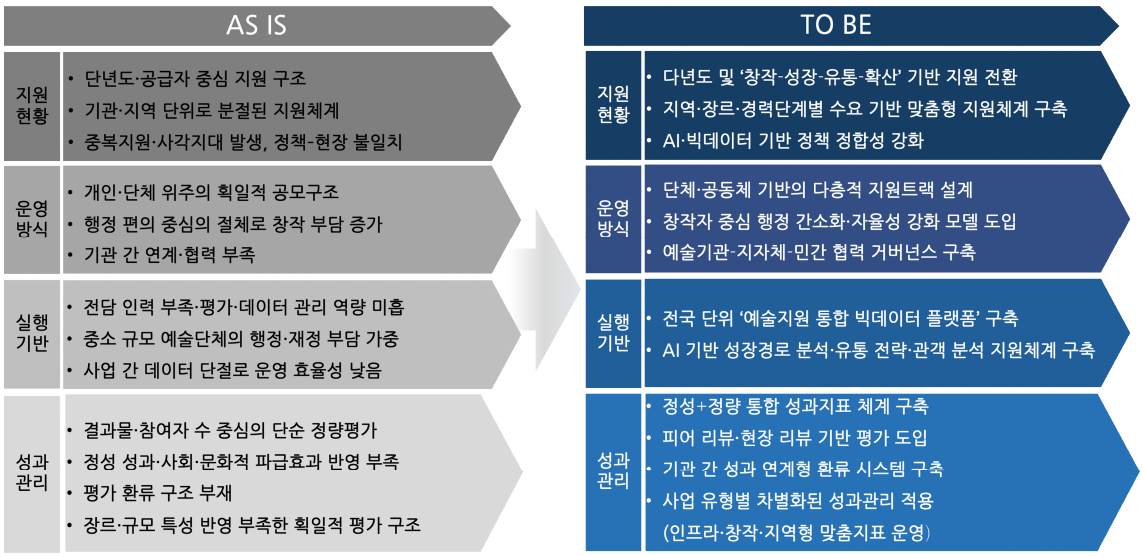
	중심의 단년도 집중형 사업 • 대중 접점이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 • 단기 실행 및 가시적 성과 중심	및 문화 확산 효과 제고 • 대중 참여 기반 문화 향유 확대	사회적 가치 확산 • 지역·일상 공간 중심 예술 접근성 강화 • 단기 문화예술 체감도 및 공공 문화 인지도 제고	지역 문화소비 활성화 • 관광·상권 연계 단기 경제 파급 효과 • 투입 대비 성과 가시성이 높은 운영 효율성
지역형	• 지역거점 공간 운영 및 창작공간 지원 • 기능성이 강한 지역기반 사업 • 중앙-지역 연계 강화 및 지역 기반 패키지형 구조 설계의 필요성	• 지역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 로컬 창작자 성장 지원 •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	• 지역 커뮤니티 강화 • 주민 참여 기반 확대 • 지역 문화 격차 해소	• 지역 문화소비 활성화 • 지역축제·관광 콘텐츠 연계 • 생활문화 기반 경제효과

3.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제언

가.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제언

■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제언

[그림 7-1]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방향성 전환 구



○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는 기존의 단년도·공급자 중심 구조에서 창작-성장-유통-확산 전 주기를 아우르는 가치기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행 구조는 행정 중심 운영, 기관 간 연계 부족, 정성평가 미흡, 데이터 인프라 부재 등으로 장기적 성과 포착이 어려움. 따라서 다년도 지원체계, 빅데이터 기반 설계, 기관-지자체-민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중심으로 성과관리 틀의 재편이 필요함

- 첫째, 성과관리 체계는 단기적 산출에 편중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예술 활동의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창작 단계에서는 안정적 창작 기반과 다년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신진-청년-경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수임
  - 특히 '성장' 단계에서는 지역 내 정주 여건과 연계하고 청년 예술인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로컬 콘텐츠 센터(가칭)'와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성과를 주요 관리 지표로의 도입을 제안함
  - 유통 단계에서는 공연장·플랫폼·디지털 기반 확산 역량 강화 요구됨. 확산 단계에서는 지역(local)-국가-글로벌 파급효과 및 AI 기반 확산 역량 등 미래지향적 성과 범주 포함해야 함. 전반적으로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성과 연계 구조 구축이 필요함
- 둘째,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정량 지표 혼합형 고도화가 필요함. 단순 참여율·집행률 중심에서 벗어나 예술적 수월성, 창의성, 미적 경험, 지역사회 관계망 변화, 문화정체성 기여 등 정성 요인 체계화 필요함
  - 이때,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 개념을 도입해,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

사회의 고립·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사회적 기여도를 정성 지표로 구체화해야 하며, 기후 위기 대응 지표를 신설하여, 친환경 축제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기후 실천 활동을 사회적 가치 성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정량 지표는 창작 산출 증가율, 취향·흥행 지표, 재정 자립도, 고용·산업 파급효과 등 포함하여 다차원적 평가체계 구성해야 함. AI 기반 분석과 결합할 때 정책 환류 효과의 극대화 가능함

- 셋째, 사업 규모·목적에 따라 성과관리 구조 차별화 필요함
  - 인프라·대형사업형은 장기 운영기반, 공공문화 접근성, 지역경제 기여 중심 평가해야 함. 이때,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과 연계하여,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 문화권' 단위의 협력 성과(Collective Impact)와 광역 랜드마크 조성 기여도를 대형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창작지원형은 창작 역량 강화, 신작 개발, 장르 다양성, 발표·전시 확장 중심 관리가 필요함
  - 지역형·소규모 사업은 지역 예술생태계 강화, 로컬 창작자 육성,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 기반 성과 중심 평가 구조가 필요함
- 넷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전문인력·데이터 기반 강화가 필수임. 행정 부담·전담 인력 부족·데이터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함. 기관 간 중복지원 완화를 위해 역할 조정 및 협업 체계 필요함. '통합 예술지원 플랫폼' 구축하여 신청-심사-성과 데이터 연계하고, AI 기반 지원 추천·성과분석 기능 도입이 필요함
  - 나아가 '자국 인공지능(Sovereign AI)'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고유의 언어, 설화, 원천 소스를 AI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고 개방하는 것을 디지털·AI 분야의 새로운 성과 목표로 설정해 문화예술과 연관된 지역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일률적 통제가 아니라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필요함
  -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병행 적용하고, 예술인·단체·전문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류형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이를 통해 성과관리는 단기 실적 중심을 넘어 예술의 본질적 가치, 사회적 확산 효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강화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이 가능함

나. 예술창작지원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세부적 제언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관리 고도화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전 주기(창작-성장-유통-확산)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기반 분석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임

○ (창작 단계) 창작자 정보·공간·자원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 (창작자 DB 허브 구축) 창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정보·공간·장비·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창작자 DB 허브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예로, 창작자 DB 허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조금 지원 플랫폼인 아르코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인의 경력 관리와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보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예술인의 주요 업적과 활동 성과를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향후 창작 활동의 이력 관리와 기회 연계를 지원하는 '커리어 패스'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장르·경력·프로젝트 이력·활동 지역·자원 필요도를 정량적으로 축적하고, 지원사업·시설 예약·지역 인프라와 연동해 창작자가 필요한 자원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시스템은 예술인 개인의 창작 이력과 활동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핵심 전제로 설정하고, 정보 공개 범위와 활용 방식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음
- (AI 기반 창작자-자원 매칭 시스템 도입) DB 허브 기반으로 창작자의 장르·경력·작업방식·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필요 공간·장비·레지던시·멘토링 등을 자동 추천하는 AI 매칭 엔진을 도입해야 함
  - 예시로 지역 내 유휴 공간(빈집, 폐교 등)을 '문화 아지트'나 '창작 레지던시'로 데이터화하여, 공간이 필요한 창작자와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공간-예술가 매칭 알고리즘 도입함으로써 창작자 맞춤형 자원 연결이 가능함

○ (성장 단계) 예술인의 성장을 추적하고 지원 정책을 정교화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 (창작자 성장 경로 분석 모델 구축) 창작자의 프로젝트 성과, 네트워크 확장, 수입 구조, 활동 패턴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창작자 성장 빅데이터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이는 신진 → 성장 → 경력 → 확산 단계의 경로, 성장률·전환점·리스크 요인과 경력별 지원 필요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정밀한 맞춤형 구조로 재설계가 가능함
- (AI 기반 경력단계별 지원 추천 시스템) 축적된 활동·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현 창작자의 위치-경력단계-필요 역량'을 분석해 지원사업 추천, 교육/컨설팅 추천, 네트워크 연결 추천을 제공해 맞춤형 성장경로 설계를 지원할 수 있음

○ (유통 단계) AI·빅데이터 기반 유통 분석 생태계 구축
- (공연·전시·축제·디지털 플랫폼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 티켓팅, 방문객 흐름, 관람객 리뷰, SNS 반응, 소비 패턴 등을 연동하는 유통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작품의 유통 성과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AI 큐레이션 및 유통 지원과 결합하여, 어떤 작품이 어떤 지역이나 플랫폼에서 더 확산되는지, 어떤 관객군이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
- (AI 기반 관객분석·콘텐츠 추천 시스템 구축)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예술작품의 유통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우선 AI 기반 관객분석·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 관객을 연령, 취향, 소비 유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선호 콘텐츠와 관람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작품별 최적의 유통 경로를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분석 결과는 특정 작품이 어떤 도시·플랫폼에서 더 높은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관객군에게 확산 가능성이 높은지 등 유통 전략 수립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
  - 나아가 이를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 전환하기 위해 '유통 전략 대시보드'를 운영해, 유통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담당자, 기획자, 예술가가 지역별 관객 특성, 유사·경쟁 프로그램 현황, 작품별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마케팅 전략을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함

○ (확산 단계) 지역-국가-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확산 경로 예측 모델 구축) 작품·아티스트·장르별로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깃 지역과의 협업이 가능한 기관·해외 파트너십 가능성을 분석하는 확산 예측 모델을 구축함. 이를 통해 확산 사업의 투입 대비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함
- (예술창작지원사업 데이터 통합) 현재 예술창작지원사업은 기관·지역·사업 단위로 개별 운영되면서, 지원의 흐름·창작자 활동·성과 데이터가 단절적으로 축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데이터 분산은 사업 간 중복지원 여부, 창작자의 실제 활동 경로, 지역별 지원 편차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운영 효율성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해함
- 각 지역과 사업에서 축적되는 창작지원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전국 단위 예술지원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해당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 이동성, 단계별 지원 흐름(창작→성장→유통→확산), 사업 간 연계 수준, 지역별 지원 격차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투입-산출 구조의 비효율 구간, 중복사업 및 사각지대, 지원정책의 불균형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음

참고예시] 영향 및 통찰 평가 도구(Impact and Insight Toolkit)	
운영 주체	• Counting What Counts • Arts Council England • Culture Counts
운영 장소	• 영국 전역
프로그램 주제	• 예술·문화 프로그램의 사회적·문화적 영향(Impact) 측정 • 관객·참여자·동료 예술인·기관 내부 등 다차원 평가 시스템 제공
운영 기간	• 2013년부터 지속 지원
세부 프로그램	• 행사·전시·프로그램 3각 평가 구조 제공
주요 내용: • Art Council England의 지원을 받아 자국 지원 대상 기관(Creative People and Places, NPP)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평가 플랫폼 • 예술인 본인, 동료, 관객의 평가를 통해 표준화된 성과지표 마련 가능 (예술의 질, 관객 경험, 사회적 가치 등 공통 문항으로 수치화) • 사업 지원 신청 시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창출하고자 하는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미리 명시,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할지 사전에 설정해 기획 단계에서 성과 프레임을 내재화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술가, 동료, 관객으로부터 설문을 수집해 실제 경험한 예술작품의 질, 관객의 경험 및 반응 등을 정량화하고 작품 및 프로그램의 도달 범위와 수용 양상 파악 • 사업 종료 후 작품 진행 기간에 따라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 작품과 프로그램의 차이 목표 대비 성과 달성의 정도, 관객과 동료의 평가 등을 비교·분석해 특정 유형의 지원이 어떤 예술 및 사회적 효과로 이어졌는지, 향후 지원 구조 및 프로그램 설계 조정 등 정책과 기관 차원에서 의결권의 근거로 활용 가능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impact-and-insight-toolkit; https://impactandinsight.co.uk/resource/evaluation-guide;Arts Council England(2023). p.4

○ 재원 다각화를 통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속가능 구조 구축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 중심의 구조를 넘어 민간·사회적 투자·기업 연계를 포괄하는 다층적 재원 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예술단체의 기부금 수령·관리 체계를 일반 기부단체 수준에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 기부단체(舊법정기부단체)'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문화취약지역 기관'들에 한정하여 기부금 공제한도 상향조정의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함
- 특례 기부단체로의 전환은 기부자의 세제 혜택 폭을 확대하여 안정적 민간 기부 유입을 촉진하고,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재정 기반을 다각화하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기부금이 지역 예술인 지원이나 지역축제, 문화유산 보존 등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지정 기탁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정기부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매칭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함

참고예시] 모금 역량 강화 프로그램(RAISE)	
운영 주체	• Arts Council (아일랜드 국가 예술지원기구)
운영 장소	• 아일랜드 전역
프로그램 주제	• 민간 투자와 자선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레이징 역량 구축
운영 기간	• 2018년부터 지속 운영
세부 프로그램	• RAISE Academy • RAISE Accelerate • RAISE Advance • RAISE Up Fund
주요 내용: • 여러 트랙(strand/tracks)을 통해 기관의 수준과 필요에 맞춘 지원 체계를 제공함. 특히, 워크숍, 일대일 컨설팅, 펀드레이징 계획 수립, 디지털 전략, major donor 개발, 지속가능성(ESG) 세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체계를 제공 •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예술기관이 스스로 민간 자본(기부, 후원, 재단, 기업 스폰서십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 • 2023년 RAISE 참여 기관들은 민간 모금 수익 외에도 약정(pledged) 후원 금액, 현물(in-kind)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7백만 기록 • 기관들은 모금 계획 수립, “Case for Support” 개발, 이사회(board) 참여 유도, Friends & Patrons 프로그램 검토, 디지털 커뮤니티 구축,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major donor 유치, 기업 및 재단 파트너십 개발 등 다양한 활동 수행	

출처: https://artscouncil.ie/developing-the-arts/flagship-programmes/raise

- 둘째, 해외 문화예술재단과 사회혁신 조직들이 활용하는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 SIB)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술가 성장·취약 예술인 지원·지역문화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성과를 재정적 보상과 연계하는 성과기반 투자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공공 예산을 통해 외부에서 사회적 자본을 유치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촉진하는 새로운 재정(financing) 기제를 확보할 수 있음

참고예시]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운영 주체	• 서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운영 장소	• 서울특별시 전역
프로그램 주제	• 기업 기부금+재단 보조금의 1:1 매칭형 지원사업
운영 기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세부 프로그램	• 인프라, 공연, 시각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 대상 • 기업 CSR/ESG 예산과의 결합 제도화
주요 내용: • 최근 5년간 130개 기업, 약 38억 원 규모 기부금 유치 • 순수 공공보조금이 아닌 기업 CSR/ESG 예산과의 결합 제도화 • 기업이 예술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재단이 최대 2천만 원(100%) 매칭 지원 • 선정된 후원금은 재단을 통해 예술단체에 교부(기업 기부금+재단 매칭금 함께 전달) • 후원 기업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제 혜택 가능, 재단 명의 감사패 수여, 재단 매체(간행물) 내 홍보 혜택 제공 • 선정 이후 후원기업이 약속한 기부금 규모 축소하면 재단 매칭금도 동일 비율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 책임 및 관리 체계 존재 • 최근 3년 연속 동일 예술단체가 선정된 경우, 의무적으로 1년 휴지기 필수	

출처: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https://www.sfac.or.kr/site/SFAC_KOR/12/112080102000020230418O4.jsp

- 셋째,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메세나(기업-예술 매개 기관)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함. 이는 기업의 ESG·CSR 목적과 예술가·단체의 창작 목표를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매칭형 후원 모델, 프로젝트 기반 협력 모델, 장기 파트너십형 창작 지원모델 등을 구축할 수 있음
  - 특히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르별·지역별 창작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고, 공동 브랜딩·IP 활용·기술 협력 등 기업 참여의 확장 가능성을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예시] 예술·문화 임팩트 펀드(Arts & Culture Impact Fund)	
운영 주체	• Figurative(영국 비영리 단체) • Arts Council England • National Lottery Heritage Fund
운영 장소	• 영국 전역
프로그램 주제	• 상환이 가능한 대출 / 투자 • 기관이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를 만들고, 그 임팩트를 측정·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 기간	• 상시 지원
세부 프로그램	• secured 또는 unsecured loan의 대출 • 임팩트 측정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주요 내용: • 예술·문화·헤리티지(heritage) 섹터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임팩트 투자, 대출 펀드 사업 • arts / culture / heritage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사회적 사명을 가진 단체·기관 대상 • 펀드 초기 자금 규모 약 £23 million으로 시작, £150,000 ~ £1,000,000까지 대출 가능 • 상환 만기 시점은 최대 2034년까지 가능하며 상시 지원 형태로 진행 • 주 사업인 대출은 secured 또는 unsecured loan 형식으로 제공되며 상황 조건은 만기인 2034년까지, 이자율 4%~8.5% • 자산 취득(건물, 공간), 기존 인프라 개선(공연장, 스튜디오, 박물관 공간 등), 신규 벤처 개발 또는 기존 수익 구조 확장에 사용 가능 • 예술 단체의 사회적/공공적 가치(지역사회 참여, 문화 접근성, 커뮤니티 활성화 등)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 • 주 운영 주체인 Figurative는 투자와 함께 임팩트 측정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도 병행	

출처: https://figurative.org.uk/our-work/impact-investment; https://figurative.org.uk/fund/arts-culture-impact-fund

○ 지역 기반 예술창작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안

- 지역 문화진흥계획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단순 공모 지원 중심을 넘어 지역 기반의 창작·체류·활동·비즈니스 생태계를 강화하는 구조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예술 활동을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Art-is-an-Economy' 모델을 도입하여 예술가가 지역 내에서 교육·콘텐츠 제작·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창작 기반을 구축해야 함. 지역 특화산업, 관광, 소상공업 등과 협력하는 프로젝트형 창작지원 모델을 신설하여 예술 활동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필요함
-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Art-based Local Business Model)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트 상품 개발, 지역축제·관광과 연계한 예술콘텐츠 유통, 로컬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 등 예술 창작물이 지역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창작경제 구조를 육성해야 함
  - 이를 통해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창작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문화자원·인력·산업 구조와 연계된 지역 문화·경제 생태계 강화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

참고예시] 데버론 프로젝트: 도시 전체를 무대로(Deveron Projects: The Town is the Venue)	
운영 주체	• Deveron Projects • 예술감독(Claudia Zeiske 등) 및 지역 커뮤니티 파트너 • 지역 주민·단체·상점·학교·교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 장소	• 스코틀랜드 애버딘셔 헌틀리(Huntly) 전역 • 18세기 거리·광장·마을 공공장소 전체가 프로젝트 공간 • (“The Town is the Venue” 구조)
프로그램 주제	• 지역 전체를 예술의 무대로 활용하는 사회참여형 예술·커뮤니티 기반 창작 프로그램 (ARTocracy 방식: 사람·장소·과정을 연결하는 협업형 예술 실천)
운영 기간	• 1995년부터 지속 운영(상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 Artist /Thinker in Residence • Town Collection • ‘Walking Institute’ & ‘Slow Marathon
주요 내용: • 예술가가 헌틀리에 직접 거주하며 창작·조사·커뮤니티 활동 수행 • 마을 주민·가게·학교·교회·클럽 등과 협력한 장소특정형 예술 프로젝트 • ‘The Town is the Venue’ 원칙에 따라 거리·광장·숲·바·상점·학교 등 전체를 작업장/전시장으로 활용 • ARTocracy 방법론(사람-맥락-과정-결과)의 창의적 사회실천 적용 • Geddes의 PLACE / WORK / FOLK 모델 기반 지역 문제·문화·정체성 조사 • 50/50 원칙(예술/일상, 지역/세계, 이상/현실 등 균형)을 통한 사회참여 예술 운영 • 완성작 전시뿐 아니라 리서치, 워크숍, 지역행사·마을활성화 활동까지 포함	

출처: https://www.deveron-projects.com/the-town-is-the-venue/

- 둘째, 지역에서의 체류 경험을 예술창작과 결합하는 ‘Art-Vacation(예술-휴가형 체류 창작)’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의 공공시설·유휴 공간을 활용한 단기·중기 체류형 창작 거점을 운영해야 함. 이를 통해 예술가는 지역의 자연·문화·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창작하고, 지역은 예술가 체류를 통한 문화적 활력·지역 브랜드 제고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음

참고예시] 나메리카와 레지던시(NAMERIKAWA ARTIST IN RESIDENCE)	
운영 주체	• Atom Co., Ltd. (A-TOM ART AWARD) • 나메리카와시 후원 • TOYAMATO 등 협력
운영 장소	• 일본 도야마현 나메리카와시 구 다나카초등학교 본관(국가 등록 유형문화재)
프로그램 주제	• 외부 청년 예술가 대상 지역 체류형 Art-cation 레지던시
운영 기간	• 약 3주
세부 프로그램	• 도야마 전통 재료·기술 조사(목조각, 쪽염색, 실크·해양자원 등) → 약 3주간 체류·창작(염색·조각·영상 설치) → 구 다나카초등학교 본관에서 결과 전시 및 지역 주민·학생과 교류
주요 내용: • 도야마 지역 전통 기술·재료 조사(목조각, 쪽염색, 실크, 해양 자원 등) • 약 3주간 현지 체류하며 염색·조각·영상 설치 등 작품 제작 • 구 다나카초등학교 본관에서 결과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운영 • 지역 주민·학생·기업과의 교류 및 문화 활성화 기여	

출처: https://toyamato.jp/

- 셋째, 청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예술 아지트’를 구축해야 함. 지역 내 폐산업시설·상업공간·유휴 공공시설 등을 청년 예술인의 작업실·공유 스튜디오·실험공간으로 전환하고, 창작-발표-네트워킹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융합형 거점을 조성해야 함
  - 이를 통해 청년단체·청년예술가의 활동을 지역 프로그램·교육·유통과 연계하여 지역 내 지속 활동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임

참고예시] 웨스트베스 예술인 주거단지(Westbeth Artists Housing)	
운영 주체	• Westbeth Corp. • Housing Development Fund Corp. (비영리 HDFC) • J.M. Kaplan Fund, NEA(미국국립예술기금) 초기 지원
운영 장소	• 미국 뉴욕 맨해튼 웨스트빌리지 • 구 Bell Laboratories Building(1898~1966) — 13개 건물 복합 단지
프로그램 주제	• 예술가 주거 + 작업실 + 커뮤니티 공간 통합형 '청년·예술가 정착형 복합 문화허브' • 유휴 산업시설의 예술·커뮤니티 기반 재생(adaptive reuse) 모델
운영 기간	• 1970년 개관 이후 지속 운영
세부 프로그램	• 저렴한 예술가 주거 및 작업실 제공(384세대) • 공연장·연습실·스튜디오 운영 • Westbeth Art Gallery 운영(입주·외부 예술가 전시) • 커뮤니티 이벤트(낭독회, 공연, 영화상영) • 공공·지역단체 협력 프로그램 • 예술기관 입주(마사 그레이엄 센터, New School Drama 등) • 세대 연속 거주 기반의 예술가 공동체 유지
주요 내용: • 유휴 산업시설(벨연구소)을 예술가 주거·작업 공간으로 재생하여 저렴한 스튜디오·주거 제공 • 예술가·청년예술인이 장기 거주하며 창작·연습·전시·공연을 수행하는 복합 창작생태계 운영 • 갤러리·공연장·연습실 등 문화시설을 활용해 전시·퍼포먼스·커뮤니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 • 입주 예술가 협의체(WARC)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협력 활동(워크숍·상영회·공동 프로젝트) 전개 • 주요 예술기관(마사 그레이엄 센터 등) 입주로 교육·네트워킹·창작·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출처: https://westbeth.org/

- 넷째, 고령 인구 증가 및 지역 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AIP(Aging in Place) 기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모델을 마련해야 함
  - 노년층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문화예술 향유·참여·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예술서비스, 생활SOC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세대통합형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회적 확산 성과지표와 연동해야 함

참고예시] 어르신 문화즐김(9988) 사업	
운영 주체	• 경기도 • 경기복지재단
운영 장소	• 경기도 내 어르신 즐김터로 지정된 복지관, 문화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주제	• 거주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로 생활 SOC와 연계
운영 기간	• 2016년 ~ 지속 운영
세부 프로그램	• 어르신 즐김터 • 9988 톡톡쇼 • 문화즐김 기자단 • 세대 연속 거주 기반의 예술가 공동체 유지
주요 내용: • 복지관, 경로당, 문화원 등 주민 생활반경 안의 시설을 문화거점으로 사용 • 노년층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문화예술 향유, 참여, 창작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 SOC와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 어르신 즐김터: 지역 어르신 맞춤형 취미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동아리 연습실의 무료 대여, 작품 전시 및 공연활동 지원 • 9988 톡톡쇼: 어르신 공연 동아리 대상으로 경연 및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동아리 발굴, 지역사회 재능기부 공연으로 연계 • 문화즐김 기자단: 어르신이 직접 지역의 복지관, 경로당 등을 취재하고 온라인 및 언론매체로 취재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	

출처: 어르신문화즐김 경기9988, https://xn--9988-973ps3e.kr

참고문헌

국내 문헌

〈보고서〉

1. 국회도서관(2023). 「K-콘텐츠: 한 눈에 보기」, 2023. 6.
2.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023. 1.
3.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1.
4. 문화체육관광부(2025). 「문화한국 2035」, 2025. 3.
5. 서울문화재단(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 2020. 1.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아르코 비전 2030 보고서」, 2019. 10.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문화예술방식 다변화 방안 연구」, 2020. 07.

〈단행본〉

1. 원윤선(2017). 가치기반경제: Doing the Right Thing: A value-Based Economy, 2017.11. 워니북스.

〈논문〉

1. 김재중, 허식(2019).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이 민간기부에 미치는 효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33권 제3호, 2019. 10., pp.31-57.
2. 김순한, 장웅조(2022). 가치기반 경제 속의 로컬크리에이터 연구 - 제주 〈해녀의 부엌〉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2022. 4., pp.133-159.
3. 박성권, 허훈(2025). 문화예술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기초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2025. 4., pp.23-53.
4. 이슬기(2020).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34권 제3호, 2020. 10., pp.95-120.
5. 이정희(2019). 공연분야 공공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33권 제1호, 2019. 1., pp.155-184.
6. 전종섭, 허식(2020). 문예회관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분석: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34권 제2호, 2020. 6., pp.131-158.
7. 정용성, 장웅조(2023). 공공 문화예술 조직 운영 자율성에 관한 제도론적 분석-국립극단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7호, 2023. 4., pp.121-165.
8. 정윤수(2022).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과 참여소득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대중음악』, 제29호, 2022. 5., pp.307-336.

〈인터넷 자료〉

1. 경기9988. https://xn--9988-973ps3e.kr/#page1(접속일자 2025. 11. 25.).
2. 경인일보(2024. 5. 18.). “인천 지역문화 현장, 기초 부실하고 겉만 요란하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691880,(접속일자 2025. 08. 30.).
3.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접속일자 2025. 9. 25.).
4. 법령, 「예술인 복지법」(접속일자 2025. 9. 25.).
5.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https://www.sfac.or.kr/site/SFAC_KOR/12/112080102000002023041804.jsp(접속일자 2025. 11. 25.).
6. 인천뉴스(2025. 1. 2.). 인천지역 문화시설 운영기관, “예산·인력 부족...시설의 문화예술교육 등 다각적 지원 필요해”.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890(접속일자 2025. 9. 13.).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https://www.arko.or.kr/content/5980(접속일자 2025. 9. 10.).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 https://www.arko.or.kr/content/846(접속일자 2025. 9. 10.).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https://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8918(접속일자 2025. 9. 10.).
10.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의 새로운 우용을 만나다,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593&pMenuCD=0302000000&pCurrentPage=223&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접속일자 2025. 12. 15.).

국외문헌

〈보고서〉

1. Arts Council England(2023). Impact and Insight Toolkit and Peer Portal Privacy Notice, 2023. 3, pp. 1-10.
2. EU(2017). Mapping the Creative Value Chains, A study on the economy of culture in the digital age Final report, 2017. 8.
3. UNESCO FCS(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2009, pp. 1-98.

<단행본>

1. Guccio, C., Mazza, I., & Pignataro, G(2025). New Perspectives in the Public and Cultural Sectors, Springer.
2. Kaplinsky, R., and Mike. M(2000), A HANDBOOK FOR VALUE CHAIN RESEARCH, IDRC.
3. Klamer. A(2017). Doing the Right Thing: A value-Based Economy, Ubiquity Press, 2017.

<논문>

1. Klamer. A(2020). The Economy in Context: A Value-Based Approach, Journal of Contextual Economics - Schmollers Jahrbuch, Duncker & Humblot, Berlin, (140), 2020. 3-4, pp.287-300.
2. Kirchner, T. A., Golden, L. L., & Brockett, P. L(2022), Improving arts management/marketing efficiency: optimizing utilization of scarce resources to produce artistic outputs, Arts and the Market, 12(3), 2022. 10., pp.181-196.

<인터넷 자료>

1. ARTS COUNCIL ENGLAND. https://www.artscouncil.org.uk/impact-and-insight-toolkit/(접속일자 2025. 11. 25.).
2. Figurative. https://figurative.org.uk/fund/arts-culture-impact-fund/(접속일자 2025. 11. 25.).
3. Figurative. https://figurative.org.uk/our-work/impact-investment/(접속일자 2025. 11. 25.).
4. Impact & Insight Toolkit. https://impactandinsight.co.uk/resource/evaluation-guide/(접속일자 2025. 11. 25.).
5. The Arts Council An Chomhairle Ealaíon. https://artscouncil.ie/developing-the-arts/flagship-programmes/raise/(접속일자 2025. 11. 25.).
6. THE TOWN IS THE VENUE. https://www.deveron-projects.com/the-town-is-the-venue/(접속일자 2025. 11. 25.).
7. TOYAMATO. https://toyamato.jp/(접속일자 2025. 11. 25.).
8. Westbeth home to the arts. https://westbeth.org/(접속일자 2025. 11. 25.).

〈부록 1〉 예술창작지원사업 각 장르에 따른 연도별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사업총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투입 금액 (백만원)	지원수 (명,단체,건, 개소)	사업 운영비
1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_ 우수작가후속지원	2025		600.0	30.00	20	258
2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2025	2,485	648.0	16.20	40	
3	문학창작육성	문학광장운영		2025		529.0	526.40	1	2.6
4	문학창작육성	문학주간운영		2025		450.0	400.00	1	50
5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2025		744.0	62.00	12	
6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	2025		109.0	10.90	10	63
7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2025	3,723	270.0	27.00	10	
8	시각예술창작육성	건축물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진흥		2025		300.0	300.00	1	0
9	시각예술창작육성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2025		2,237.0	1,834.00	1	403
10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2025		11,367.0	105.30	108	
11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2025		230.0	12.80	18	1,865
12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ARKO한국창작음악제	2025		400.0	400.00	1	
13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2025	37,125	8,704.0	217.60	40	0
14	공연예술창작육성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운영		2025		4,921.0	2,679.00	1	2242
15	공연예술창작육성	소극장학전재대관 지원		2025		1,000.0	820.00	1	180
16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2025		8,638.0	8,028.00	1	610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사업총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투입 금액 (백만원)	지원수 (명,단체,건, 개소)	사업 운영비
17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강화	글로벌창작역량강화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2025		700.0	20.00	30	100
18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강화	글로벌창작역량강화	공동창제작지원	2025		1,456.0	58.20	25	0
19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강화	글로벌네트워크강화		2025	4,362	1,063.0	600.00	1	463
20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강화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2025		243.0	12,2	20	0
21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강화	글로벌네트워크강화		2025		600.0	600.00	1	0
22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강화	해외문화기관협력		2025		300.0	100.00	2	100
23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문화예술세계총회개최	우수전시지원	2025	2,172	1,768.0	23.20	76	404
24	창작공간활성화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비평	2025		1,000.0	400.00	1	600
25	창작공간활성화지원	다원예술창작지원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2025	10,000	3,000.0	2,800.00	1	200
26	창작공간활성화지원	문학창작공간지원		2025		6,000.0	5,168.00	1	832
27	지역예술도약지원			2025	4,810	4,710.0	67.29	70	100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사업총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투입 금액 (백만원)	지원수 (명,단체,건, 개소)	사업 운영비
28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24		1,200.0	3.30	360	
29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2024		666.0	13.32	50	258
30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문학비평활동지원	2024	3,036	90.0	4.50	20	
31	문학창작육성	문학광장운영		2024		529.0	526.70	1	2.6
32	문학창작육성	문학주간운영		2024		293.0	240.00	1	53
33	시각예술창작산실	시각예술창작산실	창작의과정	2024		90.0	9.00	10	
34	시각예술창작산실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2024		733.0	61.00	12	62
35	시각예술창작산실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	2024	3,423	90.0	9.00	10	
36	시각예술창작산실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2024		210.0	26.30	8	
37	시각예술창작산실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2024		2,238.0	1,851.00	1	387
38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의과정	2024		1,320.0	16.50	80	
39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2024		9,780.0	9,780.00	1	
40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2024		243.0	9.00	27	2195
41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ARKO한국창작음악제	2024		360.0	360.00	1	
42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진주대첩 창작오페라 제작	2024		300.0	300.00	1	
43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일반공모	2024		7,954.0	118.40	67	0
44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국회지정]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024	34,447	650.0	650.00	1	0
45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국회지정]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	2024		100.0	100.00	1	0
46	공연예술창작육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		2024		4,921.0	4,921.00	1	0
47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2024		6,624.0	148,2	44	324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사업총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투입 금액 (백만원)	지원수 (명,단체,건, 개소)	사업 운영비
48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024	4,738	700.0	7.50	40	400
49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024		1,756.0	24.30	80	1
50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2024		300.0	300.00	1	0
51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어반브레이크 2024	2024		200.0	200.00	1	0
52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2024		1,063.0	600.00	1	463
53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4		476.0	459.00	1	17
54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	해외문화기관협력	2024		269.0	13.50	20	0
55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창작의과정_공모지원	2024	2,172	1,768.0	1,768.00	1	120
56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다원예술 창작지원_기획사업	2024		284.0	284.00	1	
57	창작공간활성화지원	문학창작공간지원		2024	10,000	1,000.0	400.00	1	600
58	창작공간활성화지원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		2024		3,000.0	2,800.00	1	200
59	창작공간활성화지원	공연예술창작공간지원		2024		6,000.0	5,500.00	1	500
60	아르코공공예술	자율실행형		2024	998	428.0	85.60	5	0
61	아르코공공예술	주제심화형		2024		570.0	114.00	5	0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사업총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투입 금액 (백만원)	지원수 (명,단체,건, 개소)	사업 운영비
62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23	3,537	1,200.0	3.30	360	0
63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023		400.0	50.00	8	257
64	문학창작육성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2023		740.0	14.80	50	
65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산실	어반브레이크 2024	2023		100.0	10.00	10	
66	문학창작육성	문학광장운영		2023		547.0	547.00	1	0
67	문학창작육성	문학주간운영		2023		293.0	293.00	1	0
68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지원_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2023	4,745	100.0	6.70	15	100
69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2023		800.0	67.00	12	
70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2023		100.0	10.00	10	
71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2023		1,170.0	32.50	36	
72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작가프로모션지원	2023		240.0	30.00	8	
73	시각예술창작육성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2023		2,235.0	1,834.00	1	401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사업총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투입 금액 (백만원)	지원수 (명,단체,건, 개소)	사업 운영비
74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단계별제작지원	2023		7,410.0	7,410.00	1	0
75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2023		300.0	15.00	20	0
76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2023		244.0	244.00	1	0
77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ARKO창작음악제	2023		400.0	400.00	1	0
78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허왕후	2023		200.0	200.00	1	0
79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국회지정]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2023	29,467	200.0	200.00	1	0
80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일반공모	2023		7,954.0	106.00	75	0
81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국회지정]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023		650.0	650.00	1	0
82	공연예술창작육성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2023		1,091.0	938.00	1	153
83	공연예술창작육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		2023		3,694.0	1,625.00	1	2,069
84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2023		7,324.0	152.20	46	324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사업총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투입 금액 (백만원)	지원수 (명,단체,건, 개소)	사업 운영비
85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023	4,899	700.0	8.00	50	300
86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023		1,950.0	21.70	90	0
87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국회지정] 어반브레이크 2023	2023		100.0	100.00	1	0
88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	[국회지정]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2023		300.0	300.00	1	0
89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	해외문화기관협력	2023		269.0	269.00	1	0
90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2023		1,063.0	1,063.00	1	0
91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구축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3		517.0	50.00	10	17
92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예술과 기술 창작단계별 지원	2023	6,596	2,915.0	2,915.00	1	0
93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융합 활성화 기반조성	2023		658.0	233.00	6	0
94	예술과기술융합지원	빅데이터예술서비스개발	빅데이터 예술서비스 사업화 지원	2023		923.0	230.70	4	0
95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예술과기술융합바우처지원	예술×기술융합바우처	2023		2,100.0	2,000.00	1	100
96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다원예술창작지원	2023	2,400	880.0	20.00	44	120
97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활동 지원	2023		1,400.0	20.00	70	

<부록 2> 전문가, 고관여자, 사업 참여 예술인 질문지

1.1 전문가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1. 예술창작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 과제	1-1.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혹은 비효율성은 무엇입니까?
	1-2.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향후 과제 및 전망	• 예술창작지원사업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향후 사업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은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려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예술창작지원사업 사업방식별 유형화	2-1.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방식별 유형화	•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지원 방식 중 성과가 뚜렷하거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난 사업 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예술영영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지원방식과 차별점 및 보완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사업모델	3-1. 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성과	• 사업 효율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투입 변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 체계 구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2. 예술창작지원사업 모델 설계	• 사업모델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사업의 지원 목적, 대상, 선정 기준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시범사업 적용 시,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분야와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새로운 창작지원 방식과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성과지표(KPI)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고관여자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1.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개요 및 현황, 정책적 위치	1-1. 예술창작지원사업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시각다원예술사업 및 공연예술사업의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작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시각다원예술사업과 공연예술사업의 개요를 이야기해주세요. (* 사업의 전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사업비 구성 / 사업의 핵심 미션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내 본 사업의 위치 및 역할	• 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속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및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근거 및 바탕 의견)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미션 및 업무 계획과 본 사업의 연결점	• 본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미션 및 업무 계획과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분야별 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 사례 및 향후 과제	2-1.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잘된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	• 시각다원예술사업과 공연예술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잘된 사례와 개선이 필요했던 사례를 각각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성과, 정책적 반응, 현장 반응 등)
	2-2. 사업운영에 있어 단년과 다년 사업구조 중 각 사업의 특성 상 적합한 사업 구조	• 시각다원예술사업과 공연예술사업을 운영하면서 작품의 완성 주기, 국제 교류, 기술 협업 등을 고려했을 때, 단년과 다년 사업 구조 중, 어떤 것이 각 사업의 특성상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2-3. 향후 분야별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 향후 시각다원예술사업과 공연예술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3. 사업 운영체계 및 개선 방안	3-1. 본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거버넌스, 편성된 조직체계, 담당 인력 구성 및 운영 현황	•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거버넌스, 편성된 조직체계나 담당 인력은 어떻게 구성 및 운영되어 있을까요? (거버넌스: 문화체육관광부·기재부·예술위·지역기관 등 / 편성 조직체계 및 담당 인력: 업무의 역할 등)
	3-2. 사업 실제 운영 및 관리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점 및 어려운 점	• 본 사업을 실제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3-3. 향후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추가·보완사항	•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려면 앞으로 어떤 점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까요?
4. 현재 정책사업 평가 시 도입 및 적용 중인 정책사업 성과지표	4-1. 사업 평가 시, 정량·정성 중 중점을 두고 있는 평가 방법	• 본 사업 평가 시, 정량적 데이터(지원 건수, 참여자 수, 예산, 작품 수 등)와 정성적 데이터(예술가 인터뷰, 수혜자 후기, 현장 모니터링 기록 등)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사업의 효율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안)	• 사업의 효율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새로운 예술자원 구조의 제안	5-1.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	• 분야별 사업 운영 및 관리의 입장에서 예술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어떤 형태일까요? (예를 들어, ①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재정 지속가능성) 제공, ②다양한 동료 예술가나 커뮤니티와의 사회적 네트워킹 기회 제공, ③작품 유통 및 판로 확보 지원 등)
	5-2. 운영 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핵심 방향	• 앞으로 운영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창작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3 사업 참여 예술인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1. 기본 예술 활동 및 창작환경	1-1. 예술 활동 분야 및 경력	• 현재 어떤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주요 활동 형태(창작·공연·제작·교육 등)와 경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2. 창작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창작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재정·공간·유통·홍보·행정 부담 등)
2. 기존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2-1. 운영 효율 및 사업 구조 관점	• 지금까지 참여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예: 개인지원/단체지원, 단년도/다년형, 공모형 등) • 지금까지 참여한 예술창작지원사업 중, 창작 활동에 있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 기존 사업 운영 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행정 절차, 선정 기준, 서류 부담, 결과 중심 운영 등) • 최근 예술지원 사업의 경향이 '신작 제작'이나 '공연' 같은 직접적인 창작지원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거점 공간 운영'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 구조의 변화가 선생님의 실제 창작 활동(예: 작품의 질, 실험성, 관객과의 만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2. 지원유형 개선 요구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원 기간(현재 대부분 단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년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현재 지원사업이 예술 활동의 전 과정(창작 준비-제작-유통-확산-성과 환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사업 유형(지원 대상/방식/주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다년 연속 지원 필요 / 경력 단계별 지원 / 실험·연구형 지원 / 창작 R&D형 지원 / 간접 지원(공간·인력·기획지원) 강화 등)
	2-3. 지원 방식 개선	• 아래 지원 방식 중 현장에 필요한 방식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보조금 직접지원 ②간접 지원(공간, 장비, 기술) ③융자 지원 ④바우처형 ⑤민간 매칭형 ⑥단계별 성장 트랙형) • 지원금 규모보다 지원 방식의 유연성(자율적 예산 사용, 간접비 허용 등)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3. 새로운 예술지원 구조의 제안	3-1. 현재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사업 분야 및 유형	• 현재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사업 분야나 유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2.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 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3. 예술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술창작지원사업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예술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①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②다양한 동료 예술가나 커뮤니티와의 사회적 네트워킹 기회, ③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예술적 수월성 추구 중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3-4. 현재 지원사업의 핵심, 사회, 경제적 가치의 균형 여부	• 현재 지원사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균형 있게 사업 내에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3-5. 특정 가치 편중에 따른 보완점	• 현재 지원사업들이 이러한 가치들(핵심/사회/경제)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혹은 특정 가치에 편중되어 있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예술지원 운영 효율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연구

발행인 : 정병국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인쇄일 : 2026.1.12.
발행일 : 2026.1.12.
인쇄인 : 모두카피